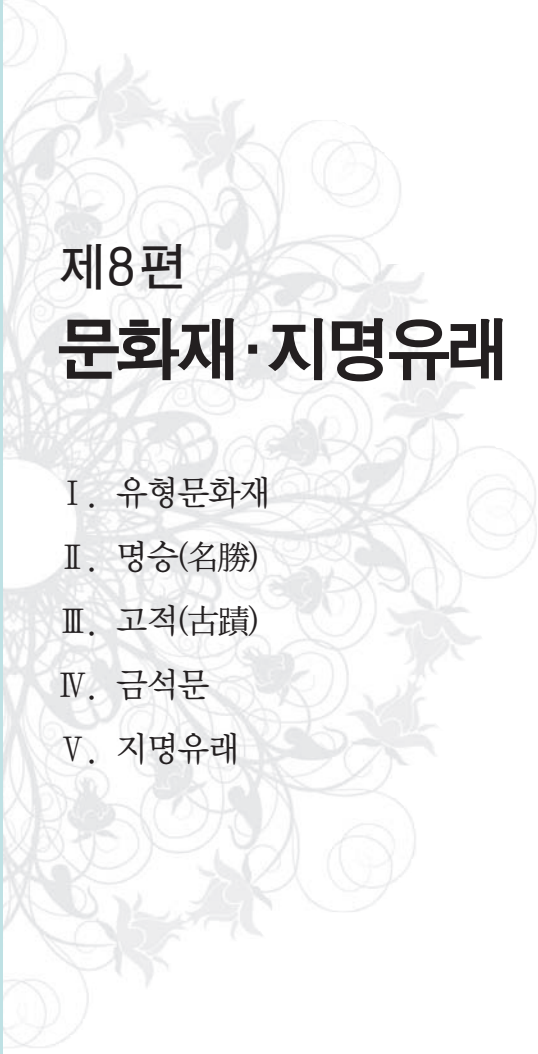


제 8 편

문화재 지명유래



A decorative floral pattern in a light gray color, featuring stylized flowers and swirling vines, positioned behind the title and list.

제8편 문화재·지명유래

- I. 유형문화재
- II. 명승(名勝)
- III. 고적(古蹟)
- IV. 금석문
- V. 지명유래

I. 유형문화재

1. 개념(概念)

유구한 역사를 지닌 양양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유적으로 알려진 사적 제394호 오산리선사유적지를 비롯하여 많은 문화재가 남아 있는데 본 절에서는 이들 중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형문화재란 무형문화재와 대비되는 용어로 역사적·예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 중에서 일정한 형태를 지닌 것을 통칭하여 말인데 문화재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므로 대상을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1961년 10월 2일 각령 제 181호로 문화재관리국 직제의 공포와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의 제정 공포 이후이지만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에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문화재에 대한 정의는 국가적으로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므로 1970년 유네스코(UNESCO)협약 제1조에서 규정한 문화재의 정의에 따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문화재란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함으로써 종교적 또는 세속적 근거에서 각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재산으로 세부적으로 11개 범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실정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가장 현실적인 해석은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법인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는 것이다.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문화재의 특성상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하고 지정 주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유형문화재를 법규상의 규정에 따라 해석할 경우 유형문화재란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라고 정의하고 있어 무형문화재, 기념물과 민속자료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제외되어야 한다. 특히 협의로 해석한 유형문화재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국보와 보물만 해당되므로 보다 광의의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를 모두 유형문화재의 범주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들 문화재는 모두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정문화재 중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것을 유형문화재라는 항목으로 정리해도 될 것이다. 또 지정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전술한 문화재의 해석에 적합한 우리 양양군의 문화유산은 모두 대상에 포함시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타분야와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였다.

우리 양양군에는 다양한 지정문화재가 남아있는데 2005년 양양산불로 인해 낙산사가 소실된 이후 관내의 지정문화재는 새롭게 지정되거나 해제되는 등 변화가 많았다. 현재 양양군에 있는 지정문화재는 국보 1개, 보물 8개, 사적 2개소, 명승 3개소, 천연기념물 2개소가 있으며 도유형문화재 7개, 도기념물 3개소, 도문화재자료 7개 등 총 33개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²⁾

2.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의 특성에 따라 유형문화재는 국보·보물, 기념물은 사적·명승·천연기념물, 그리고 민속자료는 중요민속자료 순으로 구분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와 보물은 특성상 분류에서 유형문화재를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가치성과 희귀성으로 구분하는데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³⁾ 문화재보호법 상으로 기념물은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3개 항목으로 나누어 정하는데 사지(寺

址)·고분(古墳)·패총(貝塚)·성지(城址)·궁지(宮趾)·요지(窯址)·유물포함층(遺物包含層)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될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사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명승으로 지정하고,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식물(그 자생지를 포함)·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다. 민속자료는 의식주·생업·신앙·년중 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으로 규정하고⁴⁾ 있으며 민속자료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이들 지정문화재는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 문화재와 그 주변을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구 분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연 월 일	소 재 지
국 보	진전사지삼층석탑	122	1966. 2.28.	강현면 둔전리 100-2
보 물	진전사지부도	439	1966. 2.28.	강현면 둔전지 산1
	선림원지삼층석탑	444	1966. 9.21.	서면 황이리 424
	선림원지석등	445	1966. 9.21.	서면 황이리 424
	선림원지홍각선사탑비(귀부 및 이수)	446	1966. 9.21.	서면 황이리 산89
	선림원지부도	447	1966. 9.21.	서면 황이리 산89
	양양오색리삼층석탑	497	1968.12.19.	서면 오색리 산1-21
	낙산사칠층석탑	499	1968.12.19.	강현면 전진리 55
	양양낙산사건칠관음보살좌상	1362	2003. 2. 3.	강현면 전진리 55
사 적	양양오산리선사유적	394	1997. 4.18.	손양면 오산리 60 외
	양양낙산사일원	495	2008.12.18.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명 승	양양낙산사 의상대와 흥련암	27	2007.12. 7.	강현면 전진리 산5-2외
	구룡령 옛길	29	2007.12.17.	서면 갈천리 산1-1
	양양하조대	68	2009.12. 9.	현북면 하광정리 산3외
천 연 기념물	설악산천연보호구역	171	1965.11. 5.	오색리,둔전리,물갑리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229	1970.11. 5.	현남면 포매리 122-3외

1) 국보

(1) 진전사지 삼층석탑(국보 제122호)

진전사 삼층석탑이 자리한 영역은 부도탑과 복원된 사찰이 있는 영역과는 다른 영역으로 삼층석탑만이 남아있는데 2층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쌓아올린 9세기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으로 1966년 2월 28일 국보 제122호로 지정되었다.



진전사지 삼층석탑

높이 5m의 화강암 석탑인 삼층석탑은 8장의 장대석으로 지대석을 구성한 후 2층의 기단을 올렸는데 하층기단은 낮게 구성하였으며 양쪽에 우주와 중앙에 탱주를 1개로 입면을 구성하고 그 사이 면석에 연꽃무늬 받침 위에 앉아있는 비천상 2구씩을 새겼다.

상층기단은 하층기단과 동일한 형식으로 면석에 기둥을 새겼고 면석에 구름 위에 앉아있는 팔부신중상 2구씩을 새겼는데 면석의 조각수법과 하층에 비해 높은 입면을 구성한 전체적인 비례는 9세기 통일신라 석탑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탑신부는 1층 탑신에 각 면에 서로 다른 모양의 좌불상 즉 사방불을 새겼으며 아래에는 2단의 옥신괘석을 놓았고 위의 옥개석은 5단의 옥개받침으로 구성하였다. 처마 밑은 수평이고 추녀 끝은 약간 들려있고 낙수고랑이 음각되어 있으며 끝에 풍경을 매달았던 구멍이 각각 2개씩 남아있는데 2, 3층의 탑신은 입면 비례가 급격한 체감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1층 탑신과 구성은 동일하나 탑신에 우주 외에는 조각이 없는 상태이다.

상륜부는 노반만 남아있고 상부는 유실되었는데 노반에는 직경 10cm, 깊이 10cm의 찰주공이 있어 정확한 높이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현재 석탑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으나 넓은 대지에 석탑만 남아있을 뿐이며 석탑 또한 약간 기울어져 있어 구체적이고 대대적인 보존대책이 요구된다.

2) 보물

(1) 진전사지 부도(보물 제439호)

전형적인 부도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진전사지 부도는 사각형 이중기단 위에 팔각형 탑신부를 올린 특이한 형태인데 현존하는 부도 중에서는 전기에 속하는 것으로 1966년 2월 28일 보물 제439호로 지정되었다.



진전사지 부도탑

진전사지 삼층석탑과 마찬가지로 사각형의 낮은 지대석 위에 2층으로 구성된 사각형 기단을 올렸는데 하층기단 면석 중앙에 탱주가 없고, 상하기단의 각 면에 초각이 없는 것이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조형은 유사하여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단 위의 탑신석은 8각형으로 연꽃문양을 초각한 8각의 탑신몸돌 위에 놓여있고 정면에 문짝 모양을 초각하였을 뿐 아무런 장식이 없다. 옥개석의 처마는 수평이고 추녀는 안으로 휘어있고 상륜부의 구형 보주를 받치는 옥개석의 상부는 두 겹의 연꽃을 새겼으며 보주 아래 부분에도 연꽃무늬를 새겼다. 부도는 1968년 보주와 배례석(拜禮石)을 발견하여 복원하였는데 탑신을 받치고 있는 8각형 연꽃문양의 탑신몸돌 위쪽 중앙에서 크기 26.5cm×29cm, 깊이 9.5cm의 사리공이 확인되었다. 석조 부도에서 연꽃문양의 몸돌을 별개의 돌로 만들어 사리구멍을 만든 예를 드물다. 전체 높이는 2.17m로 부도 앞을 중심으로 8장의 연꽃이 새겨진 배례석이 놓여 있는데 진전사를 방문한 일반 참배객들이 이곳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부도 주변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부도탑의 조성연대와 관련하여 진전사의 창건과 관련된 도의국사의 부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 도의국사의 부도로 확인될 경우 우리나라 부도의 시원이 되는 것으로 문화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경복궁에 있던 염거화상탑이 팔각원당형으로 구성되어 이후 부도의 전형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염거화상과 도의국사의 관계와 당시 불교계의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진전사지 부도탑이

더 오래된 양식으로 평가될 수도 있어 조성연대를 비롯한 부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2) 선림원지 삼층석탑(보물 제444호)

선림원지 내의 건물지 남쪽 6.5m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석탑양식의 보여주는 삼층석탑으로 1966년 9월 21일 보물 제444호로 지정되었다. 석탑의 전체 높이는 약 5m로 1965년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복원되었으며 2층기단 위에 3층의 탑신부를 올리고 상륜부가 일부 남아 있는데 상부기단의 면석에 조각된 팔부신중상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조형이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3층석탑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선림원지 삼층석탑

기단부는 2층으로 구성하였고 하부기단의 지대석은 모두 6매의 판석으로 짚으며 하대중석은 양 끝에 우주와 중앙에 탱주를 둔 형식으로 상부기단과 동일한 구성을 보이는데 하대갑석은 6매의 판석으로 상부는 둥근 형태와 각진 형태로 2단으로 깎아 상층기단의 중석을 바로 받고 있다. 상부기단 중석의 면석에는 각 면에 구름 위에 앉아있는 팔부신중상을 2구씩 돌을새김하였고, 상대갑석은 4매의 판석으로 아래에는 부연을 조각하고 상면에는 하대갑석과는 달리 각진 형태로 2단을 깎아 탑신석을 바로 받고 있다.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을 각각 1석으로 쌓았고 탑신에는 모두 기단부 중석과 마찬가지로 양모서리는 기둥형식으로 깎았고, 옥개석은 받침을 5단으로 하고 처마는 수평을 이루면서 추녀 끝에서 약간 올라가면서 낙수면은 완만한 물매를 이루는 전형적인 양식으로 추녀부분에는 풍경을 달았던 구멍이 남아 있다. 상륜부는 방형의 노반 위에 일부 남아있는 원형의 보륜을 올렸는데 노반의 중앙에는 직경 10.5cm의 찰주공이 있다. 상부기단에 새겨진 팔부신중상은 진전사지 삼층석탑과 유사한 조형을 보여 주목된다. 석탑의 앞에는 안상일 조각된 배례석이 있으며 1965년 복원공사 때 기단 밑에서 66기

의 작은 석탑과 1기의 구리방울이 발견되었는데 현재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삼층석탑의 뒤편에는 일부 기단석과 주춧돌이 발굴되어 건물지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형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선림원지 석등(보물 제445호)

선림원지 서북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무너져있던 것을 1965년 바로 세웠는데 팔각형을 기본으로 기단부가 상·중·하대로 구성된 통일신라시대 팔각 석등으로 1966년 9월 21일 보물 제445호로 지정되었다. 전체 높이가 약 2.92m인 이 석등은 4매의 사각형 지대석 위에 기단부의 상·중·하대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며 중대 부분이 북 모양의 간주(竿柱)로 장식된 고복형(鼓腹形) 석등으로 상부에 화사석과 옥개석 그리고 보주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 통일신라시대 팔각석등의 기본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선림원지 석등

기단부의 하대는 맨 아래 팔각형으로 각 면에 안상을 음각한 하대받침을 놓고 그 위에 중앙에 귀꽃 장식을 한 8개의 복련을 조각하고 복련상부는 1단 줄인 형태로 구름모양을 새기고 다시 1단 줄인 팔각형 중대 받침을 모두 1개의 석재로 구성하였다. 중대는 중간부분에 띠를 두르고 위 아래로 원형 형태의 단을 구분하며 넓혀가는 고복형으로 중간에 타원형 꽃잎이 8곳에 배치된 띠를 두르고 위는 대칭적인 연화판을 새겼고, 위 아래의 간석 상·하단에는 권운문이 있으며 상대석에는 복판팔엽의 양련이 있다. 상대석 상부에는 팔각의 킴대와 화사받침을 2단으로 구성하고 있다. 화사석은 8각형으로 4개의 장방형 화창을 뚫었으며 화창을 비롯한 팔각형의 각 면 아래에는 가로로 장방형 형태로 액을 마련하고 그 안에 안상을 새겼다. 옥개석은 팔각지붕형식으로 처마선이 직선화되고 낙수면이 급한 물매를 이루고 있으며 전각(轉角)에는 화려한 귀꽃을 장식했는데 일부는 없어진 상태이다. 팔각의 합각은 사선이 뚜렷하고 옥개석 상부에는 복연무늬를 새겼고 그 위에 상륜부를 올렸는데 상륜부는 작은 원형의 연화대석만이 남아있다.

석등의 제작연대를 밝힐 수 있는 사료가 없어 정확한 조성연대는 알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한 양식을 보이는 석등으로 전북 임실 용암리 석등(보물 제267호), 실상사 석등(보물 제35호), 전남 담양 개선사지 석등(보물 제11호)이 있어 비교검토가 가능하다. 이들 석등은 모두 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특히 891년에 조성된 개선사지 석등과는 전체적으로 아주 유사한 양식을 보이고 있어 이 석등도 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림원지 내에 같이 있는 홍각선사탑비의 귀부와 이수부의 조각과도 기법이 유사한데 홍각선사탑비가 9세기 후반에 건립되었으므로 조성연대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귀부 및 이수, 보물 제446호)

거북모양의 귀부와 용이 어우러진 모양의 비석 머릿돌인 이수만 남아 있고 비신은 대부분 파괴된 홍각선사탑비는 비문을 통해 신라 헌강왕 12년(886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시대 탑비로 1966년 9월 21일 보물 제446호로 지정되었다. 거북이 형상을 한 비석의 하단부인



홍각선사탑비(복원전)

귀부부의 높이는 73cm, 이수부의 높이는 54cm로 비신은 대부분 파괴되고 일부만 남아 국립춘천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2008년 비신부를 복원하여 전체적인 형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홍각선사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으나 전하는 바로는 합천 영암사와 여주 고달사 등지에서 정진하였는데 이름은 이관(利觀), 시호가 홍각(弘覺)이다. 귀부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거북형상을 받치는 지대석은 모서리를 곡면처리 하였으며, 귀부의 육각 거북등무늬는 뚜렷하게 새겨져 있고 정수리 부분에 긴



홍각선사탑비

홈이 있어 용뿔을 장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네 발의 끝은 구름모양으로 등 위로 올라가 있으며, 꼬리는 오른쪽으로 180도 돌아 위쪽으로 향하다 약간 오른쪽으로 꺾여있다. 비신 받침에는 안상을 음각하였는데 정면에는 2개, 배면에는 3개, 좌우 측면에는 1개씩 배치하였고, 아래에는 구름무늬를 위에는 연꽃무늬를 새겼다. 탑신부는 원래 없었으나 근래에 복원하였고, 이수부는 이수받침에 연꽃무늬를 새겼으며 비머리는 반용과 소용돌이형태의 구름무늬가 뒤섞여있다. 이수의 전면 중앙에 사각형의 제액을 만들고 그 안에 홍각선사비명(弘覺禪師碑銘)이라는 글씨를 새겼는데 해서에 가까운 전서체이다. 전액의 글씨는 최경(崔徑)이 쓰고, 비문은 운철(雲澈)스님이 왕희지의 글씨를 모아 새겼다고 하는데 1,340자 정도로 추정되는 비문 중 현재까지 약 710자를 확인하여 비문에 복원하였다. 탑비의 건립연대와 관련하여 홍각선사가 880년 입적하자 헌강왕 12년(886년)에 왕명에 의해 건립하였다고 한다.

(5) 선림원지 부도(보물 제447호)

홍각선사탑비와 더불어서 홍각선사의 부도로 알려져 있는 9세기경 팔각원당형 부도로 현재 기단부만 남아있으며 1966년 9월 21일 보물 제447호로 지정되었다. 기단부만 남아있는 이 부도는 사각형 지대석 위에 팔각형의 하대석을 올렸는데 각 면에 안상을 새기고 번갈아가며 안상



선림원지 부도

안에 사자 한 쌍씩을 조각하였다. 중대괴임은 아래 받침을 겹연꽃을 둥근 모양으로 새겼고 위는 팔각으로 모서리가 명확하게 꺾여있다. 중대와 상대석은 하나의 석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대는 위로 갈수록 약간 줄어드는 원통형으로 용과 구름이 새겨져있는데 용의 수염, 입술, 헛바닥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상대석은 중대보다 큰 전형적인 양식으로 원형의 복련받침을 두고 그 위에 팔각형의 탑신괴임이 있다.

산사태로 묻혀 있던 것을 1965년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복원했는데 원래의 위치는

현재보다 약 50m 위의 뒷산 중턱이라고 하며 홍각선사의 부도탑으로 알려져 있어 홍각선사탑비가 건립된 886년 경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도를 비롯하여 선림원지 내에 있는 4기의 보물이 모두 유사한 조형기법을 보이고 있어 기법상으로 보아도 부도의 건립연대가 비슷한 시기인 9세기 후반일 것으로 추정된다.

(6) 오색리 삼층석탑(서면 오색리 산 1-21, 보물 제497호)

오색약수터에서 설악산으로 들어간 자리에 있는 성국사지(城國寺址)에 있는 2중기단의 3층석탑으로 9세기 경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1968년 12월 19일 보물 제497호로 지정되었다. 일설에는 구산선문 중 성주산문(聖住山門)의 개산조인 무염(無染)이 출가한 것으로 알려진



삼층석탑 주변

진 오색석사(五色石寺)에 있던 탑이라고도 하는데 완전히 쓰러져 있던 것을 1971년 복원하였고, 2000년 해체 · 보수하였다.

기단부는 사각형의 2중기단을 구성하였고 상 · 하층 모두 면석 좌우의 우주와 중앙에 탱주를 새긴 것 이외에는 전혀 장식이 없는 형식이다. 탑신부는 3층으로 모든 탑신석의 모서리에 우주만을 새겼고 옥개석은 받침은 4단이며 처마는 수평으로 추녀 끝에만 약간 반곡을 두었다. 1층 탑신석의 윗면 중앙에 가로 · 세로 33



오색리 삼층석탑

cm, 깊이 8.5cm의 사리공이 있으나 사라힘은 없어진 상태이고, 상륜부는 모두 없어졌으며 3층 옥개석의 윗면에 지름 7cm, 깊이 4.5cm의 둥근 찰주공이 있다. 전체적으로 석탑의 조형기법은 신라의 정형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는데 석탑의 규모가 축소되고 옥개받침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아 9세기 후반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석

탑 주변에 초석과 층계 난간석 등이 남아 있어 석탑이 있는 사찰 주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보다 확실한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다.

(7) 낙산사 칠층석탑(보물 제499호)

낙산사 칠층석탑은 원래 3층이었던 것을 조선 세조 12년(1467년)에 현재와 같이 7층으로 다시 건조한 조선 초기 다층 석탑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양식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대표적인 문화재로 1968년 12월 19일 보물 제499호로 지정되었다. 낙산사 원통보전 앞에 자리하고 있으며 단층 기단 위에 세운 높이 약 6.2m로 부분적으로 손상되었지만 상륜부까지 거의 완형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칠층석탑

기단부의 지대석은 2단으로 자연석 위에 정방형을 올린 형태로 윗면에는 한 변에 6개씩 총 24개의 겹연꽃무늬를 조각하였는데 이러한 문양은 고려시대 이후 양식으로 강릉 신복사지 삼층석탑(보물 제87호)과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국보제48호)에서 볼 수 있으며, 2단의 지대석 위의 면석과 갑석은 모두 사각형으로 기단부를 구성하고 있다. 탑신부는 사각형 평면에 동일한 구성으로 7개층이 이루어졌는데 탑신석보다 약간 넓고 두께는 거의 같은 탑신킴돌을 아래에 놓고 탑신석과 옥개석을 올리는 간결한 구성을 보인다. 탑신석에는 우주가 조각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형태이고 옥개석은 옥개받침이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녀끝을 약간 올린 간결한 구조로 조선시대 다층석탑 특유의 양식을 보인다. 상륜부는 7층 옥개석 위에 탑신부와 같은 형태의 탑신킴돌을 올리고 그 위에 노반을 놓았으며 청동으로 만든 복발, 보륜, 보주 등이 차례로 올려져 있는 구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상륜부의 구성은 공주 마곡사 5층석탑(보물 제799호)와 유사하다.

세조 12년(1467년)에 의상대사가 건립했다고 전해지는 기존의 3층석탑을 현재와 같은 7층석탑으로 새로이 조성했는데 세조는 숭유억불정책을 표방했던 조선왕조에서 세종, 명종과 더불어 불교를 지원한 왕이었다. 따라서 낙산사 7층석탑은 많지 않은 조선

시대 석탑 중 그 시대의 상황과 특성 그리고 고려시대로부터 이어지는 양식의 변화과정을 제대로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재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전쟁 중에 일부 피해를 입었으나 바로 보수가 이루어졌으며 2005년 산불로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복구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8) 낙산사 건칠관음보살좌상(보물 제1362호)

낙산사 건칠관음보살좌상은 조선시대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불상으로 나무, 종이, 천으로 만든 불상 위에 건칠을 한 뒤에 도금한 것으로 강원도에서는 거의 유례를 볼 수 없는 건칠기법의 불상으로 2003년 2월 3일 보물 제1362호로 지정되었다. 높이 1.44m로 적당한 크기의 이 불상은 후대에 만든 금속제 8각 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상태로 허리를 곧추세우고 약간 고개를 숙여 내려보는 형상으로 앉아 있다.



건칠관음보살좌상

건칠불은 머리에 높고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으며 얼굴은 네모에 가까우나 모나지 않은 형상으로 목에는 3개의 주름이 뚜렷하고, 가슴, 배, 무릎, 발목을 덮고 있는 옷주름 또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화려한 장식을 달고 있다. 가부좌 튼 상태에서 왼손은 자연스럽게 그 위에 내려놓고 오른손은 가슴 높이로 올렸으며 손모양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형식을 보인다. 전체적인 표현수법은 고려시대 후반의 전통양식을 바탕으로 조선 초의 양식을 보이는데 높고 큰 보관, 사각형에 가까운 근엄한 얼굴과 표정, 건장한 상체와 전체적인 구성 그리고 복잡하면서도 화려하게 장식된 영락 등이 1447년 중수된 대구 파계사 보살상(보물 제992호)과 유사하다. 또 1466년 조성된 상원사 문수동자상(국보 제221호)과도 닮아 세조년간인 15세기 후반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상태이다. 한국전쟁 이후 인근 양양읍 화일리의 영혈사에서 옮겨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로 인해 아직도 두 사찰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2005년 산불 때 스님들이 재빨리 옮기는 덕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

3) 사적

(1) 오산리 선사유적(손양면 오산리 60외 36필지, 사적 제394호)

동해안에서 내륙쪽으로 약 300m 떨어져 형성된 쌍호로 불리던 석호의 동쪽 모래구릉 위에 자리한 신석기시대 주거 유적으로 1997년 4월 18일 사적 제394호로 지정되었다. 이 유적에서 채집된 목탄 시료에 대한 방사선탄소연대 측정결과 기원전 6000년경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신석기시대 주거유적으로 밝혀졌다.⁵⁾

1977년 쌍호를 메우기 위해 토사 채취를 하는 과정에 발굴된 유적으로 1980년까지 서울대학교 조사팀에서 6차례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졌고, 1981년부터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6개의 층위를 확인하였는데 1개만 청동기문화층이었고 나머지는 신석기 문화층으로 각 층위별로 다양한 유물과 유구가 발굴되었다. 모두 14기의 집자리가 확인되었고, 덧무늬토기를 비롯하여 아가리가 넓은 평저형 누른무늬토기와 다량의 토기편, 이음납시, 돌도끼, 돌화살촉, 돌칼, 토제 인면상⁶⁾ 그리고 흑요석 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흑요석은 형광 X선 분석을 통해 원산지가 백두산으로 밝혀졌고 다른 문화층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도 출토되어 동북지역, 중서부지역 등으로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신석기 유적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신석기시대 주거유적은 동북지역과 동해안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이 발굴되었고, 뒤를 이어 서북지역을 포함한 중서부지역 그리고 남해안을 비롯한 남부지역이 거의 비슷한 시기의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늦어도 기원전 3500년경에는 한반도 전 지역에서 주거유적이 나타나 완전한 정착생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오산리 선사유적은 기원전 6000년경으로 밝혀져 신석기 초기의 선사유적에 해당된다.⁷⁾ 주거지는 모래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름 6m 정도의 원형에 가까운 평면형태로 바닥에는 진흙을 깔고 가운데 화덕을 설치하였다. 원형 평면에 바닥이 지면보다 낮은 일반적인 움집과는 달리 내부바닥과 외부의 고저차가 없는 원추형의 지상주거로 밝혀졌다. 일부 발굴에 그쳤지만 오산리 유적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고성 문암리 선사유적(사적 제426호)에서도 바닥을 파낸 움집이 발굴되었고⁸⁾, 근래에 추가로 발굴한⁹⁾ 오산리 유

적에서도 움집이 확인되었으므로 오산리 유적의 지상주거를 움집의 원형으로 해석하기에는 불분명한 요소가 많지만 신석기유적 중 가장 중요한 유적인 것은 틀림없다.



오산리 선사유적지 쌍호 전경



선사유적지 복원된 수혈주거

발굴조사가 완료된 이후 주변정비작업이 계속되어 현재는 오산리 선사유적지 내에 2007년에 개관한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을 비롯하여 인접하여 동해안 최고의 숙박시설로 유명한 솔비치 리조트가 자리하고 있어 양양군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곳 중 하나가 되었다. 집자리 유적이 발굴되었던 모래언덕에는 원형대로 신석기주거를 복원하였고 탐방로와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복원 및 활용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적지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모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하였고¹⁰⁾ 보호구역 밖의 일정 구역도 현상변경행위에 대한 처리기준을 두어 난개발을 막고 있으나 개발과 보존 사이의 문제는 상존하는 것이므로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변화를 기대할 뿐이다.



선사유적지 탐방로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2) 낙산사 일원(강현면 전진리 55, 사적 제495호)

낙산사는 신라 화엄종의 종조인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창건했다는 사찰로 수차례 전화로 파괴와 복원이 되풀이되면서 현재에 이른 동해안을 대표하는 관음도량이다. 2005년 4월 5일 산불로 인해 원통보전을 비롯한 많은 전각들이 소진되었으나 국민적인 관심에 의해 전면적인 발굴과 복원이 이루어져 1971년 12월 16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되었던 낙산사 일원은 옛모습을 되찾으면서 문화재로서의 중요도가 재인식되어 2009년 2월 20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여 사적 제495호로 지정되었다.¹⁾



낙산사는 신라 화엄종의 종조인 의상대사(625~702년)에 의해 동해에 면한 오봉산에 창건된 관음사찰이다. 오봉산은 낙가산으로도 불렸는데 관음보살의 상주처로 믿었던 보타낙가산에서 유래한 것으로 낙산사란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관음사찰로 창건된 낙산사 경내는 관음보살과 관련된 수많은 유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

러 차례의 전화를 겪으면서 파괴와 복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도 유명한 사찰이다. 사찰의 기록에 따르면 범일국사가 858년 중창한 이래 수차례의 화재와 몽고군의 침략,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전란으로 철저한 파괴 뒤에 이어진 복원이 되풀이되었다. 20세기 초인 1912년경 대규모 중창 불사가 이루어져 용선전과 설선당, 영산전과 응향각, 문루인 빈일헌이 세워지고 관음굴과 홍련암이 중수되었으며 1925년에 의상대를 건립하여 대찰의 면모를 갖추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완전하게 파괴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복구가 이루어졌으나 2005년 4월 5일 일어난 산불로 사천왕문은 제외한 원통보전 주변의 많은 전각이 전소하였으며 특히 국보 제479호였던 낙산사 동종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녹아버렸다. 다행히 원통보전 앞에 놓인 보물 제499호 7층석탑은 경미한 피해를 입었고 원통보전 내에 안치한 보물 제1362호 건칠관음보살좌상은 무사할 수 있었다.

낙산사 화재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을 일으켜 국가적인 복원불사가 이어지게 되었으며 2차례에 걸친 전면 발굴을 통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흔적을 확인하였는데 최종적으로 18세기 후반의 모습 즉 정조 때(1778년 경) 그린 김홍도의 낙산사도의 모습으로 복원기로 확정하여 복원불사를 거행하였다. 2009년 10월 12일 2차 회향법회를 통해 대부분의 전각이 복원되었음을 고하였으며 추후 정비와 활용을 위한 복원불사가 진행중에 있다. 복원불사를 통해 국가적인 문화재로 위상을 인정받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5호였던 낙산사는 2009년 2월 20일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하였으며 2007년 12월 7일 명승 제27호로 지정된 의상대와 홍련암과 연결되는 동해안을 대표하는 불교유적지가 되었다.



낙산사 화재현장



낙산사 화재현장(홍예문)

낙산사는 대표적인 관음도량으로 현재 오봉산을 중심으로 크게 3개의 구역으로 구성되는데 홍예문을 지나 전면에 조망되는 원통보전 영역과 바닷가에 접한 홍련암과 의상대 그리고 공중사리탑과 해수관음상으로 이어지는 영역 그리고 이 두 영역의 중간에 있는 보타락 영역으로 나뉘며 의상대 앞에 있는 공양간에서 이들을 조망할 수 있다. 원통보전 지역은 산불 피해 이후 대대적인 복원불사가 이루어져 옛모습을 갖추었으며, 우측으로 조망되는 영역은 새롭게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신도들의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조영공사가 진행 중이다. 원통보전 아래에 형성된 보타락 영역은 산불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영역으로 누각에 복원한 동종을 임시로 안치하였었다. 의상대와 홍련암으로 이루어진 바닷가의 절경은 의상대로부터 공중사리탑과 해수관음상으로 연결되어 동해안을 조망하는 해수관음 영역을 형성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관음보살과 관련된 3개의 영역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도량이다. 2005년 양양산불로 인해 완전히 불탄 일주문으로부터 홍예문까지의 송림은 산불방지를 위한 야외 교육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1,300여년의 역사를 지닌 관음도량을 찾는 참배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보존과 활용의 문제는 상존한다.¹²⁾

4) 명승

(1)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명승 제27호)

낙산사의 해안 경계에 자리한 의상대와 홍련암 일대는 파도로 인해 형성된 특이한 형태의 자연 암벽 즉 시스택(Sea-stack)과 송림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해안 경관을 이루고 있어 2007년 12월 7일 명승 제27호로 지정되었다. 낙산사의 창건 설화와 연관이 있는 이 지역에는 의상대



홍련암과 해안 절경

사가 동굴 속으로 들어간 파랑새를 쫓아 석굴 앞 바위에서 기도하다 붉은 연꽃 위의 관

음보살을 친견하고 세웠다는 홍련암과 의상대사를 기리기 위해 1925년 세운 의상대 등 현재 2동의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다.

2005년 산불 때 주변의 송림과 홍련암 앞에 있던 요사채는 불탔으나 다행스럽게 홍련암과 의상대는 무사하여 이곳의 신령스러움과 더불어 자연경관 또한 낙산사 복원을 위해 드나들었던 관계전문가의 또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송강 정철(1536~1593년)의 관동별곡에 소개된 관동팔경 중의 하나로 동해 일출 또한 유명하여 이곳을 다녀간 시인 묵객들이 앞다투어 이곳의 절경을 시문으로 기록한 다양한 문헌들이 현재도 남아있는 상태이다. 2007년 명승 지정을 위한 전국적인 답사 등을 통해 전국에 숨겨져 있던 많은 자연 절경들이 동시에 명승으로 지정되었으며 의상대와 홍련암 일대도 현북면의 하조대와 더불어 지정이 이루어졌다.¹³⁾ 의상대는 수차례에 걸쳐 피해와 복구가 거듭되었는데 최근에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졌으며 해안절경을 제대로 감상기 위해 바다에서 직접 조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구룡령(九龍嶺)옛길(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옛길은 옛날 양양에서 홍천을 거쳐 한양으로 입경하던 높이 1,100m의 옛길로서 영북지방에서 영서로 연결되는 다른 영길 보다 산세가 평탄하여 옛 선비들이 과거보러 한양으로 갈 때 아홉 마리의 용(龍)의 영험을 빌면서 이 영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명종 9년(1554년) 강원관찰사를 지낸 석천 임억령(石川 林億齡)이 구룡령의 자연을 읊은 시를 비롯하여 많은 관리와 문인들이 시부(詩賦)로 노래했다.

구룡령의 이름에는 아홉 마리의 용이 이 영을 넘고자 갈천약수로 목을 축이고 아흔 아홉구비 쉬엄쉬엄 돌아 넘었다는 전설이 붙어져 있다. 이 영의 입구에는 옛 철기시대에 철을 캐던 동굴이 옛 문화의 정취를 풍기며, 일제강점기 갈천철광이 개발되고 석도[철광석을 운반하던 케이블카]가 강재 징용된 애환의 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 길을 걸어 오르다보면 중간중간에 횃돌반쟁이, 묘반쟁이, 솔반쟁이 등 표지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에 매혹되게 된다.

1989년 경복궁 복원당시 재목으로 보내진 아름드리 금강송의 그루터기가 문화재 복

원의 금지를 남게 하고 있으며 금강송과 함께 높이 자란 여러 활엽수의 교목 속은 마치 원시림의 터널 같아 이 길을 넘나들 때는 참으로 삼림욕의 극치를 느끼게 하고 있으니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영길이므로, 2007년 12월 17일 문화재청에서 국가명승 제29호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조선시대 양양군과 홍천군의 경계를 확정할 때 양양부사가 새벽 일찍이 동헌을 출발하여 이 영길을 넘어 창촌에서 홍천부사와 만나 경계 짓고 경계비를 세웠다 한다. 이 때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넓히려 이 영을 빨리 넘으려 달리다 지쳐 숨진 애향 청년이 묻혔다는 묘가 있어 이 영을 넘을 때 숙연함과 애향심을 북돋게 한다.

(3) 하조대(河趙臺, 현북면 하광정리 산 3번지, 명승 제68호)

현북면 하광정리 산 3번지 일대의 암석 해안으로 해변에 기암절벽이 우뚝 솟아 있고 노송이 그 속에서 함께 하는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에 등대와 정자가 세워져 있는데 2009년 12월 9일 명승 제68호로 지정되었다. 하조대라는 명칭은 고려말 조선초 명관인 하륜(河崧)과 조준(趙



하조대 정자

浚)이 이곳을 즐겨 찾았다 하여 두 성을 따서 붙인 것으로 현재 그 이름을 딴 육모정이 있는데 1998년 복원하였다. 정자 앞에는 조선 숙종 때 참판을 지낸 이세근(李世瑾)이 쓴 하조대라는 세 글자가 암각된 바위가 있다. 정자는 조선 정종 때 최초로 건립하였고 이후 수차례 중수를 거듭하였는데 1940년 팔각정으로 세웠던 것이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고 이후 1955년, 1968년 두 차례에 걸쳐 재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정자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동해바다와 건너편에 있는 기암절벽과 어우러진 노송이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자그마한 등대도 있는데 탐방로가 연결되어 있어 정해진 시간 내에서 관람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 의상대 및 홍련암과 함께 명승으로 지정되었는데 바다로부터 절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탐방객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

5) 천연기념물

(1)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3대명산 중의 하나로 금강산과 오대산이 서로 만나는 지점으로 총 면적은 354.6km²이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양양군과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으로 4개 시·군에 걸쳐져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되어 있다. 설악산의 연중평균 기온은 남한에서 최저를 기록하고 비교적 저온지대에 속하며, 동해로 연결되어 있어 연중강우량도 많은 편이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태고의 천연원시림 상태를 유지하여 현재 보고된 서식동물도 동물류 약 495종, 식물류 822종 등 다양한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육상동물은 포유류 28종, 조류 90여 종, 파충류 11종, 양서류 9종, 곤충류 약 360종이며 이 밖에도 더 많은 동물류가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생물자원의 보고이다.

(2) 포매리 백로 및 왜가리번식지(현남면 전포매리 122-3외 9필지, 천연기념물 제229호)

석호인 매호를 중심으로 주변 농경지와 숲 등 약 265,978m²에 달하는 지역을 1970년 11월 5일 천연기념물 제229호 백로 및 왜가리번식지로 지정하였다. 백로는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우리나라에서 번식하고 따뜻한 남쪽에서 겨울을 나는 여름철새이고 왜가리 또한 여름철새로 둘



매호 전경

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황새목 왜가리과에 속한다. 소수의 무리가 텃새로 월동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여름철새로 소나무나 은행나무 등에서 집단번식한다. 소나무 숲에서 집단적으로 서식하는데 인근에 민가를 비롯하여 전답과 소하천이 많아 번식지로서 최적지이다. 수령 70~150년에 높이 20~25m 정도의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외에

도 잣나무, 참나무 및 밤나무에서도 집단생활을 하는데 지정 당시에는 중대백로 약 400~450쌍과 왜가리 약 30쌍이 번식하였으나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매호주 변은 농경지 및 석호가 있어 개구리, 물고기, 곤충, 뱀 등이 풍부하고 송림과 활엽수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번식지로 지정 당시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개발과 수질 악화 등으로 번식지의 여건이 나빠진 것이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어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보존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강원도 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는 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할구역내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것 중에서 지정한 것으로 지방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구분한다. 그리고 문화재자료는 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중에서 지정한 것이다.

○ 도지정문화재 현황

구 분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연 월 일	소 재 지
유 형 문화재	낙산사홍예문	33	1971.12.16.	강현면 전진리 산5-2
	낙산사담장	34	1971.12.16.	강현면 전진리 55
	의상대	48	1974. 9. 9.	강현면 전진리 산5-2
	양양명주사동종	64	1980. 2.26.	현북면 어성전리 488
	양양낙산사사리탑	75	1982.11. 3.	강현면 전진리 산5-2
	양양김택준가옥	90	1985. 1.17.	현남면 두리 66
	양양이두형가옥	91	1985. 1.17.	서면 서선리 46
기념물	양양진전사지	52	1982.11. 3.	강현면 둔전리 산37외3
	양양선림원지	53	1982.11. 3.	서면 황이리 424
	양양동해신묘지	73	2000. 1.22.	양양읍 조산리 399외1
문화재 자료	낙산사홍련암	36	1984. 6. 2.	강현면 전진리 57-2
	양양김성래가옥	79	1985. 1.17.	현남면 북분리 391
	양양조규승가옥	80	1985. 1.17.	현남면 포매리 106-1
	양양향교	105	1985. 1.17.	양양읍 임천리 297

구 분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연 월 일	소 재 지
문화재 자료	양양명주사부도군	116	1991. 2.25.	현북면 어성전리 산59
	양양서림사지석조비로사나불 좌상	119	1996. 2.25.	서면 서림리 74-1
	양양서림사지삼층석탑	120	1996. 9.30.	서면 서림리 74-1

1) 유형문화재

(1) 낙산사 홍예문(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3호)

세조 13년(1467년) 왕이 직접 낙산사에 행차한 것을 기념키 위해 사찰의 입구에 만든 무지개 모양의 석조문으로 세조의 명에 의해 당시 도내 소속 26개 고을에서 석재를 하나씩 추렴해서 쌓았다고 하는데 1971년 12월 16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33호로 지정되었다. 2단의 지대석 위에



낙산사 홍예문

2열로 각각 13쌍의 홍예석을 쌓아올린 홍예문은 창건 당시 강원도 소속 고을의 수가 26개였으므로 26개의 홍예석으로 구성했다고 하는데 인근 마을의 이름이 정암리가 된 것도 이들 석재를 다듬던 동네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홍예문의 위에는 다양한 크기의 산돌을 쌓았고 그 위에 누각을 세웠는데 이 누각은 1963년 세운 것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인 다포계 겹처마 팔작지붕의 누각으로 2005년 산불로 전소되었던 것을 다시 복원한 것이다. 산불로 인해 누각이 전소되고 일부 석재가 피해를 입었으며 복원하는 과정에서 2열로 이루어진 홍예문의 일부 변형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비전문가에 의해 홍예석 주변 석재 일부에 인위적인 변형이 이루어져 소박하고 자연스런 모습의 원형이 일부 손상되었다. 현재 복원된 누각 또한 홍예문 창건 당시에는 없던 것으로 낙산사 복원과 관련된 많은 숨은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홍예문 주변 산형은 오봉산성의 유적이 함께 있어 대규모 복원에 대한 학계의 우려가 논란이 되고 있다.

(2) 낙산사 담장(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4호)

낙산사 원통보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으로 세조 때 낙산사를 개수할 때 처음 쌓았다고 하는데 기와와 흙을 차례로 다져 쌓으면서 중간에 원형 돌을 박아 넣어 조형미가 뛰어나 1971년 12월 16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34호로 지정되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과 복구가 계속되어



낙산사 담장

현재 원형으로 남아있는 것은 원통보전 배면에 쌓은 5.8m와 좌측 21m, 우측 8m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후대에 복구한 것이다. 현재 전체 길이는 220m로 높이는 약 3.8m로 2단의 장대석 기단 위에 다시 초석을 놓은 것과 2~3단의 천석으로 기단을 쌓은 두 종류의 담장이 있는데 배면의 담장높이가 가장 높고 전면 출입문 주변이 가장 낮아 자연스럽게 높이 조절이 이루어져 있다. 흙담에 수평줄눈을 표현하기 위해 암기와, 강회, 진흙을 차례로 다져 쌓았으며 6~7단으로 쌓은 암기와 높이에 맞추어 엇갈리게 지름 15cm 정도의 원형 화강석을 끼워 단조로운 벽면의 의장에 긴장감과 변화를 연출하고 있다. 자연미와 인공미를 적절히 조화시킨 담장으로 전국적으로 이를 흉내낸 담장들이 곳곳에 세워졌으며 세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일부 담장이 무너져 보수한 것이 가장 최근의 보수현황이며 2005년 산불로 일부 훼손되었으나 모두 보수되었다.

(3) 의상대(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8호)

낙산사를 건립한 의상대사를 기리기 위해 1925년 낙산사 해안 절벽 위에 세운 육각형 정자로 1974년 9월 9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되었다. 낙산사의 창건설화와 연관된 흥련암이 인근



의상대

해안 절벽에 자리하고 있어 의상대사가 낙산사를 창건할 당시 자주 이곳에 왔다고 해서 이 일대를 의상대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2007년 이 일대가 명승으로 지정될 정도로 자연경관이 탁월한 지역으로 관동팔경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6각형의 정자는 1936년 폭풍으로 무너졌으나 이듬해에 재건되었고, 1975년 7월 다시 중건하였으며 현 건물은 1995년 8월에 해체 복원한 것인데 2005년 산불로 주변 송림 등이 훼손되었고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이루어져 정자와 주변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익공 양식의 공포에 겹처마 모임지붕으로 기와지붕의 상부 중앙에 화강암 절병통을 올렸다. 현판이 걸린 정면은 석조계단을 통해 출입하며 나머지는 모두 경사진 난간을 둘렀다. 정자의 건축적 구성은 탁월하지 않으나 동해안의 대표적인 해안 정자로 주변의 해송과 더불어 해안절벽과 동해바다가 어우러져 빼어난 장소성을 보여주고 있어 일출의 명소로 꼽힌다. 특히 의상대 앞에서 산 정상에 있는 해수관음상을 조망할 경우 2005년 산불 피해 이후 확연하게 드러난 공중사리탑이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어 해수관음상이 있는 정상까지 오르지 못하는 참배객에게는 새로운 참배처를 제공할 수 있어 향후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

(4) 명주사 동종(明珠寺 銅鐘, 현북면 어성전리 488번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4호)

명주사 동종은 명문에 의하면 원래 태백산 대흥사(大興寺)의 대종으로 백근의 중량을 들어 숙종 30년(1704년) 다시 제작한 높이 83cm의 전형적인 조선후기 범종으로 1980년 2월 26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4호로 지정되었다. 2005년 동종 보호각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재와 같은 종각을 개축하여 범종을 봉안하고 있다.



명주사 종각과 동종

명주사 동종은 두 마리의 쌍용으로 용뉴 아래 안으로 오므라진 종신이 연결된 형태로 천판과 연결된다. 천판 아래에 상대가 없으나 유두를 기하학적 사선문을 새긴 윤곽이

완전히 둘러싼 모양으로 사방에 배치하였으며 그 사이에 구름 위에서 연꽃가지를 들고 있는 보살상(합장천부보살상)과 그 위에 원 안에 한자씩 양각된 범자문을 새겼다. 종신 하단부에는 크고 작은 사각형의 명문판을 불규칙적으로 배치한 뒤 명문을 양각하였고, 종구 부분에는 하대를 만들어 연당초문을 장식하였다. 전체적으로 전통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종신의 구조와 양각한 문양 등을 통해 18세기 범종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명주사는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의 말사로 1988년 5월 28일 강원도 전통사찰 제29호로 지정되었다. 사찰의 연혁을 살펴보면 고려 목종 12년(1009년) 혜명(惠明)대사와 대주(大珠)대사가 함께 창건한 사찰로 두 스님의 이름에서 한자씩 따서 사찰명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창건 당시에는 비로자나불을 모셨다고 하므로 화엄종 계통의 사찰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철종 11년(1860년) 소실된 것을 월허(月虛)대사가 중건하였고, 고종 16년(1879년) 다시 불이 난 것을 1880년 중건하였으나 1897년 다시 소실되어 사찰을 원통암으로 옮겼는데 원통암 자리가 현재의 명주사 자리가 되었다고 한다. 1917년 백월(白月)대사가 중창하였고 1923년 윤설호(尹雪昊)가 중수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것을 1963년 법당, 삼성각, 추성각을 중건하였으며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이후 체계적인 복구가 이루어져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었다.

(5) 낙산사 공중사리탑(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5호)

숙종 18년(1692년)에 세워진 사리탑으로 부도형 사리탑은 현존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가치가 높으며 1982년 11월 3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되었다. 전체적으로 팔각형을 기본으로 탑신과 상륜부만 원구형을 띄고 있어 팔각원당형 사리탑으로 분류된다.

기단부는 흙바닥의 끝부분에만 1단의 낮은 장대석 기단을 사각형 모양으로 돌리고 그 위에 중앙에서 약간 뒤로 치우친 곳에 2개의 낮은 지대석을 맞붙여 놓고 그 위에 상대·중대·하대로 이루어



공중사리탑

진 기단부를 올렸다. 하대석은 아래는 8각형이고 위는 원형으로 상대석의 각 면에는 이중의 안상을 마련하고 그 안에 삼태극무늬를 선명하게 새겼으며 그 위는 두겹의 연꽃문양 16장을 돌을새김하였고 연판의 끝부분 양쪽에 고사리문양이 덧붙었다. 하대석 위의 중대석은 팔각형으로 위 아래 끝에는 괴임대와 반침대를 양각하였고 각 면의 모서리 부분은 엮주를 이어놓은듯한 형태로 조각하였으며 각 면에는 크게 엮어놓은 고리문이 부조되어 있다. 상대석도 1개의 돌로 조성하였는데 하대석을 뒤집어 놓은 형태로 아래에는 각 변과 모서리에 1판씩 모두 16개의 연꽃문양을 한 겹씩 조각하였고, 위는 중대석과 동일한 형식으로 위아래 끝 및 모서리를 양각하였으며 각 면에 안상 1구씩 장식하고 그 안에 범(梵)자를 1자씩 음각하였는데 범어의 내용은 대명왕진언으로 석탑에 진언을



공중사리탑비

새긴 것이 특이하다. 탑신석은 1개의 돌로 이루어졌으며 원구형을 기본으로 위 아래를 평평하게 절단하였는데 아래에 큰 연꽃 형태로 탑신을 받치는 모양을 하고 있다. 옥개석도 1개의 돌로 구성하였으며 팔각형 지붕형식을 그대로 표현하였고 위는 연꽃 모양으로 조각하고 연주문을 돌렸다. 옥개석 위의 보주는 3단으로 경계를 연주문으로 구획했고 위 아래 연꽃문양을 조각해두었는데 각 부분의 조각과 탑신석이 원구형인 것은 많지 않다.

2005년 산불 피해 이후 일부 손상이 있었고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기울어진 사리탑을 바로 세우기 위해 2006년 4월 28일 옥개석을 해체하던 중 탑신 상부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어 새로이 주목받게 되었으며 홍련암 근처에 있는 해수관음공주사리비에 기록된 공중사리탑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문에 따르면 숙종 9년(1683년) 홍련암 개금불사 도중 공중에서 사리가 떨어져 이를 봉안키 위해 사리탑을 세웠고 이로 인해 공중사리탑으로 불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리가 발견되어 비문의 기록이 확인되었으며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격상되었다. 현재 보수하던 과정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1과와 사리장엄구(금제함, 은제함, 청동제 외함, 관련기록물 등)를 발견하여 보관중이며 강원도 유형문화재였던 사리탑을 보물로 승격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

지 비지정 상태로 홍련암 인근에 있는 높이 2.15m의 해수관음공중사리비도 전체적인 조형과 이현석(李玄錫, 1647~1703년)이 춘천부사로 있던 1693~1694년에 썼다고 하는 비문의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문화재지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6) 김택준 가옥(金澤俊 家屋, 현남면 시변리66번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0호)

현남면 시변리 66번지의 김택준 가옥은 숲을 배경으로 구릉지에 자리하고 있지만 바닷가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형성된 마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전통가옥이다.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지만 약 200년 전에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연석 석축 위에 건립된 이 가옥은 ㅈ자형 안채에 ㅡ자형 사랑채를 평행하게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H자형 평면을 구성하고 있는데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되었다.



김택준 가옥 전경



김택준 가옥 평면도 (출처:강원대박물관,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4)

마을에서 가장 높은 경사지에 자리하고 있어 비교적 높은 자연석 석축을 쌓았고 중앙의 돌계단과 오른쪽 돌계단을 통해

마당으로 진입하게 되어있으며 사랑채로 연결되는 오른쪽 계단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외편담장을 세워 영역을 구획하고 있다. 전면이 트여있는 마당에서 바라볼 때 안채와 사랑채 모두 자연석 기단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안채의 정면부분이 가장 높고 사랑채가 한단 낮게 구성되어 있으며 돌출한 외양간 부분이 가장 낮다. 기단의 구성이 전체적으로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며 입면구성 또한 동일한 구성을 보인다.

홀처마 팔작지붕형식의 기와집으로 사랑채와 안채는 독립된 지붕이며, 안채에서 돌출한 외양간부분의 지붕은 맞배로 꾸몄다. 평면의 구성을 살펴보면 안채는 전형적인 북방형 겹집으로 전열은 부엌과 연결되는 안방과 2칸 규모의 상방을 두어 3칸 규모이고 후열에는 윗방과 도장방을 두었는데 간살이를 조금 줄였다. 부엌의 앞으로 고방과 외양간을 두고 뒤에 부엌보다 간살이를 조금 줄인 사우방을 두었는데 마루가 아닌 온돌방이다. 사랑채는 안채보다 후대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면이 2칸이 되도록 길게 배치해 안채의 상방과 연결했는데 전면에 사랑방을 놓고 정면과 측면에 툇마루를 돌렸고 뒤로 2칸의 행랑방과 각각 2칸의 광과 고방을 연결하였다. 사랑채와 안채의 연결부분은 흙바닥 온돌로 구성하였는데 상중에 지철로 활용하며 양쪽에 외작문을 설치하였다. 안채와 사랑채가 연결되어 있지만 독립적이므로 출입을 제한하였으며 뒷마당은 부엌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독립적인 영역으로 장독대와 작은 냉장굴이 있다.

1993년 안채보수, 1996년 사랑채 보수가 이루어졌고, 2000년 기단, 굴뚝과 담장공사를 시행하였다. 문화재청의 전통가옥 명칭 통일방침에 따라 양양 두리(斗里) 고가 등가옥이 속한 마을의 이름을 딴 명칭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문화재로 지정된 군내의 전통가옥 중 가장 바닷가에 가까운 마을 내에 입지하고 있어 관광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아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7) 이두형 가옥(李斗衡 家屋, 서면 서선리 46-1,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1호)

읍내에서 오색령방면으로 멀지 않은 마을에 있는 전통 기와집으로 개울을 따라 형성된 마을 진입로를 통해 들어가면 나타나는 오래된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남향하고 있으며 약 200여 년 전에 건립되었다고 전해진다. 경주이씨 종가집으로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이 지역의 전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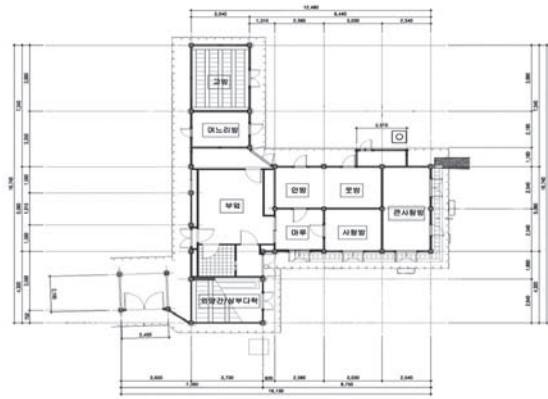


이두형 가옥

인 ㄱ자형 겹집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 생활에 따라 변형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

는 주거사적 가치가 높은 전통가옥으로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되었다.

전체적인 배치는 ㄱ자형태의 본채와 부엌 뒤쪽으로 뒷방과 창고를 연결하였으며 부엌 전면에 있는 외양간과 대문채가 연결되어 전체적인 모양은 ㅓ자에 대문채가 붙은 형식이고, 창고와 떨어져 2칸의 부속



이두형 가옥 평면도 (출처:선영건축사사무소)

사가 있는데 광과 행랑방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채는 전형적인 온돌중심의 ㄱ자겹집으로 부엌이 가옥 내 동선이동의 중심이 되는 형식으로 마당으로부터의 출입을 비롯하여 대청을 통한 안방과 셋방의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엌 앞의 외양간과 뒷방 그리고 대문채로부터의 출입까지 가능토록 배치되어 있다.

사랑방은 마당으로부터 출입만 가능토록 되어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집과는 달리 많은 담장이 가설되어 있어 공간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부엌에서의 출입만 가능한 뒷뜰은 가족의 프라이버시 영역으로 부엌 이외의 출입은 전부 담장으로 구획하여 차단하고 있다. 다만 본채 외양간과 붙어있는 대문채를 통한 부엌로의 출입과 뒷방으로의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한데 이는 분가한 자식이 살림을 하던 뒷방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문채는 여자들의 출입만을 위한 것이고 남자들은 안채 정면에서 출입했다고 전한다. 농가의 귀중한 자산이었던 소를 위한 외양간은 부엌과 통해 있어 재산보호와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꾀했고, 아울러 판벽을 가설하여 채광과 환기를 동시에 고려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아쉬운 부분은 외양간과 부엌 사이에 현대식 화장실을 가설한 것인데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안방 앞에 있던 대청 마루도 사라졌으며 마루 앞 살문과 재사벽도 철거되어 스테인레스스틸의 유리문이 설치된 상태이다.

본채의 전체적인 규모는 정면 4칸 측면 2칸을 기본으로 전면으로 1칸반의 외양간과 배면으로 3칸의 뒷방과 창고가 연결되어 있으며, 2칸 규모의 별도 부속사가 있고 부엌은 간

살이가 더 크게 구성하였다. 전체적인 입면구성은 홀처마집으로 팔작지붕을 기본으로 전면에 있는 외양간은 맞배지붕형식이고, 부속사는 우진각지붕으로 구성하였다. 비교적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가옥으로 1990년과 1997년 번와공사가 이루어졌으며, 2001년 겨울 번와와 미장 및 마감공사가 이루어졌고, 2003~2004년 담장과 석축 보수공사가 이루어져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기존의 가옥명을 소재지명에 따라 변경하려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변경정책에 따라 양양 이두형 가옥에서 가옥의 소재지인 서면 서선리 46-1번지에서 동네명칭을 딴 양양 서선리 고가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기념물

(1) 진전사지(강현면 둔전리 5번지, 강원도 기념물 제52호)

우리나라 선종의 종조인 도의선사가 신라 헌덕왕 13년(821년)에 창건했다고 알려진 사찰로 1982년 11월 3일 강원도 기념물 제52호로 지정되었다.¹⁴⁾ 신라 구산선문의 하나인 가지산의 개산조(開山祖)인 도의선사가 821년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은거했던 곳으로 그 뒤를 염거화상, 보



진전사지 전경

조국사와 같은 고승들이 이어갔고, 특히 선종을 받아들인 최초의 사찰이란 의미를 갖고 있으며 삼국유사를 집필한 일연선사는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기도한 유서깊은 사찰이다.

진전사지는 시각적으로 상호간 확인이 되지 않는 위아래의 2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삼층석탑이 있는 영역은 아래에 있으며, 부도는 위의 영역에 있다. 기록에 의하면 1467년까지는 사찰이 존속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이후 폐사가 되어 일제강점기에는 둔전사로 불리다가 진전(陣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편이 출토되면서 진전사라는 것이 밝혀졌다. 1974년부터 시작된 단국대학교 박물관의 6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부도탑이 있는 상부 영역을 전면 발굴

하여 건물지 및 탑지 등 일부를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남향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법당을 복원하였다. 법당 앞에는 수습한 부재를 통해 3층석탑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석축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진전이 새겨진 와편뿐만 아니라 연꽃무늬 수막새, 당초 무늬 암막새, 물고기무늬 기와조각 등이 출토되었다. 현재 복원한 법당은 대적광전으로 활용하고 있고, 서쪽에 요사채를 세워 관리하고 있는데 법당의 공포양식은 규모와 부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도의선사의 부도탑으로 추정되는 부도탑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삼층석탑이 있는 아래 영역은 문화재 지정 이전에 상당 부분 훼손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체계적인 조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선종사찰의 시작과 관련있는 유서깊은 사찰로서 관과 민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어 낙산사와 더불어 조만간 양양군의 대표적인 사찰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2) 선림원지(禪林院址, 서면 황이리 424, 강원도 기념물 제53호)

미천골 계곡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선림원지는 9세기 중엽에 창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로 현재 절터에는 금당터를 비롯한 일부 건물지와 보물 제444호인 삼층석탑을 포함하여 총 4기의 보물이 남아있는데 절터는 1982년 11월 3일 강원도 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었다.



선림원지 전경

선림원지에 남아있는 4기의 보물은 제444호인 삼층석탑, 석등(제445호), 홍각선사탑비(제446호), 부도(제447호)로 모두 9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선림원지의 창건년대도 비슷한 시기인 9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1948년 10월경 인근에서 숲을 굽던 사람들에게 의해 완전한 모습으로 출토된 동종에 새겨진 “정원(貞元) 20년(804년)”이라는 명(銘)을 통해 이 시기에 대규모 중흥불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종은 1949년 11월 월정사로 이전 보관해오다가 한국전쟁으로 파손되어 일부 조각만 국립춘천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동종에 새겨진 문구에서 804년 순응법사(順應法

師)가 제작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순흥법사는 802년 해인사를 창건한 교종계열의 스님으로 동종이 주조되었을 당시 이곳에 사찰이 건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선림원지 내에 있는 홍각선사탑비와 부도를 통해 홍각선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홍각선사탑비의 비문에 새겨진 기록에서 “선사(禪師)가 60세에¹⁵⁾ 다시 설산(雪山)¹⁶⁾의 억성사(億聖寺)에서 주석(主席)했다”라는 내용을 비롯하여 거대한 중창불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에 나오는 억성사를 선림원으로 해석할 경우 9세기 후반에 선림원이 중창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홍각선사탑비와 부도가 이곳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선림원이 사림사(沙林寺) 또는 선정사(禪定寺)로 불리기도 했기 때문에 별개의 사찰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시기에 선림원이 번성하였던 것은 확실하다.

선림원지 내에 남아있는 4기의 보물은 모두 1965년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1985년 동국대학교 발굴조사단의 발굴조사를 통해 금당터로 추정되는 정면 3칸, 측면 4칸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건물지 인근에서 출토된 와편이 모두 9세기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시대 이후의 것은 출토되지 않았으므로 비슷한 시기에 산사태로 사찰이 매몰되었다가 현재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어 이 시기 산중사찰의 전체적인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1980년 양양군에서 사지 일대를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3) 동해신묘지(양양읍 조산리 399, 도기념물 제73호)

동해신묘에 관한 설명은 Ⅲ. 고적(古蹟) 32. 동해신묘(東海神廟)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동해신묘



양양 동해신묘중수기사비

3) 문화재자료

(1) 홍련암(강원도 문화재자료 제36호)

의상대사가 동해바다 절벽 안에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간 파랑새를 쫓아가서 석굴 앞 바위에서 기도하다 붉은 연꽃 위의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세운 암자로 낙산사의 모태가 되는 곳이다. 1984년 6월 2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36호로 지정된 홍련암은 의상대사에 의해 문무왕 16년



홍련암

(676년)에 창건되었다고 하는데 이후 수차례 중건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²²⁾ 주요 중건기록을 살펴보면 광해군 11년(1619년) 중건, 영조 28년(1752년), 정조 21년(1797년), 고종 6년(1869년), 1911년, 1975년 원철스님의 중수를 거쳐 현재의 전각은 2002년 중건된 것이다. 파랑새의 설화와 관련있는 해안절벽에 있는 관음굴 위에 건립된 흔치 않은 불전인 홍련암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로 주심포 양식의 공포를 짜올린 겹처마 청기와 팔작지붕집으로 불전 내부 바닥의 구멍을 통해 해안절벽 아래 관음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동해안의 대표적인 해수관음 기도처로서 지금도 수많은 신도들이 전국에서 방문하고 있으며 2005년 산불로 주변이 대부분 불탔으나 필사적인 소화작업으로 불전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아 영험함을 더해주고 있다.

(2) 김성래 가옥(金成來 家屋, 현남면 북분리 391,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79호)

현남면 북분리 391에 소재한 김성래 가옥은 구릉지에 형성된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대지의 규모에 비해 여러 채의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증축과 보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기단에서 지붕까지 다양한 형식을 갖춘 전통가옥이다. 시대의 다양성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주거사 자료로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79호로 지정되었다.

경사지에 건립된 이 가옥은 대문간채와 사랑채가 전면에 배치되고 전형적인 ㄱ자형 겹집인 안채가 문간채와 연결되며 사랑채 뒤에 헛간채가 독립된 ㄱ자형 배치형식을 보이는 가옥이다. 경사지의 특성상 문간채와 붙은 사랑채 쪽으로 높아지는 자연석 석축을 쌓았고 사랑채는 팔작지붕으로 독립된 구조로 솟을대문 형식의 맞배지붕으로 구성된 문간채와 입면상 직접 연결된 형식이다. 사랑채는 2칸의 방 전면과 측면에 우물마루로 짠 반퇴의 규모지만 비교적 넓은 뒤톼마루를 붙여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누마루의 역할을 하고 있고 뒤편에 있는 죽림과 작은 산이 배경이 되어 집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감탄할 수 있는 경관을 형성한다. 대문간채는 광과 대문 그리고 2칸의 방으로 구성



김성래 가옥



김성래 가옥 평면도(출처:천지원 건축사사무소)

되어 있는데 입면상 광과 대문은 솟을대문 형식으로 올렸고 문간채의 방은 한단 낮은 맞배지붕으로 간살이가 일정하지 않게 좌우 끝이 대문과 사랑채에 연결되어 있어 엄격하게 구분하면 대문채와 행랑채로 볼 수 있다. 좁고 긴 사각형 형태의 안마당은 ㄱ자형의 안채가 높이 1.5m의 기단 위에 자리하고 전면으로 돌출한 부엌과 광의 바닥차이 때문에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은 6칸으로 부엌과 붙은 방은 전후열이 트여있고 나머지 방은 모두 전후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열 우측 끝방은 마루방으로 다른 방에 비해 전면이 넓다. 부엌은 사방에 문이 있어 앞에 있는 광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하고 외부로부터 출입이 가능토록 두 짝의 판문을 달았고, 안마당과 뒤편로 나가는 문을 별도로 구성하였다. 사랑채 뒤에 자리한 곳간채를 제외하고 모든 건물이 외관상 붙어있어 필요에 따라 증축과 개축이 계속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힘의 전달체계상 문제가 생겨 안채와 광 그리고 대문간채의 연결부분에서 부재의 뒤틀림이 심한 상태였는데 2006년 구조

안전진단을 통해 보수설계가 이루어졌고 2007년까지 보수작업이 이루어졌다. 공간채는 전면 4칸, 측면 칸반의 규모인데 사랑채 쪽에 있는 오른쪽 끝방만 칸반 규모의 광이고 나머지는 모두 전면에 반퇴를 둔 방으로 왼쪽 끝방만 방으로 꾸몄다. 김해 김씨 가옥으로 현재 김성래 씨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김성래 씨의 14대조께서 건립하였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다. 수차례 증축과 보수를 통해 현재에 이르렀으며 약 60년 전 초가였던 것을 와가로 바꾸었다고 한다. 1990년 안채보수, 1997년 사랑채 보수, 2000년 안채 배면 지붕보수, 2006, 7년 구조안전진단 이후 대문채와 문간채 보수가 이루어졌다. 시대를 달리하는 다양한 목재치목기법을 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인 동시에 주변경관과 마을 진입경관이 특히 우수하여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은 전통가옥으로 문화재청의 명칭변경정책으로 양양 김성래 가옥이 아니라 양양 북분리(北盆里) 고가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조규승 가옥(曹圭承 家屋, 현남면 포매리 106-1번지,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80호)

현남면 포매리 106-1번지에 자리한 전통가옥으로 집 뒤의 얇은 야산에는 백로와 왜가리가 서식하고 있어 매호를 중심으로 이 일대가 천연기념물 제229호로 지정된 상태이며, 조규승 가옥은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80호로 지정되었다. 현 소유주인 정상철 씨의 10대조가 건립한 것



조규승 가옥

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옥명과 관련하여 수정이 필요한 가옥으로 현 소유주는 가옥의 상량문(香洞派宗家古宅上樑文)에 근거하여 양양 초계정씨(草溪鄭氏) 향동파 종택으로 변경해줄길 요청하고 있으나 문화재청의 명칭변경방침에 따라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가옥의 건립당시에 비해 주변의 매호는 이전보다 크기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서식하고 있는 백로와 왜가리도 줄어들었지만 풍수적으로 볼 때 이 가옥은 백두대간으로부터 동해안으로 흘러내려온 맥이 맺힌 대표적인 명당으로 전형적인 매화낙지형의 형국

을 보여주고 있다. 대지는 노송과 대나무 숲이 감싸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전면의 기단 구성에서부터 지붕 끝까지 다양한 입면구성을 하고 있는데 누마루형식으로 처리한 사랑채와 어우러진 입면구성이 특징적이다. 가옥의 배치방식은 가장 먼저 건립했다고 하는 사랑채를 비롯하여 곳간채와 안채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ㄷ자형 배치를 이루고 있으나 소유주의 말로는 안채 뒤로 가묘가 있었고 사랑채의 누마루와 대문 옆 외양간이 전면으로 돌출해 있어 원래는 병(兵)자형 배치였다고 한다.



조규승 가옥 평면도 (출처:선영건축사사무소)

화강석 2단 쌓기의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사각기둥을 올린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겹집으로 중앙에 2칸의 대청을 중심으로 왼쪽에 부엌과 안방, 오른쪽에는 건넌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채의 전면은 넓은 툇마루를 두어 공간을 연결시키고 있다. 부엌과 연결된 곳간채와 안채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ㄱ자형으로 볼 수 있는데 곳간채는 3칸 규모로 대문에 가까운 2칸은 모두 다락을 두었고 대문간과 연결된다. 대문간은 앞에 연결된 외양간을 중심으로 앞과 옆으로 출입이 가능한데 안마당과 연결되며 ㄱ자형의 사랑채로 이어진다. 사랑채는 3칸의 대청을 중심으로 ㄱ자형 평면을 구성하고 있는데 대청의 전면 2칸은 누마루 형식으로 전면으로 돌출해 있으며 1칸의 대청은 뒤로 아랫사랑방과 연결되고 옆으로 사랑방과 목방으로 연결되는데 전면에 툇마루를 두어 누마루와 연결된다. 특히 누마루의 기둥은 모두 원기둥이지만 사랑채의 나머지 기둥은 모두 사각기둥으로 남녀공간의 차별을 외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93~1994년 안채 보수가 이루어졌으며 2001년 안채와 연결채의 지붕보수, 2005년 마당과 좌우측 및 배면 석축과 담장 정비공사, 2009년 바닥 정비공사가 이루어졌다. 집 뒷산을 비롯하여 인근 매호주변이 천연기념물 제229호로 지정된 백로 및 왜가리번식지이므로 문화재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아 향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양양향교(양양읍 임천리 297, 도문화재자료 제105호)

양양읍 임천리 297에 자리한 양양향교는 고려 충숙왕 때 당시 존무사(存無使) 안축(安軸)이 양양부 구교리(舊校里)에 창건설은 정확한 연혁이나 규모는 알 수 없다. 숙종 8년(1682년)으로 부사 최상익(崔商翼)이 진사 최상은, 박호 등과 협력하여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고, 1684년 대성전을 완공하여 위패를 봉안하였는데 1945년 광복된 이후 미수복지역으로 북한 치하에 있는 동안 위패를 비롯한 많은 유물들이 훼손되었으며 한국전쟁으로 인해 전각들도 모두 소실되었다. 전쟁중이었던 1952년 대성전, 동재, 서재 등을 신축하면서 복원공사가 시작되었는데 현재는 대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무, 내삼문, 명륜당을 중심으로 동·서재, 고직사 등을 갖추었다. 명륜당을 비롯한 강학공간을 앞에 두고 대성전을 뒤에 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방식을 택한 향교로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5호로 지정되었다.

전학후묘의 배치형태인 양양향교는 구릉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외삼문이 없이 바로 누형식의 명륜당을 배치하여 향교 내로 출입토록 하였는데 외부로부터의 출입은 구릉지 아래의 넓은 평지에서 명륜당과 일직선상에 놓인 홍살문과 이어진 높은 계단을 통과하도록 구성하였다. 홍살문을 지나 출입계단 전면 좌우에는 많은 비석들이 나열해 있으며 계단을 올라서면 명륜당의 어칸 하부만 누문형식으로 뚫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5단의 장대석 기단을 쌓아 누하진입하도록 구성하였다. 명륜당은 강학공간으로 정면 7칸 측면 2칸의 규모로 민도리의 홀처마 맞배지붕으로 지붕 끝에는 밑을 직선으로 자른 방풍판을 설치하였고, 출입은 동·서재가 있는 마당으로부터 출입이 가능하다. 동재와 서재는 각각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이고 동재 뒤로 고직사가 있으며 서재 뒤로 담장 너머 화장실이 있다. 대성전으로 향하는 내삼문은 솟을삼문 형식으로 2단의 기단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하부기단은 자연석 막돌쌓기로 추후 정비가 필요하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 이익공 홀처마 팔작지붕으로 방풍판을 설치하였는데 대성전 내에는 공자를 비롯한 5성(聖)10철(哲), 송조6현(宋朝六賢) 그리고 우리나라의 18현(賢)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모든 전각이 소실되었으나 군민의 열의에 의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90년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보수공사가 이루어졌

는데 열거하면 1990년 동·서재 보수공사, 1991년 명륜당 보수공사, 1992년 고직사 보수공사, 2001년 주변정비공사, 2003~2004년 명륜당 보수공사, 2005~2006년 대성전 보수공사, 2007년 고직사 난방 및 보수공사 등이다. 외형적인 보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는데 양양향교는 1954년 향교재단으로 명륜중학교를 설립하여 1975년 폐교될 때까지 양양군의 중등교육에 열성을 다하였지만 지금은 석전제를 비롯한 행사만 치르는데 그치고 있어 양양군의 인재양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양양향교



양양향교 대성전

(5) 명주사 부도군(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16호)

명주사 부도군은 명주사에서 떨어진 진입공간에 자리하며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지금의 장소로 옮겨 세웠는데 조선후기 도내 소재 부도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조각 솜씨를 보여주고 있어 1991년 2월 25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16호로 지정되었다. 일부 기울어진 것도 있었



명주사 부도군

으나 현재는 완전히 정비·보수한 상태로 총 12기의 부도와 4기의 탐비가 있다. 팔각원당형 부도가 7기, 종모양의 석종형 부도가 5기로 조성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기법상 19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부도들 중에서 연파당(蓮波堂) 부도

는 탑비의 비문을 통해 순조 18년(1818년)에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탑비의 기록을 통해 순조 12년(1812년)에서 고종 20년(1883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6) 서림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서면 서림리74-1,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19호)

서림사지(西林寺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삼층석탑과 함께 현서분교 내에 있으며 불대좌 위에 앉아있는 고려시대 불상으로 1996년 9월 30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18호로 지정되었다. 불상의 훼손상태가 심하며 불두는 아예 없어진 상태인데 원래 위치는 현재의 위치로부터 약 200m 떨어진 논 한가운데로 양양의 옛 읍지인 『현산지(峴山誌)』에는

그곳에 서림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1965년 삼층석탑과 함께 현재의 자리로 옮겨왔다.



비로자나불좌상



서림사지 비로자나불좌상과 삼층석탑

불대좌는 사각형 지대석 위에 팔각형의 하대괴임과 원형의 괴임석을 올린 다음 8각형의 중대석을 올렸는데 하대괴임의 각 면에는 안상을 새겼다. 중대석은 각 면 모서리에 우주를 새겼고 면석에는 불상을 조각하였으며 상대석은 상대받침만 있는 상태로 상부는 남아있지 않다. 불상은 불두가 없어졌으며 가부좌를 튼 형상으로 오른손이 손바닥을 안으로 하여 가슴에 대고 있고, 왼손은 훼손된 상태이지만 수인(手印)이 지권인(智拳印)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진리를 상징하는 비로자나불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불상과 석탑이 있는 현서분교 내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실제 불상이 발굴된 장소는 논 한가운데로 문화재보호구역의 설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에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논리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으나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할 지역인 것은 분명하다.

(7) 서림사지 삼층석탑(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20호)

사각형 지대석 위에 괴임돌을 올리고 기단 면석과 갑석을 올린 단층 기단의 3층 석탑으로 옆에 놓인 불상과 함께 1996년 9월 30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 120호 지정되었다. 기단부 면석의 모서리에 우주를 새겼고,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이 각각 1개의 석재로 구성된 1층을 제외하고 2층과 3층 모두 탑신석과 옥개석이 하나의 돌로 구성되어 있다. 옥개받침은 1층과 2층이 4단이고 3층은 3단이며 상륜부는 노반만 남아 있다. 탑신석이 옥개석에 비해 좁고 규모나 전체적인 조형기법 등이 고려시대 석탑의 양식을 보여준다. 옆에 있는 비로자나불상과 함께 옛 서림사터였던 논 한가운데에서 1965년 현재의 이곳으로 옮겨왔다.



서림사지 원지형 현황



삼층석탑

각주

- 1) 이장열, 한국 무형문화재 정책, 2006, 관동출판, p.20
- 2) 개별 지정문화재에 대한 해설은 현지답사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문헌을 참고하였다. 강원도, 『강원도 문화재대관』, 2006, 박경립, 『한국의 건축문화재3(강원편)』, 1999, 기문당, 강원대 박물관,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4.
- 3) 문화재보호법 제5조 2항
- 4) 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
- 5) 동해안에서 위도상 더 북쪽에 있는 고성군 문암진리 선사유적을 더 오래된 신석기 주거유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완전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는 오산리 유적을 가장 오래된 주거유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6) 선사유적지 내에 있는 오산리 선사박물관의 상징물이 되었다.
- 7) 동해안에는 이외에도 시기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진 고성 문암리유적이 있고 그 밖에 용호리유적, 강릉 병산동유적유적이 있으며 이보다 더 늦은 시기의 유적으로 양양 가평리, 지경리유적, 그리고 강릉 초당동유적 등 많은 유적이 있다.
- 8) 사적 제426호 고성 문암리 선사유적이 오산리보다 500년 정도 앞선 것으로 추정되지만 완전한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 9) 2007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현재 유적지의 동쪽(바다쪽) 도로주변을 예맥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함
- 10)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면적은 쌍호를 포함하여 총 120,196㎡이다.
- 11) 1988년 5월 28일 강원도 전통사찰 3호로 지정되었다.
- 12) 산불 이후 새로이 낙산사지를 만들었는데 2010년 1월 낙산사에서 발간한 『新 洛山寺』로 솔바람에서 출판하였다.
- 13) 하조대는 2년 뒤인 2009년 12월 9일 명승 제 68호로 지정되었다.
- 14) 2008년 12월 19일 강원도 전통사찰 46호로 지정되었다.
- 15) 873년으로 추정
- 16) 설악산
- 17) 『高麗史』, 원종 원년 승지양주사(陞知襄州事) 별호양산(別號襄山) 유동해신사(有東海神祠)라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음
- 18) 토함산, 계룡산, 지리산, 태백산, 부악(父岳, 팔공산)을 칭함
- 19) 『신증동국여지승람』경도상 단묘조에 보면 남악은 남원의 지리산, 중악은 삼각산, 서악은 개성의 송악, 북악은 정평 비백산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백두산, 금강산, 북한산, 묘향산, 지리산을 일컫는다.
- 20) 봄철이나 가을철이나 가을 때 신성시하여 제사를 지내던 큰 나루나 강으로 남쪽의 웅진, 가야진, 중앙의 한강, 서쪽의 덕진, 대동강, 압록강, 북쪽의 두만강이 있다.
- 21) 『조선왕조실록』세조 2년(1393년) 3월 28일조에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가 악진해독에 대하여 상소한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또 동해, 남해, 서해의 신사는 모두 개성을 기준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또한 방위가 어긋나니, 빌건대 예관에게 명하여 고정(考定)을 상세히 더하게 하고,..."하면서 동해신을 강릉에, 서해는 인천에, 남해는 순천에, 북해는 감산에 이제(移祭)하기를 주청하는 내용이 있어 양양 동해신사는 계속 동일 장소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 22) 1988년 10월 21일 강원도 전통사찰 42호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신증동국여지승람』

이장열, 한국 무형문화재 정책, 2006, 관동출판

강원대박물관,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4

강원도, 『강원도 문화재대관』, 200

박경립, 『한국의 건축문화재 3(강원편)』, 1999, 기문당

낙산사, 『新 洛山寺』, 2010, 솔바람

장기인, 『한국건축사전(한국건축대계Ⅳ)』, 1996, 보성각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용어사전』, 2007, 동녘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건축답사수첩』, 2006, 동녘

임상택, 『빛살무니토기문화 변동과정 연구』, 2008, 일지사

박언곤, 『한국건축사강론』, 1998, 문운당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1997, 기문당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사』, 2008, 기문당

강원문화재연구소, 『문화유적분포지도(양양군)』, 2003

문화재청, 『2008년도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보고서(강원도편)』, 2008

강원도, 『문화재수리보고서』, 2001~2006

문화재청, 『문화재관계법령집』, 2008

김상태 · 장헌덕, 「남해신사 기본계획에 따른 신당건축 고찰」, 『문화재』42권 2호,
2009, 국립문화재연구소

II. 명승(名勝)

1. 설악산(雪嶽山)

설악산은 속초시와 양양군·인제군·고성군에 걸쳐있는 해발 1,708m의 산이다. 남한에서는 한라산(1,950m)과 지리산(1,915m) 다음으로 높은 산이다. 조선 제9대 성종의 명으로 1481년 노사신 등이 편찬한 『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 산천조 편에 보면 설악은 부의 서북 50리에 있는 진산이며 매우 높고 험준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설악산은 설산(雪山), 설봉산(雪峰山), 설화산(雪華山)이라고도 불렸으며, 금강산을 서리뢰[霜嶽]라고 불렀듯이 설악산을 설뢰(雪嶽)라고도 했다. 또 『동국여지승람』에는 외설악 쪽만을 설악이라 했고, 내설악 쪽은 따로 한계산(寒溪山)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에서는 설악을 영산이라 하여 제사를 지냈다고 적혀 있으니, 신라 때부터 설악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설악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눈이 일찍 오고 오래도록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가위부터 쌓이기 시작한 눈이 하지에 이르러 비로소 녹는 까닭에 이렇게 이름 지었다.” 증보문헌비고에는 산마루에 오래도록 눈이 덮이고 암석의 색깔이 눈같이 하얗기 때문에 설악이라고 이름 하였다. 또 신성한 산이라는 의미의 우리 고어가 변해서 설악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고어로 신성, 숭고, 고결, 생명을 뜻하는 ‘설악’의 설(雪)은 신성함을 의미하는 음역이니 곧 생명의 발상지로 숭상했다는 뜻도 있으며, 옛날부터 내려온 숭산(崇山)사상의 연유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고려 말 강원도 안렴사〔安廉使〕:도지사]로 있던 안축(安軸)이 영랑호에 와서 설악산을 바라보며 이곳 경관을 읊은 시 중에 “모운반권산여화(暮雲半捲山如畫)”란 구절이 있는데, 이는 “저문 날 구름이 반쯤 걷히니 산은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구나”라는 뜻이다. 산을 평하는 글에 금강

산은 수려하기는 하나 웅장하지 못하고, 지리산은 웅장하기는 하나 수려하지 못한다. 비
해 설악산은 수려한데다가 웅장하기도 하다[金剛秀而不雄智異雄而不秀雪嶽秀而雄]는
것이다. 설악산은 삼국사기에는 설악(雪嶽), 설화산(雪華山)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설악산에 는 진귀한 고산식물을 비롯하여 산삼·약초 각종 동물의 생육서식이 왕성하
여 학술계의 각광과 애호를 받아 1965년 11월 5일 문화재 지정 제171호(문교부고시 제
228호)로 천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설악산의 이러한 천연미와 학
술적 가치는 수많은 고적과 더불어 국립공원의 격을 갖추었으므로 정부와 사회의 개발
사업은 날로 발전을 가져오게하고 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
었고 그 면적은 17,369ha이다.

1) 명칭의 유래

“지자요수(智者樂水), 인자요산(仁者樂山)”이라는 글귀가 논어에 있다. 그것은 옛 선비
나 일반 사람들이 즐기는 요(樂)를 산과 물에 두고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이다. 숙종, 영
조 때 노강(蘆江)조명이[趙明履] : 문필가]는 서예가로서 일찍이 설악을 찾았었다.

“설악산 가는 길에 개골산(皆骨山) 중을 만나 중에게 묻는 말이 풍악(楓岳)이 어떻더
니 이사이 연하여 서리치니 매 맞았다 하더라”

이 시조는 노 강이 자연미의 감흥에 겨워 설악산을 찾아가는 길에 금강산에 있는 스
님을 보고 풍악(楓岳)을 묻자 중이 단풍이 든 때나, 아주 잘 때를 맞춘 것이라 하며 설악
산 가는 것을 중단하고 금강산으로 오라는 뜻을 풍겼다. 유명한 시조이기도 하다.

옛 신라시대부터 의상대사, 원효대사, 자장율사, 도의국사, 무염대사 등 수많은 고승
이 설악을 다녀갔고, 영랑(永郎)을 비롯한 수많은 화랑과 선도(仙徒)들이 다녀갔다. 명
산에 대찰을 짓고 산수를 두루 찾아 풍류를 즐기며 심신을 수련하였다. 세조도 낙산사
에 행행하면서 설악의 용자(容姿)에 감탄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매월당 김시습도 설악
산 보다 좋은 선경이 없음을 깨닫고 오색령 깊숙이 파묻혀 새소리 물소리를 벗 삼아 단
종의 애사를 마음 달랬다.

숙종 때 삼연 김창흡(金昌翕)은 영시암에 잠적하여 사시의 가경을 벗 삼고 슬프고 괴

로운 심정을 풀면서 일생을 마쳤다. 설정대사(雪淨大師)는 삼연선생이 가신후 여기를 찾으니 정사는 빈 터만 남아 있었다. 설정대사는 이 자리에 정사를 짓고 부처님을 모시고 영을 위해 기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후 수많은 석학거유(碩學巨儒)들이 이곳을 찾아들어 바위에 이를 각자하여 놓고 가을 낙엽처럼 가버린 것이다. 설악산의 대자연은 사람의 심금을 울려 주었다. 송강 정 철(鄭 澈)이 설악에서 역적이 난다고 하여 봉정암에 혈을 지르려고 찾은 일이 있었다.

그때 정 철이 설악산을 평하기를 “설악이 아니라 벼락이요, 구경이 아니라 고통(苦景)이며, 봉정(鳳頂)이 아니라 난정(難頂)이다”라고 표현하였다. 즉 설악산에 들어서니 천지가 진동하고 소낙비가 내리고 큰 뇌성이 온몸을 삼킬 듯이 으르렁거리니 혼자서 답답한 심정을 내뱉는 말이라 하였다. 소유 권상용(少遊 勸相容)도 설악산에 대한 기록이 있고, 창산(昌山)도 이곳을 다녀간 후 동국명산시(東國名山詩)를 지었다.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은 이곳 설악산 높은 봉과 폭포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명필을 휘날리고 시를 지은 곳이 많다. 암상과 암석에 각자한 족적이 많이 남아 있다. 예부터 설악을 찾는 인사들은 대자연의 엄숙한 대원광 속에 몸을 잠그고 그 영의 감화와 그 위력을 터득하려 하였다. 노산(鷺山) 이은상(李殷相)도 이 설악을 답사하여 가는 곳마다 시를 읊어 큰 감명을 주었고 대자연을 찬송하였다.

설악은 신산으로 생각하고 성역과 같이 믿어왔던 곳이다. 설악산을 일명 설화산(雪華山)이라고도 불렀다. 그 이름이 삼국사기에 나타난 것이 가장 오래이다. 또 삼국사기 제사지(三國史記 祭祀誌)에 나타나 있다. 설악이라는 구절은 절이나 암자를 세우거나 중창했을 때 그 기록으로 이름을 남겼다. 설악, 설산, 설화산이라고도 쓴 산명은 눈이 많이 내리는 산이란 이런 뜻에서 산명을 붙인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산악에는 설자가 붙어 있는 산이 많다. 설한령, 설봉산, 설운령, 설마상(雪寒嶺, 雪峰山, 雪雲嶺, 雪馬峠)라는 이름이 수없이 있다.

명산, 설령에 설자를 붙이는 것은 우리 옛말[古語]에 “솔”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신성을 뜻하는 것이며, 설(雪)이란 것은 결국 신성을 뜻하는 “솔”의 음역(音譯)인 것이다. 이 신성에 내포되는 뜻에는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신성, 숭고, 결백(神聖, 崇高, 潔白)함을 나타낸 신산 성역임을 알 수 있다. “솔피”는 설악산 뿐 아니고 금강산에 이름도

“서리되”다. 즉 상악(霜岳)이라는 것은 “슬피”와 통하는 것이다. 이렇듯 “슬피”인 설악산은 우리 겨레의 영산이며 진산이고 또한 신산으로서 예부터 대대로 이어온 성역임을 알 수 있다. 봉만용열석색개설고명(峰巒聳列石色皆雪故名)이라는 옛 기록이 있다. 봉우리마다 열을 지어 섰고 돌의 빛이 모두 눈[雪]과 같다 하여 설악이란 명칭이 붙게 되었다고 한다. 육당 최남선은 설악기행(六堂 崔南善 雪岳紀行)에 말하기를 “설악은 금강산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하였다. 여지승람 또는 문헌비고에서도 중추(仲秋)가 되면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여름에 이르러 비로서 녹는 관계로 설악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고 써어 있다. “중추시설지하이소고명언(仲秋始雪至夏而消故名焉)” 또 금원안사(錦園安史)가 쓴 호동낙기(湖東洛記)에는 “돌이 눈 같이 희므로 이름을 설악”이라 하였다는 『석백여설고명설악(石白如雪故名雪岳)』 것이다. 영조 때 학자인 청화산인(靑華山人) 또는 청담(淸潭)이라는 호를 가진 이중환(李重煥)은 그의 저서 『택리지(擇里志)』에 오색령, 설악산, 한계산을 모두 “어지러운 산이고 깊은 두메이며 위태로운 봉우리와 겹쳐진 뿔뿌리”라고 말하였다. 또 그는 산수편에서 평하기를 남쪽은 설악산과 한계산이다. 또한 돌산, 돌샘이며 우뚝하게 뛰어나며 깊숙하게 겹쳐진 뿔뿌리와 높은 숲이 하늘과 해를 가리었다. 한계산에는 만장이나 되는 큰 폭포가 있다. 옛날임진년에 당나라 장수가 보고서 노사폭포보다 훌륭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남위설악한계역석산석천이외아절규유심처냉장교임폐휴천왈한계유만장대폭석유임신당장견지위과노산폭포(南爲雪岳寒溪亦石山石川而崑峨載巋幽深淒冷嶂喬林蔽虧天曰寒溪有萬丈大瀑昔有壬辰唐將見之謂過廬山瀑布)” “신라시대는 신산 혹은 선산으로 믿어왔고, 후기에는 불산(佛山)이라는 별칭도 갖게 되니 가히 영산임을 알 수 있다.

2) 지세(地勢)

설악산의 지붕인 대청봉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험산이 뻗고, 팔방으로 준령이 겹쳐져 있다. 설악산의 능선은 사통팔달로 뻗어 있으니 산등을 따라 연이어진 봉우리의 선인 능선은 예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남기기도 한다. 설악산에는 이 능선이 여덟 개나 있고, 수없이 많은 계곡과 개천이 맑게 흐르고 있다.

(1) 독주골 능선(稜線)

이 독주골 능선도 대청봉에서 남으로 1,665m의 중청봉을 거쳐 오색약수가 있는 곳까지 뻗어졌다. 그리고 독주골 능선은 서로 나누어져 골짜기는 매우 깊다. 서쪽 골짜기는 독주암 골짜기라 하여 심산유곡의 삼림미와 만장의 삼주폭포(三走瀑布)가 흐르는 계곡이다.

(2) 팔기팔경(八奇八景)

설악산은 기괴한 점이 많은 산으로 신비와 영기가 서리고 기이하고도 조화가 이루어져 천만만점의 비밀을 간직한 채 오늘에 이른다. 그런 기괴한 점을 해석하고 정리하여 여기 팔기로 적었다.

설악산의 팔기(八奇)

天吼地動(천후지동) 巨巖動石(거암동석) 轉石動穴(전석동혈) 百斗甌穴(백두구혈)
垂直節理(수직절리) 有多盪暴(유다탕폭) 金剛有穴(금강유혈) 冬季遲雪(동계지설)

가. 天吼地動(천후지동) : 여름철 비가 많이 내릴 때면 으레 천둥이 일어나고 번갯불이 번쩍거리면 온통 하늘이 찢어지듯이 울부짖고, 땅이 갈라지는 듯 지축이 흔들린다. 그 소리의 신비와 울림의 기이함은 예부터 기이하게 생각해 왔다.

나. 巨巖動石(거암동석) : 큰 집채 같은 바위가 움직인다는 것은 신기로운 것이다. 거암괴석이 흔들거린다는 것은 돌 많고 바위 많은 설악산에서만 볼 수 있는 신기로운 것이다.

다. 轉石動穴(전석동혈) : 계조암 같이 바위와 바위가 서로 맞대어 하나의 자연굴을 만들었으니 이것 역시 기이하고 곳곳에 이런 자연굴이 있다.

라. 百斗甌穴(백두구혈) : 외가평에서 백담사로 가는 도중에 있는 구혈은 콩 백 말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으니 옛날 학이 날아간 자국이라 하지만 진기롭고 기이한 형태가 아닐 수 없다.

마. 垂直節理(수직절리) : 천불동 골짜기의 뽕죽뽕죽한 바위의 봉우리나 울산암 가리봉의 만물상 할 것 없이 모두 수직절리로 천태만상의 형상을 하고 있으니, 역시

신기한 조화다. 용의 치아같이 속은 용아장성의 암상은 수직작용에서 험준한 형태를 하니 신기하고도 기이한 자연이다.

바. 有多盪暴(유다탕폭) : 폭포가 있는 곳에서는 으레 늪[沼]이 있던지 못[淵]이 많다. 쏟아지는 물에 반석이 패어 큰 바위 확이된 것이 탕이다. 12선녀탕 같은 것이니, 이것 신기함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 金剛有穴(금강유혈) : 역시 비로봉의 금강굴 같은 것은 큰 석산에 큰 구멍이 있는 것은 매우 신기롭고 기이하다.

아. 冬季遲雪(동계지설) : 눈이 많이 내리면 쌓이고 쌓여 수십장이 되고 사시장창 눈이 보인다. 11월부터 3월까지 온 눈은 개골산에 백설이 만견곤하는 절경을 이룬다. 이것 역시 팔기 가운데 빼놓을 수 없다. 관동팔경은 예부터 전해 온다. 그러나 설악산의 특징을 한 마디로 설명하려면 말문이 막혀 얼른 대답을 못한다. 그러므로 풍경을 여덟 가지로 골라 표현한다.

설악산의 팔경(八景)

龍飛昇天(용비승천) 雪岳霧海(설악무해) 七色有虹(칠색유홍) 紅海黃葉(홍해황엽)
春滿躑躅(춘만적촉) 月夜仙峰(월야선봉) 滿山香薰(만산향훈) 開花雪景(개화설경)

가. 龍飛昇天(용비승천) : 산에 많은 폭포가 있다. 설악산은 폭포로 명성을 날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3대 폭포인 대승폭포, 쌍폭, 양폭포, 천당폭, 토왕폭포 등이 대표이다. 대승폭포를 바라보면 물줄기가 떨어지면 무지개가 서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용이 승천하는 것 같고, 황홀하며 물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을 갖게 한다.

나. 雪岳霧海(설악무해) : 여름이 되면 봉우리마다 구름에 덮이고 안개에 쌓여 있는 신비로운 풍경은 참으로 장관이다. 대청봉은 구름 위에 솟아 있고, 골짜기란 골짜기는 안개 속에 잠겨 설악은 안개의 바다로 변한다. 설악이 아니라 운악(雲嶽)이며, 수해이며, 무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하운다기봉(夏雲多奇峰)이라는 말은 설

악산을 두고 말한 것이며, 산봉우리에 앉으면 날아가는 우의선인(羽衣仙人)이 된 것 같다. 설악산의 구름은 어떻게 보면 구름이 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봉우리에서 쉬다가 다시 흩어져 순간적으로 자취를 감추고 만다. 구름의 흐름은 실로 기이하여 측량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야말로 유수같은 행운(行雲)이며, 무해를 보지 않으면 실감이 나지 않는다. 구름이 산을 헤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산이 구름을 헤치고 남으로 갔다가 북으로 달리고, 모였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사라지는 착각이 드는데 구름의 조화는 팔경 가운데 제일이다.

다. 七色有虹(칠색유홍) :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는 아침과 저녁이면 햇빛에 반사되어 떨어지는 비말(飛沫)에는 영롱한 7색의 무지개가 된다. 선녀가 금시라도 타고 갈 수 있는 듯한 무지개다리가 놓여 지니 정말 진경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무지개가 하늘거리며 움직인다.

라. 紅海黃葉(홍해황엽) : 가을이 되면 온 산천이 단풍으로 붉게 물들고 나뭇가지마다 누런 잎에 쌓여 골짜기마다 마치 수놓은 병풍을 펼쳐 놓은 것 같은 광경은 정말 금수강산이다. 우수수 낙엽이 지고 붉게 몸을 단장하는 단풍나무는 풍경 가운데 진경이다.

마. 春滿躑躅(춘만적축) : 봄에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하여 산에 가득하다. 6월 초에 피는 진달래 철쭉은 상상할 수 없는 진경이다.

바. 月夜仙峰(월야선봉) : 가을이 와서 밤하늘이 밝을 때 둥근 달이 중천에 뜨면 기암 괴봉의 모습이 난무하는 선녀처럼 보인다.

사. 滿山香薰(만산향훈) : 봄에 초목이 소생하면 그 향기가 산에 가득하여 바람이 불면 향긋한 냄새가 온 골짜기에 가득하다. 대청봉, 화채봉, 오색계곡에 군생하는 향나무 숲을 지나가면 숲향기가 코를 찌른다. 눈으로 보는 풍경도 좋거니와 코로 냄새를 맡는 것도 풍류의 하나이다.

아. 開花雪景(개화설경) : 겨울이 오면 산이 육화(六花)로 덮인다. 나무나 기암절벽에 눈이 쌓이면 온갖 형태의 눈꽃이 피어 절경을 지나 묘경을 이룬다.

팔기팔경은 양권일(楊權一)의 몇 분의 시인 묵객이 남긴 글 시화를 묶어 평한 것이다.

팔기에 지포(地圃)하는 송백을 넣어 구기(九奇)로 생각한다. 대청봉에는 송백이 땅에 기어가면서도 얹혀 퍼져 성장함이 기이하고 팔경에 진기한 짐승과 아름답고 고운 소리로 노래하는 금조(禽鳥)를 들 수 있다. 궁노루, 흰곰, 크낙새가 서식하는 곳이 설악이다. 진기한 동식물을 완상(玩賞)하는 것도 일경일 것이다. 그러므로 구경(九景)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괴한 경치를 바라보면 볼수록 대자연의 심오한 조화작용을 알아낼 분이 몇이 있을지 그저 묘한 풍경에 삼매경에 빠져들어 자아를 잃고 선경에 있는 감회를 갖는다.

3) 지질과 풍경

설악산은 바위의 형성으로 기괴한 암상으로 시작된다.

첫째 다채로운 경치는 큰 규모의 화강암이 관입한다.

둘째 그 관입에 따라 바위의 질이 서로 구조에 있어 차가 있고 맞지 않아서 상이한 침식을 계속함으로써 기암괴석이 나타나게 된다. 땅 속에 있는 암장이 고열로 녹아진 상태에서 밖으로 줄줄 흘러내려서 새로운 바위가 많이 만들어져 안으로 관입한 것이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분화작용으로 온갖 형상을 나타내게 한다. 더욱 바위의 질이나 절리(節理)에 따라서도 침식하므로 뿔족뿔족 기암괴석을 나타낸다. 절리(節理)로 주상, 판상, 방상, 탄상, 입상, 곡상(柱狀, 板狀, 方狀, 彈狀, 立狀, 曲狀)으로 나타나 침식작용을 한다. 12선녀탕은 둥근 형상을 나타내는 것은 박리(剝離), 즉 벗겨져서 일어난 현상이다. 그리고 뿔족뿔족한 형상은 수직절리의 사각절리에 의해서 나타난 형상이다. 그 예로 괴면암은 수직절리에서 일어나 풍화가 되어 벗겨지고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생긴 것이다. 바위의 질이 틀려서 형성된 경치 좋은 곳으로는 장군바위, 상투바위, 할미바위, 가리봉 등이 좋은 예가 된다. 설악산의 암석이 무늬의 구조를 지닌 반암과 녹색이면서 번쩍거리는 섬록암(閃綠岩) 치산화강암, 설악산의 화강암각섬, 석화강석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바위들이 서로 관입 난입하여 형성되었다.

설악산의 풍경은 화강암의 지질의 조화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 관입한 차별침식이 일어나고 분화를 일으키고 절리작용이 나타나서 기괴망측한 형상으로 보이게 된다. 더

육 풍화에 의해 벗겨지는 박리작용이 일어나므로 해서 더욱 이상아름다운 형태가 나타나니 설악산의 조화야 말로 무궁무진한 자연현상인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설악산의 풍경은 금강산보다 다른 깊은 맛을 지니고 있다. 이 신비로운 대자연의 섭리는 경이롭기만 하다.

4) 대청봉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4번지에 위치한 영산 설악산의 지봉이며 가장 높은 주봉(1,708m)이다. 또 내설악, 외설악의 분계점이며 중청봉, 소청봉이 그 밑쪽에 자리 잡고 있다. 대청봉에서 화채봉으로 나갈 수가 있고, 중청봉에서 비선대 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 또 대청봉과 중청봉을 거쳐 소청봉을 지나 독주암 능선을 타고 오색약수로 나갈 수도 있다.

소청봉에서 서북 능선을 따라 내려가면 오색령에 이른다. 수억만 개의 돌이 널려 있는 넓고 넓은 암산으로 가는 것 같다. 이곳에 기이한 것은 때를 지어서 자라는 잣나무, 주목들이 서로 기어서 지면으로 퍼져 녹해를 이루고 있다. 대자연의 신기도 여기서 볼 수 있다. 드디어 상봉에 이르면 돌산 그리고 야원이 펼쳐진다. 입체의 설악산이 한 눈에 전개되어 영기에 머리 숙여진다. 설악의 대청봉에서 “일출낙조”가 신기하다고 한다. 붉은 해가 공중에 떠서 공중에서 진다고 한다. 산봉에 “요산요수(樂山樂水)”라 새긴 비가 세워졌다. 상봉에서 왼쪽으로 내려다보면 천만군병을 거느리고 창검기치를 높이 휘두르는 듯 하는 천불동 계곡의 천의 끝을 지닌 바위들이 기상천외의 광경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천불동 오른쪽에 솟아있는 운주봉 구름이 치마폭처럼 깔려 운주봉의 허리를 걸쳤으니 그 아름다움이야 말로 선인만이 맛볼 수 있는 선경이다. 감격, 감동, 감탄, 경탄, 신비 “아!” 하는 소리가 한꺼번에 터지려는 충동을 느끼는 상봉이다. 어디 그것뿐이라. 다시 눈을 돌리면 무변광대(無邊廣大)한 동해가 보인다. 바다와 창공과의 선이 명확하게 보인다. 손짓으로 가리키고 싶은 지암(地岩)엔 북쪽 하늘에 한없는 포물선도 보인다. 속초항의 청초호, 영랑호도 호숫가에 자리 잡은 마을도 보인다. 낙산, 양양, 강릉이 한 눈 아래에 보이며, 위대한 자연 앞에 엄숙하게 수그러지는 것 같다. 수천 수백의 높고 낮은 봉이 모조리 청봉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대청봉은 군림하는 듯하다.

옛날에는 청봉(靑峰)을 봉황대(鳳凰臺)라 불렀다 한다. [雪華山人 無盡子の 五歲庵 事蹟記] 때로는 “봉황대의 정상인 봉정이 이 산의 극한 곳이다”라고 기록하였다. [鳳頂卽 岳極處 成海應의 東國名山記] 노산(鷺山)은 “봉황대”, “봉정”, “청봉”이란 명칭이 옛 신앙의 근원이었던 “광명(光明)”에서 나온 말이라고 단정하였다. 동국명산기에서 청봉이라는 까닭을 살펴보면 청색으로 보인다고 하여 그 봉우리를 청봉이라 하였다. “달견지표 묘이청 고지기절이명왈청봉(達見只縹緲而靑 故指其絶而名曰靑峰)” 정상에 오르면 허허로운 산야 같아 누구나 두리번거리며 살핀다. 그러면 눈에 띄는 것 돌집 정도뿐이다. 이곳은 대청봉 산신을 모셔둔 제단이다. 누구의 성의에서인지 돌담을 쌓아 담을 돌렸다. 그리고 “설악산신령(雪嶽山神靈)” 원편에 “팔도산신중도신령(八道山神中道神靈)”이라고 써서 각각 세웠고 한 가운데 위패에 “설악산봉국가천왕불신지위(雪嶽山峰國可天王佛神之位)”라고 써서 세워 놓았다. 지금은 없어졌으나 이 유풍은 자연을 숭배하던 우리 조상들의 믿음에서 나타난 것이다. 설악산은 입체미를 갖고 상봉에서 보면 설악의 미가 한 눈에 보이며 설악산 곳곳을 찾지 않아도 다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설악산에 설해(雪海)를 보는 것이 또한 장관이다. 봄, 여름, 가을철에 골짜기마다 안개가 덮인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붉은 꽃바다를 이룬다. 대청봉 위에서 설악산을 보지 않으면 천하의 경치를 말할 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5) 남설악(南雪嶽)

(1) 오색동(五色洞)

옛날에 오색꽃이 피었다. 또 사기에 설악산에 오색사가 있었다 하여 오색리라 하였다 고 전한다. 대청봉과 점봉산맥의 만첩중봉(萬疊重峰)이 병풍같이 3면에 둘러있어 상시 백운을 띠고 있고 중천에는 기암괴석이 녹각림처럼 연호하여 산수미의 진수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 중턱에 우뚝 솟은 만경연봉에는 천고를 자랑하는 창송(蒼松)과 곡곡(谷谷)에서 흐르는 청류는 이곳 수려함을 선보인다. 오색동에서 설악을 보았다하여 수레를 돌리는 아쉬움을 느끼나 사시의 변화가 이곳이 제일이며, 진귀한 금조(禽鳥)와 낙락창송 그리고 오색화로 이름 높다.

(2) 오색약수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 있다. 오색약수는 1500여 년 전 성국사의 승려가 반석위에서 용출하는 천맥(泉脈)을 발견하고 무심히 한 모금 마신 결과 약수로 판명되었다. 당시의 성국사 후원에 오색화가 피는 특이한 수목이 있기에 그 후 오색약수라 칭하게 되었다. 오색약수는 설악산 청봉으로부터 서남 8km, 양양에서 서방 20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산성과 탄산수로 암석 틈에서 은실 같은 줄기로 끊임없이 샘솟아 오른다. 위장병과 신경쇠약, 피부병, 신경통에 특효하며 특히 메밀꽃 피는 가을에 효력이 양호하다 하며 사시장철 탐승객이 끊일 날이 없다.

(3) 오봉사(五峰寺)

1962년 약수터에서 50m 지점인 오봉산 기슭에 박상준 퇴곡승이 사재로 정사를 세워 오봉사, 운석정사(雲石精舍)라 명명하여 수도장으로 삼았다. 그러나 대지분쟁과 경영난으로 정두석(鄭斗石)법사에게 이양하였다. 정법사는 불교의 대가로서 제도중생과 포교에 정력을 다하여 아담한 현대식 도서관을 세워 독서열을 고취하고 있다. 이 정사부근에는 불연(佛緣)이 깊은 목련화의 향기가 관광객의 흥취를 돋우며 신도의 목탁독경소리도 이채롭다.

(4) 발 폭포(瀑布)

오색리에서 50m 지점인 오색령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 석양 산책지로 안성맞춤이다. 쌍갈래 폭포인데 유객이 많이 찾아와 제일 먼저 속진을 씻고 설악령기를 마시는 아담한 폭포다.

(5) 만경대(萬景臺)

청산에는 낙락장송이 천고부월(千古斧鉞)을 보지 못한 고송군(古松群)은 참으로 이곳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절경이다. 연결되었던 산허리가 천만년간 침식되어 양단되니 절벽층암으로 만장구학(萬丈丘壑)을 이루고 단암천척(斷岩千尺)이라 만경대의 봉우리는 청룡의 머리라면 대애(對崖)의 봉우리는 백호의 후상(吼像)이 되는 용호상박(龍虎相搏)

의 기세라고 평한다. 산상대 위에서 시를 읊으면 산명답응(山鳴答應) 서로 화답할 수 있는 지척이라. 가경에 났을 잃는다. 예부터 이곳을 만경대라 칭하고 팔담에 비증하는 기봉승지에 망견하면서 등산객이 제일 좋아하는 만산이 의각지세(倚角之勢)로 용출(聳出)하여 만학천봉(萬壑千峰)의 승지이다.

(6) 성국사지(城國寺址)

수목이 울창하고 산형이 유수(幽邃)한 금계포란(金鷄抱卵)의 아늑한 지국의 작은 암자에서 들리는 독경소리에 행객이 발을 멈춘다. 이 절 내력은 문헌이 없어 고증할 수 없으나 사지의 규모로나 조각미로나 산재한 기와조각 등으로 보아 신라 중엽 이후의 것이다. 무염(無染), 법성(法性), 두 선사가 수도하던 곳이라고 전한다. 원래 동서에 두 개의 보탑이 있었으나 동탑은 허물어져 잔골만 남고 서탑은 1968년 12월에 복원되어 제479호 보물로 지정되었다. 한 개의 돌사자가 홀로 남아 옛 모습을 보여 윤희의 무상을 말하여 준다. 1950년 보살이 옛터에 작은 암자를 짓고 법열(法悅)을 즐기며 해탈의 업을 닦고 있다.

(7) 선녀탕(仙女湯)

양협(兩峽)의 절벽의 산이 돌입하는 사이 넓은 바위 위로 흐르는 소폭을 지나 그 밑 청류가 선녀탕이니 참으로 깨끗하고 청정한 물이다. 달밤에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날개옷을 바위 위에 벗어 놓고 설부(雪膚)를 씻고 승천하였다는 구룡연의 우의설(羽衣說)과 상통한다. 누구든지 속진(俗塵)을 씻고 치성으로 기원하면 응보력으로 속복(俗服)이 우의로 화할 수 있는 기적도 바랄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부터가 인생수도의 첫 입문의 길이며 절정에 경탄의 제일성을 내는 곳이기도 하다.

(8) 대왕폭[(大王瀑)용소]

용소라고도 한다. 남설악의 만학천봉(萬壑千峰)에서 모인 물이 폭주하여 절벽의 암석 위에서 직하로 떨어지니 산중의 제일 큰 폭포이다. 높이 50m, 넓이는 2m, 풍부한 수량에 쿵쿵 쏟아지는 굉굉(轟轟)한 물소리는 장관이며 천만년 쏟아지는 물 힘으로 깊은 용소가 되어 자연의 위력을 과시 한다.

(9) 십이연주폭(十二連珠瀑)

설악산맥 연봉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크고 넓고 높은 반석 위를 굴러 연줄연줄 떨어져 12연주폭포가 되었다. 소에 열길 오르면 탕이 있고 탕(盪)에서 20장 오르면 못이고, 못에서 또 다시 오르면 명주 열두폭에 주염(珠簾)을 펴놓은 감을 느낀다. 폭포 옆에 조심스레 앉아서 잔잔히 흐르는 옥수와 비말(飛沫)을 만져보는 것도 매력적이다. 줄줄, 솔솔, 팔팔, 쿵쿵 찡는 이 폭포는 성숙한 처녀탕이기도 하여 다정다감의 심화가 거래된다. 잔잔하다가도 급해지며 부드럽다가도 굳센 굴곡중횡무진의 변화의 묘기에 애교를 부리며 반가이 유람객을 맞는다.

(10) 만불동(萬佛洞)

험준한 산악길 무성한 수목을 헤치며 속칭 주전골에 접어들면 만상대가 나온다. 이 대위에 올라 땀을 닦고 두루 대하를 살펴보면 천태만상의 기암괴석의 만불상이 시야에 영사된다. “일체유심조” 말을 빌린다면 화상(和尚)같이 보이다가 변하여 오백라한(五百羅漢)이 열좌하여 염불하는 형상도 같다. 더욱 여래가 연화대에 앉아 설법하는 상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같다. 혹은 돌사자의 동물인가 9층탑으로 기상천외의 변화가 회전하여 자연의 신비에 경탄하여 그 위력에 머리 숙인다. 설악산의 천불동이라 하면 이 곳은 남설악의 만물상이라 이름 할 것이다. 울산바위는 웅장하여 남성적이라 하면 이 곳 만물상은 뽀죽 뽀죽한 만물은 여성적인 기묘를 갖는다. 남설악의 대표적인 산하의 미는 금강산 만물상에 필적할 수 있다.

(11) 흔들바위의 옛 성터

돌이 움직이는 원리는 흔들바위와 같으나 이곳에도 흔들바위가 발견되어 설악의 두 번째가 된다. 규모는 작으나 역시 기이한 볼거리이다.

옛날 문헌에 설악에 오색석사가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이곳에 돌로 쌓아놓은 것 같이 여겨지며 또 주전골에서 사전을 만들던 중이 이곳에서 살면서 주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만불동에 주전골이 있으니 일맥 전설과도 상통한다.

(12) 옥녀탕폭(玉女湯瀑)

점봉산에서 흐르는 계곡에 신기하게 생긴 옥녀탕이 있다. 험로를 헤치고 유곡청류를 따라가면 적고 아담한 작은 폭포를 이속폭(離俗瀑)이라고 이름짓고 수십장되는 대상(臺上)에 간신히 오른다. 넓직한 대상에는 10여명이 앉아서 놀 수 있으니 대를 우의대(羽衣臺)라 명명하고 싶다. 그리고 20여m 오르면 이 지점에 옥녀탕이 있으니 마치 소녀의 나체형국에 곡선미의 조화에 경탄한다. 맑고 차고 아름다운 이 폭포는 근년에 발견되어 탐승객의 발길이 점차 잦아지며 별유천지의 승경지이다.

(13) 독주폭(獨走瀑)

대청봉 연봉에서 흐르는 독주골짜기 만장의 암벽위에서 크나큰 장천이 공중에서 쏟아져 내리는 장관의 폭포이다. 사시부절의 물소리와 비말(飛沫)에 자연(紫烟)이 일고 오색 무지개가 생긴다. “일조홍노생자연 요간폭포수장천 비류직하삼천척 의시은하낙구천(日照紅爐生紫烟 遙看瀑布樹長川 飛流直下三千尺 疑是銀河落九天)”의 이백려산폭시(李白廬山瀑詩)와도 같은 장엄한 폭포이다. 이 폭포는 첫째 폭은 백장, 둘째는 천장, 막내 것은 만장이 삼형제폭을 총칭함이니 설악산 영기가 이곳에 도사려 신비를 다하고 있다. 토왕성폭포, 대승폭포와 더불어 3대폭포로 자랑하며 대청봉 등산코스의 제1보에서 구경하는 폭포로 유명하다.

(14) 온천(溫泉)

오색령 가는 길 옆 온정봉남쪽에 있는 피부병에 특효한 온정이니 고래로 욕객이 끊이지 않는다. 옛날에 불결한 사람이 “상사뱀”에 혼났다는 말도 있으나 신빙성이 없으니 마음놓고 입욕하면 효과가 100%이다. 산장과 욕실의 설비로 관광객의 이목을 끈다. 기이하게도 마시면 장약이 되고 만병에 통치가 된다. 열도만 높으면仙境영험지(仙境靈驗地)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지하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오색 그린야드로 보내지고 있다.

(15) 온정폭(溫井瀑)

심산유곡에서 내려 쫓는 폭포인데 높이는 20m 청류의 폭포이다. 온정골로 접어들면 백보에 소, 천보에 폭이 있다. 산산, 수수, 암암, 폭폭(山山, 水水, 岩岩, 瀑瀑)인 인상을 주는 곳이 이 골짜기인데 곡곡장류에 홀리면 세월 가는 줄 모른다.

(16) 설악폭포(雪岳瀑布)

대청봉 가는 직선코스의 험로 옆에 자리잡고 있어 한적한 곳에서 고독을 느끼고 있다. 오십장의 청류폭포로서 등산길에 보기만 하여도 청량제가 되며, 산악의 진가가 이 폭포의 개발로 이루어 질 것이다.

(17) 설악루(雪岳樓)

오색령 정상에서 108계단을 오르면 그곳에 세워진 누각이다. 동서산악의 경제가 이곳에서 조감 할 수 있어 “아, 아, 아름다워라 설악산이여”라고 탄성을 얻을 수 있다. 108계단을 염주를 굴리면 서 영욕(榮辱)을 뜯구름과 같이 여기고 오르면 천용의 신성을 맞보는 것같이 여겨진다. 만경의 미, 산하의 조화, 영기의 위대성에 경탄을 연발하면서 우화등선의 기분이다.

(18) 백암폭(白岩瀑)

대청봉남쪽의 계곡에서 굽이굽이 흐르는 물이 한 곳에 모여 쏟아지는 폭포를 백암폭이라 하는데 15m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아담한 소녀폭이며, 맑은 날 오전에는 무지개 현상을 볼 수 있다. 백암산 골짜기에서 인적이 드문 곳이나 명성을 날릴 날도 멀지않을 것이며 한 번 보면 두 번, 세 번 탐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19) 물레방아

백암산에서 흘러내리는 청류에 물레방아가 물을 안고 빙글빙글 돌고 있다. 굴피로 이은 집은 민속유물의 하나로서 회상이 깊고, 그 옆 휴게소에는 오가는 길손이 땀방울을 씻고 청류수를 마시는 것도 백암폭포의 등산 코스로서, 한번 쉬면 천년의 근심도 잊게

되는 독특한 풍경이며 애교를 부리고 있다.

(20) 천불동(千佛洞)

설악지맥이 동으로 달려서 화채봉이 되었다. 봉의 북쪽에 내표동(內表洞)이 있고, 동중에 천불폭포가 있어서 천상은하를 반공(半空)에 거꾸로 매어 단 듯하다. 돌을(突兀 : 오뚝하게 돌출하여 있음)한 봉줄기는 석골이 노출하여 보살라한(菩薩羅漢)의 전신을 환성하고 있다. 세인이 그 표리를 보지 못하고는 천불동의 기경과 그 산천미를 다 말할 수 없다. 동내의 내문과 외문에 험악한 곳이 있어 인간으로서 능히 출입하기 어려운 곳이다.

(21) 오색의 자연미와 단풍

“설악의 절승 오색”은 문자 그대로 다섯 가지 요화(瑤花)가 피고 지던 곳이며, 양양읍에서 서쪽 20km 거리에 있다. 아득한 옛날 신라선도(新羅仙徒)들의 수도하던 영지이며 승지 오색을 이웃하는 신흥사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전하는 유래와 전설이 풍부할 뿐 아니라 끝없는 낭만의 꿈으로 얹힌 정취 깊은 곳이다. 용용히 솟음치는 약수와 온천, 그리고 기암절벽의 계곡에 펼쳐지는 사시경개(四時景概)는 탐승객의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상쾌한 기분을 만끽하며 위대한 자연미에 도취케 하니 과연 조물주의 창조 조화에 다시금 경탄 아니 할 수 없다. 위장병과 피부병에 특효한 약수와 온천, 그리고 백포를 드리운 것 같은 200여 척 높이의 독주폭, 발폭포, 하폭, 온정골폭포를 비롯하여 수십 개처에 있는 백여 척 폭포와 선녀탕, 용소, 독주암소 등이 산재하여 있고, 수백 척 수천 척으로 깎아 세운 듯한 독주암, 망경대, 궁전암, 만물암, 병풍암, 탑암, 치매암, 고래바위, 울타리암, 사자암, 소바우, 독좌암, 선녀암, 도깨비바위 등을 비롯한 층암절벽들이 계곡에 뻗쳐 있으며 그 각하를 흐르는 벽계수는 더 한층 극치를 이루고 있다. 이뿐이랴? 가을이면 타오르는 듯이 물들어 온 산과 계곡이 마치 불바다를 이루는 이 아름다운 단풍이야말로 전국각처에 비할 바가 아니다.

천자만홍 금수의 그 경치야말로 천하의 절경이며 신비스런 천연미와 산악의 기교는 조금도 금강산에 손색이 없다. 봉래의 성하, 추절단풍 때에는 경향 각지에서 관광객이 구름같이 모여들고 있으며, 시인 묵객들이 청유를 즐기는 곳이며, 고고학적 사료를 탐

구하는 사학가들이 끊일 사이 없다. 아득히 1,500여 년 전 신라시대에 창건한 성국사는 일찍이 그 자취를 잃고 있으나 남아있는 탑신들은 아직도 그 옛날의 예술의 정화를 나타내고 있어 그 모습을 더듬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오색의 5,000여 ha 울타리 안에 숨어 있는 명승고적이 이제 개발의 문을 열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22) 오색온천

오색약수에서 서북쪽으로 4km쯤 가면 형제치 악정에 온천이 있다. 그런데 금강산 온천과 울진의 백암온천의 한 줄기인 것으로 알고 40년대 초에 개발하려고 다이내마이트를 터뜨린 결과 바위에서 잡수가 모여들어 현재는 45°C 정도 밖에 안 되나 현대식 시설로 온천장을 설치하였으며 이 온천은 유황천으로 현재도 하절엔 피부병, 신경통에 유효하다 하여 탐방객이 운집하고 있다.

2. 기타명소

1) 현산공원

양양읍 군행리에 있다. 양양군수 오탈환(1911~1913년 재임)이 현산공원이라 칭하였으며, 옛날에는 현산 서쪽에 갑팔루, 현산정의 두개 정자각을 세웠는데 장구한 세월이 흘러 그 정자각은 자연 파괴되고 지금은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현산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면 앞에는 무산 12봉이 차례로 줄지어 서 있고, 그 밑으로 수류 100리의 한수(남대천)가 동해로 흐르고, 동으로는 오산봉이 해문을 막고 있으며, 서로는 운연이 깊은 곳은 오색약수, 북에는 설악의 청봉이 우뚝 솟아 있으니, 낙산사의 종소리가 저녁연기에 감싸여 은은하게 들리는 정경과 함께 가히 장관이다. 이곳 풍부한 자연미는 만고풍월을 독차지하고 춘화추곡(春花秋菊)이 녹음방초에 시인가객들의 놀이터로 사시 끊임이 없다. 지금 이 현산공원에는 행정수복기념탑, 충훈탑, 필승탑, 3·1운동기념비가 서있으며 봄철의 벚꽃[나무수 31그루] 놀이는 그야말로 절경을 이루고 있다.

2) 갈천약수

양양에서 서남방 70여 리에 있다. 이 약수의 천맥을 발견한 연대는 잘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오래 되었으며 구룡령 한 줄기 산 계곡의 반석상에서 용출하는데 서면 갈천리 서방 약 1km지점에 있다. 성분은 오색약수와 비슷하며 이 약수는 국도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찾아드는 사람은 비록 적으나 약효로 보아서 오래 전부터 평창, 진부의 방아다리의 약수와 함께 이름난 곳으로 특히 농도가 강하여 위장병에 가장 좋다고 한다. 따라서 이곳 약수를 아는 사람은 멀어도 이 약수를 꼭 찾아온다고 한다.

3) 죽도와 죽도정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에 있으며 양양에서 남방 20km의 인구 해변에 주위 1km, 높이 53m의 우뚝한 봉이다. 옛날에는 섬이었다고 전하나 지금은 육지와 연결하고 있으며 해변에서 완전히 향기를 풍기고 기암괴석이 삭립(削立)하여 기상을 더하고 송죽이 사시장 철 울창하므로 죽도라 한다. 이 섬의 장죽은 강인하고 전시용(箭矢用)에 적품이므로 조선시대에 매년 조정에 장죽을 진상하였다고 한다. 이 섬 내에 1927년 3월에 김덕삼이라는 여승이 창건한 암자[竹島庵]가 있으며 또 방선암, 농구암, 연사대, 청허대 등이 있어 더욱 기묘하며 특히 기괴한 것은 부애(浮崖)인데 죽도암 간에 음재하여 심(深) 3척, 직경 3척 가량으로 원형이 되어 맑은 물이 사시 마르지 않고 봉상에는 그 어느 시대인지 미상이나 왕가의 태봉유적이 있으니 해상풍경을 조망하기 좋은 곳이다. 죽도봉상에 죽도정이 있으니 1965년 5월 13일 현남면내 유지들이 주동이 되어 행정당국의 지원을 얻어 준 공하여 화전객이 끊이지 않는다. 죽도주변에 있는 명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동산석구(洞山石臼) : 죽도 동편 연사대 아래에 있다. 둥근형으로 자동자요(自動自搖)하여 서로 마찰됨에 따라 중심이 방아확처럼 파였다 하여 석구이라고 한다.
- (2) 주절암(駐節岩) : 시인 선비와 관광객들이 구경할만한 곳이라 하여 즉, 죽장을 멈춘다는 뜻에서 온 것이다.
- (3) 방선암(訪仙岩) : 옛날 봉래선인 들이 놀던 곳이 있어 신선들이 상봉한다는 뜻으

로 방선암이라 하고 각자한 것이 입구에 있다.

- (4) 청허대(淸虛臺) : 죽도봉 북방에 이르면 심신이 상쾌하여 세상물정을 잊고 선경에 도달한 청허한 심정이 자연 솟아 난다하여 청허대라고 한다.
- (5) 농구암(弄鰐岩) : 선인들이 세상사를 멀리 하고 백구를 벗삼아 한가한 세월을 보내던 곳이라 하며, 전망이 매우 좋아 누구나 한번 가면 떠나기 싫을 정도로 주위에 괴석암이 있고 절경을 이루고 있다.
- (6) 연사대(鍊砂臺) : 옛날 적송자가 주사(走射)를 연마하던 곳이라 하며 대 아래에는 신선의 바둑 놓든 흔적이 있다.
- (7) 학바위 : 죽도의 동쪽 해안에 있는 바위인데 파도에 침식되어 그 모양이 학이 앉은 것과 같다하여 학바위라고 부른다.

4) 조도(鳥島)

현북면 기사문리 앞 바다에 있다. 섬 위에는 송림이 무성하고 바위에서는 담수가 솟아오르고 있다. 하조대 검봉철벽에서 약 10여리에 위치한 산미(山媚)와 기암, 그리고 현북면 잔고리 4H회원들이 방사하는 흰 토끼가 이따금 그 자태를 나타내는 광경은 마치 옛날의 동화를 상기케하며, 각 방면에서 왕래하는 낚시꾼들로 여름에는 사람들이 끊임 사이가 없다.

5) 기우정(耆友亭)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1구 낙산사 의상대 남쪽 바위위에 있다. 건립동기는 자고로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에는 많은 인걸이 배출되어 왔다. 기우계(耆友契)에서는 계주 김영제 씨외 12명이 설악의 높은 기상과 동해의 맑은 정기를 받은 이 고장에 보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이 고장의 발전과 국가의 동량을 기르고자 장학회를 조직하고 육영사업을 추진하고자 결의하고 매월 기금을 거출하여 오다가 이를 분기별로 나누어 거출하기 어려워 지났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13명의 조달금으로는 도저히 그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었다.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뜻 깊은 단기 4300년을 기하여 장학회를 결성하고자 하였으나 애석하게도 목표에 미달됨이 확실하므로 1957년 1월 15일 뜻을 바

꾸기로 합의하였다. 양양은 관동팔경의 하나인 낙산사를 가지고 있고 이름 높은 오색약수와 기타 관광지로 이름난 곳이므로 동해의 서기어린 노변이며 조망이 좋은 낙산사 남쪽에 정자를 건립하여 보다 아름답게 꾸미고 영원히 기념하고자 1967년 3월 1일(기미년 독립운동을 회상하여) 공사에 착수하여 동년 7월 31일에 주공을 보았으며, 뜻 깊은 1967년 개천절을 기하여 비석을 세웠다. 기우정의 정제 유래는 옛날 중국에는 기영회라는 것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기로사 그리고 영조 37년에 발기된 기구계라는 것이 있었으므로 덕있는 늙은이들이 뜻을 같이하여 만년에 휴양하고, 때로는 시음(詩吟)의 모임 장소(정자)로 하고자 동해의 서욱(瑞旭)이 선명한 이곳에 정자를 세우기로 1967년 합의를 보고 그 정제를 기우정이라 하여 영원히 기념하고자 하였다.

6) 미천약수(米川藥水 : 불바라기 약수)

서면 황이리 국도변으로부터 미천골로 접어들면 유명한 선림원지에 다다른다. 이곳에서 유명한 보물을 구경한 다음 인적이 그윽한 산길을 헤쳐 30리 쯤 가면 불바라기 약수가 있다.

절벽 위에서 흘러내리는 약수가 천상수라고 함이 옳을 것이다. 이 약수는 절벽을 오르내리며 받아먹기 힘이 드는 위장의 선약으로 수천년을 말없이 흐르고 있다. 한편 구룡령에서 가까운 지름길이 있어 개발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7) 38° 선

(1) 38° 선 표지석 건립취지문

본군은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감격의 느낌도 가질 틈도 없이 국토의 중간 허리를 동서로 단절시켰던 원한의 38°선이 6개 읍면 중 3개 면을 양단 시킴으로서 한 마을과 이웃이 불시에 장벽을 쌓고 남북으로 갈라져야만 하는 단장의 비애를 직접 체험해야 하였습니다. 그 후 38°선은 1950년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도화선이 되어 6·25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남북의 각축장으로 폐허화 되었으나 다행히 본군 전 지역이 수복되어 38°선 분단의 현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서해안지역은

통일의 염원을 담은 채 불행하게도 북괴치하에 들어가 망각되어 있으며 이곳 동해안지역은 본군의 현북면 잔교리 7번지 국도변에 초라한 38°선 표지석만이 분단사의 시초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국군전사와 반공투쟁사의 현장이며 영동권과 설악권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교통요충지로 이 지점을 통과하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분단의 근원적인 사실을 간직한 38선을 1차적으로 보게 한 다음 같은 코스의 최북단인 통일전망대에 가서 현 군사분계선을 보게 함으로써 순차적인 현장 교육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고 이곳을 왕래하는 관광객들에게 분단사의 시원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확고한 통일안보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 지점이 관광교통의 경과지가 아니라 분단의 사적지 및 국군전적지의 명소로 개발하여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1950년 10월 1일 우리 국군이 분단 이래 최초로 돌파 북진함으로써 이날을 “국군의 날”로 제정하게 된 본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인류평화의 대제전인 올림픽의 성화봉송로변(聖火奉送路邊)으로서 범국민적인 제전분위기 조성에 발맞춰 전 세계 수십억의 시청자들에게 38°선을 좀 더 선명하게 부각시켜 민족분단의 고통을 공감케 하여 평화통일의 국제적 여건 조성에 일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좀 더 새로운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표지석만이라도 시급히 건립해야 된다는 회원들의 열망으로 본 협회의가 주관하고 양양문화원과 양양군번영회가 후원하여 총예산 1,200만원(자체자금 600만원) 규모로 착수하였습니다. 이제 역사가 하나될 날을 앞당기고자 하는 간절한 성심과 기원에서 민간통일운동의 선도적 역군으로서 한 마음이 되었으니 강호 제현의 적극적인 성원과 정성어린 협조를 복망합니다.

1988년 6월 일

민족통일양양군협의회회장 김 진 각

(2) 유 래[碑西便刻字]

이곳은 우리나라 중동부 해안에 접한 변방으로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남북세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삼일운동 때에는 양양읍에서 불붙기 시작한지 7일째 되던 4월 9일 1,000여명의 군중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노도와 같이 일어나 적수공권 항거하다가 잔악한 일제군경의 총탄에 9명이 순국하였으니 지금도 유혈이 낭자했던 그 고개(북쪽 500m)를 “만세고개”라 부른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항복하자 미소 양국은 한반도의 북위 38° 선을 경계로 남쪽

은 미군이, 북쪽엔 소련군이 진주하여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키는데 합의하였으나 8월 하순 소련군은 현남면 시변리까지 남하하여 일시 진주하였다가 동년 9월 초순 미군이 38° 선의 정확한 지점(표석에서 남쪽 30m)을 찾아 복상하였으나 자연지세에 의한 편의상 하천을 중심으로 북쪽능선에는 소련군 초소가, 남쪽 능선에는 아군초소가 설치되어 한 마을이 불시에 양단되고 해상에서까지 남북왕래가 끊기어 혈육이 생이별하고 서로가 적대시하는 민족적인 비극이 비롯되었다. 이처럼 당초 38° 선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한 일시적 군사분계선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후 남북분단을 고정시키는 정치 경계선이 되었으며 마침내는 1950년 6·25 동족상잔의 참상을 낳고 말았다.

6·25한국전쟁 중에는 피·아간 일진일퇴의 격전장으로 폐허화 되었으며 동년 10월 1일 분단 이래 최초로 국군 3사단 23연대 3대대가 38° 선을 돌파, 북진함으로써 이날을 “국군의 날”로 제정하게 되었다. 이에 숭고한 호국의 열이 서린 이곳에 6천만 겨레가 하나될 날을 앞당기려는 간절한 염원과 성심에서 민족통일양양군협의회 “회원”이 주체가 되고 뜻을 같이하는 강호재현의 협찬으로 분단 역사와 통일의지의 산 증표로 삼고자 하여 본 표석을 세우게 되었다.

38° 선을 상징하기 위하여 “3단계”양입석을 8각의 기단 위에 3.8m의 높이로 세우고 조국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합장하는 모양의 양입석비신 위에 38° 표석을 올려놓았다. 김문기 국회의원이 “평화통일”이라는 휘호를 하고 유래는 고경재 문화원장이 작성하고 김광희 선생이 불망기와 같이 쓰고 본표석을 설계하였다.

개요

- 건립년월일 : 1988년 10월 1일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41-10
- 주관 : 민족통일 양양군협의회

회장 김진각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석동팔

위원 고경재 김준정 박창권 박춘섭 함상순

회원

김남하 김남훈 김남필 김성진 김용만 김종진 노좌현 박대식 박두현 박용길 성낙윤
신언순 이구영 장진묵 주인식 최무사 최용해 최재섭 탁봉원 한용한 함종한 홍남식

○ 시 공 : 삼척석재공예사 심재천

협찬

김문기 함승희 정수열 박찬세 이종호 서홍송 정현화 김기홍 김남호 김양일 김여수
김일권 김성도 김승호 김종화 김홍열 김흥기 마용심 박세각 방만웅 오원식 윤명도
이건향 이준영 임종혁 정범화 최규현 최돈화 최종오 한상열 한영규 함동기 함진동
허 강

집필 : 양양군지편집위원회

참고문헌

신종원,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2007.
양양군, 양주지, 1990.
「여지도서」
양양문화원, 양양의 전통석조물도감, 2008.
양양군, 강릉대학교박물관, 공저,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4.
국토지리정보원, 1/25,000지형도, 2006.

고려 태조 11년(918)에 건국한 이래로 수도를 천안에서 개성으로 옮겼고, 조선 건국 후에도 수도를 천안에서 개성으로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 천안의 많은 문화유산이 소실되었다. 특히 고려 태조 11년(918)에 건국한 이래로 수도를 천안에서 개성으로 옮겼고, 조선 건국 후에도 수도를 천안에서 개성으로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 천안의 많은 문화유산이 소실되었다. 특히 고려 태조 11년(918)에 건국한 이래로 수도를 천안에서 개성으로 옮겼고, 조선 건국 후에도 수도를 천안에서 개성으로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 천안의 많은 문화유산이 소실되었다.

Ⅲ. 고적(古蹟)

1. 태평루(太平樓)

객관문루(客館門樓)로 고려 충숙왕 2년 을묘(1315년)에 창건하였다. 그간 긴 세대를 지내오는 동안 누차의 중수(重修)를 거듭하였는데 조선 세종 21년 기미년에 송(宋) 익이 재건하고 중종 32년 정유에 윤사임(尹思任), 정광정(鄭光廷)이 중수하였다. 다시 효종 9년 무술에 부사 이연(李演)이 입주하고 한진(韓縝)이 상량(上樑)하여 영조 36년 경진(庚辰)에 부사 이헌경(李獻慶)이 완전한 중건의 공을 고하였으니 장엄하고 화려한 그 모습은 국내에선 굴지의 건물이었다고 한다. 정조 22년 춘절에 부사 유헌주(柳憲周)가 또 중수하여 누간 내외에 태평루란 대액현판이 게시되었는데 내부 것은 우암(尤庵)송시열 외부 것은 안평대군의 글씨라 하나 1921년에 소실(燒失)되고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

2. 취산루(醉山樓)

부문루(府門樓)로 영조 31년 을해에 부사 이성억(李聖億)의 창건이다. 1936년 군청사 개축시에 통원루(通遠樓) 대지에 이건하였으나 6·25한국전쟁시 소실되었다.

3. 현산루(峴山樓)

남쪽 성문루(城門樓)인데 숙종 26년 경진 부사 남치훈(南致薰)이 창건하였다. 영조 24년 무진(戊辰)에 부사 박필정(朴弼正)이 중건하고 현산정 현판 3자는 부사 채팽윤(蔡彭胤)이 쓴 것인데 현재는 없다.

4. 통원루(通遠樓)

객관(客館) 동쪽에 있었다. 뒤로는 설악산이 구름같이 솟아 있고, 앞으로는 무산(巫

山) 12봉이 감돌고 있는 그 아래 백리장강의 한수가 흐르고 있다. 부사 이맹우(李孟友)가 중수하려고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동량(棟梁)의 도괴(倒壞)로 인하여 압사자를 내었으므로 관직을 파면당하자 완전한 준공을 보지 못하였다.

5. 갑팔루(甲八樓)

영조 6년 경술에 부사 권 수(權 守)의 창건으로 장구한 세월을 지내오다가 자연 폐쇄(廢毀)되고, 그 주춧돌은 취산루(醉山樓) 건립공사에 사용하고 말았다.

6. 자심탑(慈心塔)

양양에서 서방 10리 화일리 안심암 옛터에 있다. 자심은 안심암에 있는 승려의 당호(堂號)이다. 부모에 대한 효행이 극진하여 모친 별세 후 돌을 깎아서 탑을 세웠는데 매일 같이 그 아래에서 극락세계로 가시라고 기도를 드렸으므로 자심탑이라 하여 영혈사 노승 여담이 전하여 왔다. 지금 이 탑은 강원도 경찰국에 이전되었고, 초석만이 남아 있다. 사실여부가 확연치 않다.

7. 석성(石城)

양양에서 서방 2리 임천리 뒷산 정상에 있다. 성안에는 10개의 바람 구멍이 있었는데, 이것을 철수혈(鐵叟穴)이라고도 하는데 불의에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관에서 사람을 보내어 제사를 행하면 바람이 그친다 하여 세칭 신혈(神穴)이라고 했다. 제단을 쌓고 보수한 자취가 지금도 남아 있다.

8. 충정영(忠正瀛)

해군(海君) 김기종(金起宗)의 현당(縣堂)과 묘(廟)가 있다. 1929년 그 후손이 원주로부터 양양읍 포월리에 이전해서 매년 제사를 지냈다.

9. 강선정(降仙亭)

강현면 강선리 발연봉(發連峰) 측록(側麓)에 건립하였다. 신라시대 영랑(永郎), 술랑

(述郎), 안상(安詳), 남석(南石) 등 사선(四仙)이 승지 강산을 완상(玩賞)할 당시 이 정자터에서 여러날을 유(遊)하였다. 사선이 순례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하였으나 연구(年久) 세심(歲深)한 탓으로 없어지고, 지금은 빈터만 남아 있다.

10. 도적사(道積寺)

양양읍내서 서남방 15여리 서면수리에 있었다.[정족산(鼎足山) 근처] 숙종 6년 경신에 화적(火賊)으로 인하여 화재를 당하고, 승려들은 해산하고 말았다.

11. 주전곡 주전봉(鑄錢谷 鑄錢峰)

주전골[鑄錢谷]은 오색약수골 깊숙이 들어가 골이 있다. 그 유래를 들어보면 저물어가는 조선조 어느 때 승려들이 위조 주전을 하느라고 늦그릇을 부셔서 푹푹 쇠소리를 내고 있었다. 어느 날 관찰사가 지나다가 쇠소리를 듣고 하인을 시켜 적발하였다고 한다. 당시는 동해안에 오려면 인제에서 오색령을 넘어 다녔다고 한다.

12. 용소(龍沼)

서면 용소리에 있다.(공수전과 영덕리 사이) 어느 때부터 전해 오는지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이 소(沼)는 얼마나 깊은지 명주실꾸리 한 개를 다 풀어 넣어도 모자란다는 소이다. 이 소에는 용이 살고 있었는데 이 용이 하루는 옆에 있는 암석 위에 도사렸다가 하늘로 등천하였다고 한다. 지금 소 옆에 있는 바위 위를 보면 용이 앉았다 날아갔다는 흔적이 보인다. 여름철에 가뭄이 심할 때는 면민이 이곳에 모여 기우제를 지낸다고 한다.

13. 상운정(祥雲亭)

부 남쪽 30여리 손양면 상운리 동 해변 빈(濱)상 언덕 위에 있다. 10리를 연하여 울창한 송림으로 창공을 볼 수 없었다. 백사청송(白沙靑松) 10리 사이는 잡초 하나 볼 수 없고, 다만 철쭉꽃이 봄을 자랑하며 송림그늘에 꽃뚝자리를 깔은 듯 하였다. 상운역이 폐지되자 정도 폐회(廢毀)되고 말았다.

14. 운문암(雲門庵)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의 서쪽에 있다. 수석이 극히 가려(佳麗)하므로 현수(現叟) 이공(李公)이 설악이라 호칭했고, 암호 3자는 이형익(李衡翼)의 대각(大刻)이다.

15. 장리석각(獐里石刻)

병자년 8월 대홍수시 현북면 장리동구 냇가 암벽에 노출된 것으로 그 석각에 다음과 같이 써 있다.

부연산(釜淵山)은 남북 70리 그 주회삼백리(周廻三百里)라 고시 문헌에 전하기를 본군 경내(本郡境內)에 황장금산(黃腸禁山)이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있다. 하나는 오대산 북방 부연으로부터 서면 서림리, 남쪽은 부연금산이라하고, 둘째는 서림 북쪽으로부터 천후(天吼) 미시이남(彌矢以南)을 전림금산(剪林禁山)이라 하니, 장리 석각은 부연금산의 경계로 봉인표가 되어 이 지역을 봉인둔(封印屯)이라 한다. 장리에서 부연까지는 70리, 전림금산 정계표가 서림 아래 영덕 위에 있다.

16. 비석(碑石)거리

현남면 동산에 있으며, 연대는 미상이나 조선시대에 동산현 현감이 와서 현을 잘 다스렸으므로 당시 현민들이 그를 존경하는 비를 건립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때 이곳 저곳에 산재하여 있었으나, 국도가 새로 개통됨에 따라 현재 동산과 시변리 경계지점의 한 자리에 모아 세웠으며 이곳을 비석거리라고 부르고 있다.

17. 관란정(觀瀾亭)

부(府) 남쪽 50여리 동산 고현의 동쪽 죽도의 서북 해변에 있다. 그 정에 시판이 많았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기지는 철도 정거장으로 닦여져 있다.

18. 태석(胎石)

현남면 동산리 뒤쪽에 있으며, 연대는 미상이나 왕실에서 서자의 태를 석함에 넣어서 동해에 던진 것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석함이 파도에 밀려 육지에 나와 앉은 것을 지

금도 불수 있다.

19. 부채바위

현남면 북분리 서북방으로 약 3km 거리에 차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부채바위라는 절벽의 암석이 뾰족하게 나와 있다. 그 전방에는 개울물이 아래로 흐르고 그 동방에는 1,000여평 되는 논이 있는데 미상이나 그 논에 절이 건립되었는데 이 절이 가장 융성한 시절에는 약 4km 되는 지점인 지시천(只是川), 전기한수(前記漢水) 하류 대로변에 흐르는 물에 쌀 씻은 뜬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도적이 들어와 강탈한 후 폐사(廢寺)되었다고 한다.

20. 성상(城峯)

인구 포매 건물 상월천의 경계에 위치한 높은 산봉으로, 옛날 이 곳에 성을 쌓았던 형적(形跡)이 남아 있으며, 봉화를 올린 자취도 엿볼 수 있다.

21. 관호정(觀湖亭)

현남면의 곡창이라고 이르는 임호정리에서 동해를 바라보고 넓은 들판이 옛날에는 호수였고, 그 부근에 정자가 있었다고 주민들이 말하고 있으며, 이 정자를 “관호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22. 삼성정(三姓亭)

현남면 상월천리에 3성(趙, 金, 鄭)이 건립한 정자라 하여 삼성정이라 불렀으며, 지금은 폐정되었다.

23. 양야도(陽也島)

현남면 남애리 남애항에 있는 소도봉(小島峰)으로, 이 섬에는 기우제단이 있으며 연중행사로 1년에 두 번씩 제사를 올린다. 특히 울창한 송림이 해안의 풍경을 이루어 여름 한철의 좋은 휴양지이기도 하다.

24. 광정진(廣汀鎭)

현북면 상광정리에 구허(舊墟)가 있다. 성지의 남북 길이 60간, 동서가 약 3백간, 산에는 석성을 쌓은 성지가 완전히 남아 있으며, 일찍이 여진과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던 진이다.

25. 양주성 축성(襄州城築城)

‘양주성(襄州城)’은 양양읍 군행리 현산공원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산의 맥을 따라 성 내리 쪽으로 완만하게 돌아 ‘성황사(城隍祠)’를 에워싸면서 구교리 방향으로 내려오는 형태를 살필 수 있다. 즉 동쪽과 서·북쪽을 둘러싼 반달모양의 현산을 따라 축성한 성곽으로 낮은 구릉지대였는데 남쪽 면은 남대천이 서쪽에서 동쪽의 동해로 흐르고 있어 마치 광대한 ‘해자(垓字)’를 이루고 있는 듯한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쌓았으므로 천혜의 요새라 하겠다. 설악산의 지맥인 관모봉에서 발원하는 거마천이 향교 앞으로 흘러 양주성 주령인 현산 밑 풀밑소를 굽이쳐 돌아서 동북쪽으로 마치 활처럼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양주성의 남쪽둘레를 막아주는 ‘해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양주성을 일명 현산성이라고도 하는데 현재는 양양읍성이라고도 칭하고 있다. 이 양주성의 역사는 약 천 년 전으로 그 시원이 올라가는데 우리 나라 중동부 변방의 수어기지로 북호남왜(北胡南倭)의 술한 외침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 제7대 목종 10년(1007년)에 양주성을 처음으로 축성하였으며 조선 제3대 태종 13년(1413년)에 도호부를 두면서 동헌(東軒)을 중심으로 서·남·북문을 설치하고 석성을 길이 403척, 높이 50척의 규모로 쌓고 토성을 길이 2,825척으로 쌓았으며 성안에는 2개의 우물을 시설하였다고 전한다. 이후 시대에 따라 석축성과 토축성을 보수하는 등 여러 차례의 보수와 증축이 있었음을 많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양주성은 그 시창(始創)이 고려 초반으로 올라갈 정도로 역사적이고도 희귀성을 지닌 읍성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역사성이란 이 지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뜻이다. 양양지구의 역사는 선사시대에 있어서 가장 오랜 신석기시대 유적지가 바로 양양지역에서 발견 조사되고 있는 점이다. 즉 손양면의 오산리문화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문화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후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고려, 조선시대의 문화와 역사가 면면히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상 및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도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선종(禪宗)의 근본도량』이 설치된 곳도 바로 양양땅인 것이다.

문헌에 기록된 읍성을 보면 양양읍성은 동·서·북쪽에 발달한 낮은 구릉지대를 활용해 반달모양으로 쌓는 평산성이다. 성 밖으로는 평지가 형성되어 있어 적으로 부터의 공격을 쉽게 저지할 수 있는 지형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한편 남쪽에 흐르는 남대천이 자연해자를 형성하고 있어 가히 천혜의 요새라 할 수 있다. 현존하는 읍성의 대다수가 평지에 축조되어 있음을 볼 때 이 성은 시계 확보가 유리한 낮은 구릉지대를 택하고 있어 삼국시대 이래 성곽의 축조에서 요구되었던 지형적이 여건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

이 성은 고려 목종 10년(1007년)에 축성된 양주성을 조선 태종 13년(1413년)에 도호부를 두면서 확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조선시대에 편찬된 각종 지리지에 성의 현황이 소개되어 있는바, 각각의 기록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로 집약된다.

○ 양주성의 문헌기록

문 헌	형 태	규 모	시 설 물	상 황
조선왕조실록	석성, 토성	석축: 403척(122m) 높이: 50척(15/6m)	서·남·북문 우물 2개소	
세종실록지리지	토성	1,088보(1,978m)		
신증동국여지승람	석축, 토축	석축: 403척(122m) 토축: 2,825척(856.7m)	우물 2개소	반파
동국여지지	석축, 토축	석축: 403척(122m) 토축: 2,825척(856.7m)	우물 2개소	반파
여지도서	석축, 토축	석축: 403척(122m) 높이: 5척 토축: 2,825척(856.7m)	우물 2개소	동·서·남문 유(有)
증보문헌비고	석축, 토축	석축: 403척(122m) 토축: 2,825척(856.7m) 높이: 5척	우물 2개소	금폐(今廢)
대동지지		3,228척	우물 2개소	

양주성은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 성의 규모나 현황은 기록된 바 없어 더 이상 알 수 없다. 따라서 양주성은 조선 태종 13년(1413년)의 도호부 설치를

계기로 양양의 읍성으로 승격되었고, 이때부터 정치·군사·사회 등 전반적인 면에서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읍성은 석축과 토축으로 기록되어 있어 석성과 토성이 혼합된 양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석성은 짧은 길이임에 비해 50척의 높이로 기록되어있어 이에는 성내의 중요한 시설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토성은 850여m로 기록되어 있어 석성보다는 넓은 면적을 차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세종실록지리지에만 토성으로 기록되어 있고, 길이도 다른 기록에 비해 배 이상 길게 기록되어 있다. 이는 석축과 토축을 모두 토성으로 인식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성내의 출입시설인 문지는 조선왕조실록에는 서·남·북문이 있다고 했음에 비해 여지도서에서는 동·서·남문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양 기록을 보면 서쪽과 남쪽의 문은 공통적으로 있으며, 현재 성황사 부근에 북문지가 추정되고 있음을 보아 동문의 존재만 알 수 없다. 하지만 양양의 여건상 바다로 통하는 문의 필요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에서 볼 때 당초 없었던 동문이 후에 개설되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양양시내를 관통해 동해안으로 향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본래 있었던 동문은 이 도로 개설시 파괴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모든 기록에서 우물 2개소의 존재를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규모의 양양 읍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1700년대에는 반파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18세기경에는 읍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양양읍성은 다른 읍성에 비해 석성과 토성으로 축조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읍성과는 축성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26. 낙산산성(洛山山城)

부 동방 10리 오봉산 중에 있는데 낙산사의 주위에 축석성이 연결되어 오봉산 남쪽에는 성문의 일좌(一座)가 있다.

27. 관모산민보(冠帽山民堡)

부 서북방 20여리 관모봉 정상에 있는데 어느 시대인지는 막연하나 그 기지는 완연하게 남아있다.

28. 관산민보(關山民堡)

강현면 둔전리의 후방에 있다. 고종 병신 이명규(李明奎)가 이 민보를 설축하여 부근 사람의 피난처가 되고, 망대와 저수지 등을 만들었다가 폐지되었다. 또 홍부사의 분수계가 큰 바위에 새겨져 있고, 큰 바위 비문에 저수지 기록이 적혀 있음을 발견하였다.

29. 인구민보(仁邱民堡)

동산고현(洞山古縣) 서방에 위치하여 석축 산보가 있는데 연대는 미상이다.

30. 대포영(大浦營)

부 동북방 10여리 조산리에 있다. 조선조 성종 21년 경술 강릉 안인포로부터 이영하여 수군 만호를 두었다. 중종 15년 경진에 축성 주위가 1,469척, 높이 12척이었다. 인종 4년 병인에 방어위치가 못 된다 하여 폐하였다.

31. 청심대(淸心臺)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북방에 있다. 대의 모양이 높아 험천에서 바라보면 높이가 수백장이다. 현수 이공이 청심이라 명칭하고, 시(詩)를 기재하여 주었다.

32. 동해신묘(東海神廟)

1) 역사적 배경

동해의 문화적 상징물 1호는 양양의 ‘동해신묘(東海神廟)’이다.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는 동해신묘(東海神廟)는 양주[(襄州):현재의 강원도 양양]에 있으며 고려시대부터 세워졌다고 한다. 신라시대부터 종묘사직(宗廟社稷), 악·해·독[(岳·海·瀆):산·바다·강]에 나라에서 제의(祭儀)를 베풀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명산 설악(雪嶽)에 소사(小祀)의 제(祭)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세종 지리지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편 기사에 동해신사당(東海神祠堂)은 부(府) 동쪽에 있는데, 봄·가을에 향축(香祝)을 내려 중사(中祀)로 제사지낸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오례 길례서례 변사편 기사에 대사(大祀)는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이고 중사(中祀)에 동해는 강원도 양주의 동

쪽에 있다. 무릇 제사(祭祀)의 예(禮)는 천신(天神)에게 ‘사(祀)’라 하고, 지기(地祇)에게는 ‘제(祭)’라 하고, 인귀(人鬼)에게는 ‘향(享)’이라 하고, 문선왕(文宣王)에게는 ‘석전(釋奠)’이라 한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의 기록에는 동해를 지키고 다스리는 동해묘를 강원도 양양땅에, 서해를 지키고 다스리는 서해단(西海壇)을 황해도 풍천에, 남해를 다스리고 지키는 남해신사(南海神祠)를 전라남도 나주에 각각 모셨다. 그리고 북쪽에는 바다가 없어 해신을 모시는 대신 강(江)의 신을 모셨으니 강신을 봉사한 사당으로는 북동편은 함경북도 경원에 두만강신사(豆滿江神祠)를, 북서편에는 평안북도 의주에 압록강사(鴨綠江祠)를 모셨음을 알 수 있다.

동해신묘(東海神廟)는 그 건립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사』3 권3세가권3에는 고려 제6대 성종 10년(991년) 윤 2월 3일 왕은 처음으로 사직단(社稷壇)을 설치하도록 하고하시고, 마침 이를 창립하려하니 공들은 땅을 가려 설치하도록 하라 명하였다.[閏月癸酉始立社稷教日方將創立其令群公擇地置壇(윤월계유시립사직교왈방장창립기령군공택지치단)]또 『고려사』7 권11세가권11에는 고려 제15대 숙종 3년(1098년) 4월 21일 다섯 해신에 기우제를 지냈다.[己亥祈雨于五海神(기해기우오해신)] 『고려사』33 권54지권8에는 고려 제15대 숙종 7년(1102년) 6월 20일 재상에게 명하여 오방의 산과 세 곳의 해신(海神)에게 제사하게 하였다.[六月丙戌命宰相分祀五方山海神君於三所(육월병술명재상분사오방산해신군어삼소)]라는 기록으로 볼 때 고려 제6대 성종 10년(991년)~고려 제15대 숙종 7년(1102년)사이에 동해신묘를 건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사』36 권58지권12의 동계 익령현(東界 翼嶺縣)기록에는 “원종(元宗) 원년(1260년)에 다시 승격하여 양주(襄州)로 읍호하고 지양주사(知襄州事)를 두었는데 별호(別號)는 양산(襄山)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에는 ‘동해신사(東海神祠)’가 있다[元宗元年陞知襄州事別號襄山有東海神祠(원종원년승지양주사별호양산유동해신사)]”라는 기록으로 볼 때 고려시대부터 이미 양양에 동해신묘가 존속(存續)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지도서』 강원도 양양군 단묘(壇廟)편에 동해묘는 양양읍 동쪽 10리 바닷가에 있다. 정전 6칸, 신문 3칸, 전사청 2칸, 동·서재 각 2칸, 백천문 1칸이다. 삼해(三海)의 해신(海神)에게는 국태민안(國泰民安)과 풍농·풍어를 기원했으며 매년 치제(致祭)시키는 세수(歲首)에 별제(別祭) 그리고 춘추(2월, 8월)로 상제(常祭)를 올렸는데 왕이 친히

향과 축문을 보냈다고 한다. 『대동지지(大東地志)』의 기록에는 “강원도 양양군 단유(壇墪)편에 양양군 동쪽 13리에 있는 동해신묘에서 고려(高麗) 때부터 중사(中祀)로 받아들여 왔으며 그 전고(典故: 전례와 고사를 아울러 이르는 말)에 의하여 조선에서도 그대로 따랐다”는 기록으로 보아 동해신묘의 중사(中祀)는 고려시대로 올라간다.

2) 동해신묘의 중수(重修)

조선 경종 2년(1722년)과 영조 28년(1752년)에 양양 부사 채팽윤(蔡彭胤)과 이성억(李聖億)에 의하여 각각 중수되었으며, 정조 24년(1800년) 4월 7일(기축) 1번째 기사에 양양(襄陽)의 낙산진(洛山津)에 있는 동해신묘(東海神廟)는 제향을 드리는 예법이 나라의 법전에 실려 있으니 이곳을 어느 정도로 중시했던가를 알 수 있다. 어사 권준의 상소(上疏)에 대해 전교(傳敎: 임금의 명령)를 내리니 강원관찰사 남공철(南公轍)의 주장으로 동해신묘를 중수(重修)하고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襄陽東海神廟重修紀事碑)를 세웠다. 그 후 철종 원년(1850년) 부사 홍운모(洪運謨), 광무 4년(1900년) 부사 이구영(李龜榮)에 의하여 중수(重修)했다고 양양읍지에 기록되었다.

3) 동해신묘의 훼손(毀撤)과 복원(復元)

순종 2년(1908년)에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하여 일제 통감부 훈령으로 1908년 12월 26일 양양군수 최종낙(崔鍾洛)이 동해신묘를 훼손(毀撤)하였다. 구전에 의하면 최종낙 군수는 동해신묘 훼손(毀撤): 헐어서 치워버림 후 3일 만에 급사하였다고 한다. 1993년부터 복원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정전1동이 건립되었으며 정전의 북·서쪽에 두 토막이 났던 동해신묘중수기사비(東海神廟重修記事碑)를 복원(復元)하여 세워 놓았다. 2000년 1월 22일 동해신묘지(東海神廟址)와 남공철의 중수비는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 73호로 지정되어 양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4) 동해신묘의 제례(祭禮)

조선 태종 14년(1414년) 8월 21일(신유) 2번째 기사에 악·해·독은 중사(中祀)로 하는데 전조(前朝):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따른다. 악해독(嶽海瀆)은 중사로, 산천은 소

사로 하니 양양의 동해, 나주의 남해, 풍천의 서해는 모두 중사이다. 세종 19년(1437년) 3월 13일 (계묘) 2번째 기사에 나라에서 행하는 강원도 양양의 동해는 중사(中祀)이고 사묘(祠廟)의 위판(位版)은 동해지신(東海之神)이라 쓴다. 세조 12년(1466년) 윤3월 10일(신사) 1번째 기사에 동해의 신에게 제사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세조께서 동해 신묘에 제사하도록 명하여 제를 올리고 난 후 3일 후인 윤3월 13일(甲申) 낙산사에 거동[舉動]하셨다. 또한 중종 11년(1516년) 4월 17일(戊辰) 2번째 기사에 나라에 가뭄이 심하여 강향사(降香使)를 내려보내 팔도의 악해독(양양의 동해)의 신에게 비를 빌게 하였다는 기록이 왕조실록에 있다.

효종 10년(1659년) 4월 18일(무신), 효종 10년 4월 19일(기유) 원본 156책의 기사에 양일간 효종께서는 동해신묘의 위판을 개조하고 제의와 거행시의 예를 숙의 하고 유신의 의정을 따르도록 전교하시였다. 또 영조 18년(1742년) 1월 20일(경진) 원본 940책의 기사에 영조께서 양양에 있는 동



동해신묘 찬실도

해신묘에 향축을 내려 보내 풍농을 빌도록 예조에 전교하시였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권 61 오례의(五禮儀)는 이르기를 악해독(嶽海瀆)의 신좌(神座)는 남향으로 북쪽에 모신다. 정월에는 원장제(元壯祭), 2월 8월은 상제(常祭)로서 제사한다. 축문에는 국왕(國王)의 성명을 쓴다. 헌관은 정삼품(正三品) 지방수령이 맡는다. 제물은 찬(饌) 실(實) 준뢰(樽醴) 시(豕)로하며 변두(邊豆) 1, 보귀(簠簋) 1, 시조(豕俎) 1, 작(爵) 1을 쓴다. 폐백은 오방색(五方色)을 쓰되 원장제에는 쓰지 않는다. 음복수조(飲福受胙)는 하지 않는다.

『세종실록』오례(五禮)를 보면 동해신묘 축문(양주읍지 1800년경기록)과 행례(홀기)는 다음과 같이 하고 축판은 소나무로 하되 규격은 가로 8촌(寸) 세로 1척(尺) 2촌(寸) 두께 6분(分)으로 하고, 폐백(幣帛)은 저포(苧布)를 사용한다. 길이는 1장(丈) 8척(尺) 지금의 포백척 11척(尺)5촌(寸)2분(分), 색깔은 청(靑)색으로 한다. 라 기록되어 있다. 현재의 제의(祭儀)는 매년 1월 1일에 새해맞이 할 때와 해변개장 때에 양양군수가 헌관이 되어 동해신묘에서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제를 올리고 있다.

다 음

◎ 祝文

別祭祝文[香祝幣自禮曹奉]

[御諱前期下來而親行樣]

東海之神伏以氣畜淵深五行伊始功弘灌溉萬物以成庶諒祈告之誠俾垂豐穰之慶無任謹禱之至

常祭祝文[香祝幣自禮曹奉]

[御諱前期下來而謹遣臣]

東海之神伏以百谷之王德著廣利享祀是宜永介多祉謹以牲幣醴齊梁盛庶品式陳明薦尚 饗

별제축문[향축폐자례조봉]

[어휘전기하레이친행양]

동해지신복이기축연심오행이시공홍관개만물이성서량기고지성비수풍양지경무임근주지

상제축문[향축폐자례조봉]

[어휘전기하레이근견신]

동해지신복이백곡지왕덕저광리향사시의영개다지근이생폐예제량성서품식진명천상 향

◎ 行禮

東海神廟笏記[< >안은 읽지 않는다.]

掌饌者入，實饌具畢，執事者服其服升，設神位版於座。

贊禮者引獻官升自南陞，點視陳設訖，還出。諸祭官各服其服。贊唱者贊禮者入自東門，先就壇南拜位，北向西上四拜訖，各就位。贊禮者引祭官以下，俱就東門外位。贊禮者引祝及執事者，入就壇南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祝以下皆四拜，詣盥洗位盥洗訖，各就位。執事者詣爵洗位，洗爵拭爵，置於尊所坩上。贊禮者引獻官入就位，獻官四拜。贊禮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在位者皆再拜。

○行奠幣禮。贊禮者引獻官詣盥洗位北向立，贊搃笏盥手脫手，<盥手脫手不贊>贊執笏，引詣壇升自南陞，詣神位前北向立，贊禮者贊跪搃笏，執事者一人捧香合，執事者一人捧香爐，贊禮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神位前。祝以幣授獻官，獻官執幣獻幣，以幣授祝，奠于神位前。<捧香授幣，皆在獻官之右；奠爐奠幣，皆在獻官之左。授爵奠爵，準此>贊禮者贊執笏俛伏興，引降復位。

○行初獻禮。贊禮者引獻官升自南陛，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冪酌醴齊，執事者以爵受酒。贊禮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撝笏，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贊禮者贊執笏，俛伏興少退北向跪。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贊禮者贊俛伏興，引降復位。

○行亞獻禮。贊禮者引獻官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冪酌盞齊，執事者以爵受酒。贊禮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撝笏，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贊禮者贊執笏俛伏興，引降復位。

○行終獻禮。贊禮者引獻官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冪酌盞齊，執事者以爵受酒。贊禮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撝笏，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贊禮者贊執笏俛伏興，引降復位。

○徹籩豆。祝進徹籩豆。〈徹者，籩豆各一，少移於故處〉獻官四拜。

○望座。獻官拜訖，祝以幣沈於海濱。贊禮者進獻官之左白禮畢，遂引獻官出。贊唱者還本位，贊禮者引祝以下就壇南拜位。立定，祝以下皆四拜，贊禮者以次引出。贊唱者贊禮者就壇南拜位，四拜而出。執事者藏神位版，徹禮饌以降乃退。

◎ 행례

동해신묘홀기[< >안은 읽지 않는다.]

장찬자입, 실찬구필, 집사자복기복승, 설신위판어좌. 찬례자인헌관승자남폐, 점시킨설홀, 환출. 제제관각복기복. 찬창자찬례자입자동문, 선취단남배위, 북향서상사배홀, 각취위. 찬례자인제관이하, 구취동문외위. 찬례자인축급집사자, 입취단남배위, 중행북향서상. 립정, 축이하개사배, 예관세위관세홀, 각취위. 집사자예작세위, 세작식작, 치어존소점상. 찬례자인헌관입취위, 헌관사배. 찬례자진헌관지좌백: “유사근구, 청행사.” 재위자개재배.

○행전폐례. 찬례자인헌관예관세위북향립, 찬진홀관수세수, <관수세수불찬> 찬집홀, 인예단승자남폐, 예신위전북향립, 찬례자찬쾌진홀, 집사자일인봉향합, 집사자일인봉향로, 찬례자찬삼상향, 집사자전로우신위전. 축이폐수헌관, 헌관집폐헌폐, 이폐수축, 전우신위전. <봉향수폐, 개재헌관지우; 전로전폐, 개재헌관지좌. 수작전작, 준차> 찬례자찬집홀면북향, 인강부위.

○행초헌례. 찬례자인헌관승자남폐, 예존소서향립, 집존자거먹작례제, 집사자이작수주. 찬례자인헌관예신위전북향립, 찬쾌진홀, 집사자이작수헌관, 헌관집작헌작, 이작수집사자, 전우신위전, 찬례자찬집홀, 면북향소퇴북향례. 축진신위지우, 동향폐독축문홀, 찬례자찬면북향, 인강부위.

○행아헌례. 찬례자인헌관예존소서향립, 집존자거먹작앙제, 집사자이작수주. 찬례자인헌관예신위전북향립, 찬쾌진홀, 집사자이작수헌관, 헌관집작헌작, 이작수집사자, 전우신위전, 찬례자찬집홀면북향, 인강부위.

○행종헌례. 찬례자인헌관예존소서향립, 집존자거먹작앙제, 집사자이작수주. 찬례자인헌관예신위전복향립, 찬례진홀, 집사자이작수헌관, 헌관집작헌작, 이작수집사자, 전우신위전, 찬례자찬집홀면복홍, 인강부위.

○철변두. 축진철변두. <철자, 변두각일, 소이어고쳐> 헌관사배.

○망예. 헌관배홀, 축이폐침어해독 찬례자진헌관지좌백례필, 수인헌관출. 찬창자환본위, 찬례자인축이하취단남배위. 립정, 축이하개사배, 찬례자이차인출. 찬창자찬례자취단남배위, 사배이출. 집사자장신위판, 철례찬이강내퇴.

5) 동해신묘중수기사비 국역

襄陽東海神廟重修紀事碑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

江原道觀察使 南公轍 撰

강원도관찰사 남공철撰

海與王公同位望沈之祭報其德也易說卦曰潤萬物者莫盛於水水之爲言演也故其立字兩人交一以中出
 海王公同位望沈之祭報其德也易說卦曰潤萬物者莫盛於水水之爲言演也故其立字兩人交一以中出
 者爲水一者數之始兩人譬男女言陰陽交物以一起也周祭四坎驚蟄因郊而祭立夏因迎氣而祭白露因雩
 而祭大寒因蜡而祭歲凡四祭玉兩珪有邸五寸牲用少牢幣視方色王及尸皆服毳冕樂奏蕤賓歌函鍾舞大
 夏用五獻盎齊是朝踐之獻也清酒是饋食之獻也後世又加王爵東海曰廣德王西海曰廣潤王南海曰廣利
 王北海曰廣澤王禮諸侯得祀方內嶽瀆我國亦有東海神廟在襄陽府治東十里 聖上二十四年御使權濬
 言臣行郡縣見東海神廟齋舍牆垣多頽廢宜修治民家之入居近廟者一並撤去毋使雞犬相聞孰嚴於嶽瀆
 之祀而四方之以水旱疾苦祈禱者聚焉甚非所以致崇極之道請著爲式以禁 敎曰可 命觀察使主其事臣
 公轍適按關東謹依禮部知委舉行事訖驛 聞香祝自京師至以峻差獻官而祀之噫疾痛必呼人之情也民
 之視海神如父母不獲者祈禱焉固宜然祀有其常祀彼愚夫愚婦之執金帛而來者將以求媚于神而徼福禮
 滋益慢則屑孰甚焉 朝廷之禁之乃尊神之至而導民於正也一舉而兩得矣遂述其事刻石俾解其惑至於
 廟宇之隨時修補者有有司存 銘曰
 有宮奕奕有牆翼翼瀟瀟靜嘉維珪及帛於祭灑掃肄筵設几神具醉飽神既安止御史自東歸奏于王嶽瀆有
 祀曰沈曰望崇蚩者氓凡有攸求握粟擲錢久爲神羞禮滋益慢神顧不歎王命方伯其始自今敕其府吏祇存
 常祀酒宣祝冊酒命御史不顯我王以禮事神導率之正爰及衆民民皆稽首神宜酬惠酬之維何惠茲東裔衆
 有魚矣多黍多稻既富而庶黃髮壽考維萬億年海晏河清維萬有衆偕我太平

崇禎紀元後庚申閏四月 日立

중경기원후경신윤사월 일립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襄陽東海神廟重修紀事碑)

강원도관찰사 남공철 지음

바다는 왕과 같이 귀한 자리에 모시고, 그 덕을 알리고자 안정을 바라면서 제사를 올린다. 주역의 괘에 이르기를 ‘만물이 은혜 입어 윤택하여지는 것은 물로서 더할 나위 없이 성하여지며 물에 의해 윤택하여 진다’고 말한다. 옛것을 글자로서 후세에 전하고자,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잠시 사귀고 물을 위하자는 가운데 비로소 한사람의 꾀로서 남녀 두 사람을 비유하니 음양의 교합으로 모든 것이 생겨난다. 옛 주나라 제도 사감(四坎)에는 경칩절에 들제사, 입하절에 기를 맞는 제사, 백로절에 하늘에 제사, 대한절에 선달 납제라. 한해에 보통 사제(四祭)를 지내니 옥으로 된 두 쪽의 오촌(五寸)의 병풍을 두르고 소뢰(少牢=어린 소, 양, 돼지)의 희생을 쓰고, 오방색 폐백에 위폐는 왕에 미치며 모두 관복을 입고, 유빈(躡賓=12월의 하나)의 주악을 연주하며 대하(大夏=하나라 우왕이 제정한 무악)의 노래와 춤으로 오헌(五獻)을 드린다. 물동이를 정결히 아침에 차려놓고 청주와 제물을 올린다.

후세에 또 왕의 작위를 더하니, 동해는 광덕왕, 서해는 광윤왕, 남해는 광리왕, 북해는 광택왕이라 예우하고 경의를 표하고, 제후로 하여금 나라 안 큰 산 큰 강에 제를 올린다. 우리나라의 동해신묘는 양양부 동쪽 십리에 설치하고 다스리는데, 정조 24년(1800년) 어사 권준(權駿)이 군과 현을 순찰하고 이르되 동해신묘를 보니 사당과 담장이 많이 퇴폐하여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 민가가 사당 가까이 들어 와 있으니 한꺼번에 철거하고 담 개소리 들리지 않게 하고 엄숙한 산과 강의 제사에 사방에서 수재 한재 고통으로 기도하러 모인 것을 심히 나무라고 극진한 예로서 치제하게 하는 금령(禁令)으로써 법식을 내려주시기를 청하니 관찰사가 그 일을 주관하라 가히 교령을 내려 명하심에 신 남공철(南公轍)이 관동을 살피고서 삼가 예부에 일할 것을 자세히 알리고 나서 거행했으며 일을 다 마친 다음 역관(驛館)에 알렸다.

향축은 궁성에서 보내오고, 권준(權駿)을 차출하여 헌관으로 제사했다. 아! 질병으로 말미암았으니 슬프다 함은 사람으로서의 정이로다. 백성이 바다의 신을 보기를 부모와 같이 본다. 기도를 윤택하지 않았으나 항상 옳다하며 제사한다. 상사(常祀=정하여진 제사)로서 제사를 올리니, 저 어리석은 남녀는 황금과 비단을 가지고 와 장차 신으로부터 복을 구하고 아름다움을 구하고자하니 예는 더욱 불어 넘치며 누군들 심히 꾀지 않으리.

조정에서 금하게 하는 것은 이에 신(神)을 지극히 존숭하고 백성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니 일거양득이다. 드디어 그 일들을 돌에 새기어 기술(記述)하니 그 미혹한 것을 해명하게 되었다. 지극히 사당을 수시 수보(修補)하게하고 관리를 두어 보존하게 하고서 글을 새겨 이르노라.

사당은 크고 아름답고 담장은 곱게 꾸며졌네.
제기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규획은 비단같은 옥이로다.
먼지 씻어내어 환하게 되었으니 드디어 자리에 안석을 설치했네.
신께선 흐뭇하게 드시고 신께선 이미 편안하시네.
어사는 동해를 순시하고 임금께 돌아와 아뢰었네.
산과 강에 제사하니 소망 대로 조용하네.

어리석은 백성들 넉넉하게 구하네.
버린 돈과 곡식을 거두고 오랜 세월 신에게 드리네.
예가 지나치게 불어 넘치면 신은 돌보고 흠향하지 않네.
국왕이 방백에게 명하여 지금부터 일을 시작했네.
책서를 부사에 내리니 크게 상사를 이어가네.
이에 축첩을 알리고 이에 어사에 명했네.

국왕이 크게 밝히니 예로서 신을 섬기네.
이끌고 거느림이 바르니 이로서 백성에게 미치네.
백성 모두 큰절 올리니 신은 응당 은혜 베풀네.
무엇으로 보답 하오리까 우리들 백성의 은혜로다.
물고기 무리지고 곡식이 넉넉하네.
넉넉하고 풍성하니 늙은이들 장수하네.
오로지 억만년 이어서 바다와 물이 청안하네.
수많은 백성들은 모두가 태평하리.

정조 24년(1800년) 윤 4월 일 세움
〈2010年 4月 12日 又泉 李鍾寓 삼가 번역하다.〉

7) 양양향토지기록 중 동해신묘와 관련된 오해(誤解)와 해소(解消)

〈양주지[1990년발행] 잘못된 기록〉

40. 東海神廟

海廟의 확실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사기를 참고하면, 1360년(고려 恭愍王代)로 추정한다. 본래는 江陵 安仁浦에 있었는데, 1490년(成宗 21년 庚戌)에 水軍萬戶營이 현 襄陽邑 造山里에 移建하였다는 說이 전해지고 있으며 매년 2월과 8월에 제사를 지내는데, 關羽(관雲長)의 神位에 분향을 하고, 모든 山川에 제사를 지내며, 一切의 禮法이 중국 明나라 廣德王 예법을 따라 행하였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해소〉

- ▶ 고려사에 동해신묘의 창건 년대는 고려 숙종 7년(1102년)이전으로 추정함.
- ▶ 동해신묘의 창건된 땅은 양양이며 옮겨가거나 옮겨온 사실이 없다.
- ▶ 수군만호영을 따라 다니지 않으며 양양의 동해신묘는 나라의 단묘(壇廟)이다.
- ▶ 동해신묘의 신위는 동해의 신으로 봉하고 나라의 사전(祀典)을 준행(遵行)한다.
- ▶ 관운장에 분향하거나 중국 명나라 광덕왕 예법을 따르지 않는다.
- ▶ 제례에 관하여는 문헌비고(文獻備考) 등 오례의(五禮儀)를 상고하여 전통을 살려 이어가야 한다.

33. 여단(厲壇)

북방 2km 지점(현 양양읍 청곡1리)에 있으며 제무사(祭無祀) 횡사자(橫死者)15, 전사자, 조구타망자(遭毆打亡者), 조수화망자(遭水火亡者), 우도적망자(遇盜賊亡者), 기한질역자(飢寒疾疫者), 죄형졸망자(罪刑碎亡者), 축첩창명(蓄妾瘡命)한자 등을 제사하던 곳이다. 융희 무신(1908년) 군수 최종락이 11월 29일 그 신위를 소각하고 단을 폐하였다.

34. 태봉(胎峰)

강현면 물치리에서 서방 약 6km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선 성종 때에 왕자수정(王子壽貞)의 태(胎)를 봉안 한 곳이라 하여 태봉산이라 불리 왔는데 현재는 폐허가 되었다.

35. 수산(水山) 봉수대

동방 6km 지점 쌍호 동쪽에 석축으로 층대를 쌓았다. 그 석축대 아래 기암괴석으로 된 굴이 있는데 이름하여 수산굴이라 했다. 또한 전망도 좋아 남으로는 초진산(草津山), 북으로는 덕산[외옹치]을 바라볼 수 있다.

36. 초진산(草津山) 봉수대

남방 16km 지점 하조대 바로 옆에 있다. 석축으로 된 봉수대로서 남쪽으로는 양야산, 북쪽으로는 수산봉수대를 바라볼 수 있다.

37. 양야산(陽野山) 봉수대

남방 20km 현남면 해안가 높은 봉에 있다. 동으로 남해항 양야도를 앞으로 하고 북으로는 초진산에 응하고 남으로는 강릉 주문산을 응한다.

38. 성황사(城隍祠)

고려 목종 10년(1007년) 현 양양읍 성내리를 중심으로 하고 현산을 주맥으로 하여 양주성[일명 : 峴山城 또는 襄陽邑城]을 축성하여 외적의 침입을 막는 기지로 삼고 현 성황당에 인접한 남쪽 고지에 성황사를 짓고 부사 또는 현감을 제주로 순국영령(殉國英靈)을 위무하고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성황제를 매년 봄, 가을로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조선 선조 25년) 이후부터는 매년 5월 5일 단오절을 기하여 장군성황신(將軍城隍神)을 수호신으로 제주는 부사로 성황제를 올리고 순국영령을 위무하는 곳을 성대하게 하였다. 고을 부사로 처음 부임할 때에는 반드시 고치물(현 서문리 양지마을 샘물)을 마시고 성황사를 참배하고 성황제의 제수를 만들 때에도 고치물로 사용하였으며, 고치물 샘터에는 항상 경비병 2명이 지키며 인근에는 행상까지 못 다니게 하며 부정을 막았다고 구전으로 전하고 있다. 1908년에는 일제의 전통문화 말살정책에 의한 훈령으로 철폐되었다가, 1919년 기미독립만세운동 후 일제의 유화정책(柔和政策)으로 3간을 복원하여, 매년 5월 5일 단오제 때에는 성황제에 이어 남대천변에서 별신굿을 5, 6일씩 하여 성대한 제전으로 발전하는 모태가 되었다.

1945년 8·15광복이 되면서 불행하게도 38°선 이북의 공산치하에 있게 되면서 미신타파라 하여 강제로 중지시켰으나 성황제는 계속 소규모로 은밀하게 지내오다가, 1950년 6·25한국전쟁으로 파괴된 것을 1968년 김종호 국회의원이 일금 십만원을 희사하고 당시 군수가 목재를 주선하였으며 주민들의 성미를 보태서 새로 건립하였던 것을 1990년 제12회 현산문화제를 기하여 군에서 새로이 중건하였다. 이곳에는 우리 고장의 수호신인 현산성황대신(峴山城隍大神)과 화재를 막아주는 용신(龍神)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으며 매년 정월에는 양양읍내 10여 개 마을에서 길일을 택하여 각각 전래의식(傳來儀式)에 의한 제(祭)를 올리고 5월 5일에는 단오제를 지내고 굿을 성대하게 하여 옛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1979년부터 양양현산문화제가 개최되면서 서제를 성황제(城隍祭)로 매년 군수가 제주로 국태민안과 풍년 그리고 향토의 번영발전을 기원하는 제향(祭享)을 올리고 있다.

옛부터 고을의 성읍이나 마을마다 사당을 짓거나 또는 큰 고목을 서낭당으로 정하고 매년 정월에 길일을 택하여 성황리사토지 삼신(城隍里社土地 三神)에게 주민의 안녕과 고을이나 마을의 번영 그리고 풍농, 풍어, 제액 등 양재(穰災)를 기원하는 제사로 고을에서는 관에서 지내고 마을에서는 마을제로 지내고 있다.

집필 : 양양군지편집위원회

참고문헌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증보문헌비고」
 양양군, 양주지, 1990.



V. 금석문

1. 개관

금석문(金石文)은 금속이나 돌로 만든 각종 유물에 있는 명문(銘文)을 일컫는 것으로 재료와 내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재료에 따라 금석문은 금문(金文)과 석문(石文)으로 나뉘어진다. 금문은 금속제의 용기·악기·무기·화폐·인장(印章)·경감(鏡鑑)·조상(造像)·범종(梵鐘)·도량형 등에 주출(鑄出)되었거나 새겨진 문자이다. 석문은 석제의 비(碑)·묘지(墓誌)·조상 등에 새겨진 문자이다. 금문은 중국의 옛 동기(銅器)에서 볼 수 있는 명문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서양에서는 그리스의 비문(碑文)과 묘지명(墓誌銘)이 유명하다. 그러나 동양에서도 석고(石鼓)나 진(秦)나라 각석(刻石)을 비롯하여 역대의 비문·묘지명·조상비(造像碑) 등에 걸친 석문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금석문은 그 출처나 전해 내려오는 사정이 분명한 것일수록 가치가 크다. 이는 정확한 문헌이 많지 못한 고대사의 해명에 기여하며, 때로는 문헌상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기도 한다. 우리 군에도 많은 금석문이 보존되어 있는데, 자료로는 『애향의 등불』(내 고장의 비, 양양문화원),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1994년, 강릉대학교 박물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의 전통 석조물 도감』(2008년, 양양문화원) 등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내용에 따른 분류는 출처마다 기준이 다양하고 상이함으로 양양군지에서는 양양군의 금석문을 중심으로 선정비와 홍학비, 그리고 기념비로 분류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 선정비(善政碑)

1) 부사권진선정비(府使權縉善政碑)

권진은 조선 광해군 때의 문신으로 현(峴)의 아들로 태어나 1597년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수원부사와 함경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한성판윤에 올랐다. 1610년 2월부터 헌부(憲府)의 계(啓)로 파직되는 1611년 5월까지 양양부사로 재직중 혹정(酷政)을 하였기에 부민이 먼저 선정비를



선정비배치현황(현산공원)

를 건립하여 그의 뜻을 전환시키려고 하였더니 부사께서는 이 비석을 본 후 과연 일기호전(一機好戰)하여 청렴관후(清廉寬厚)하여져서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유도술로써 이루어진 이 비는 참으로 선정비가 되었다고 한다. 1623년에는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승차하였으나, 인조반정(仁祖反正)에 연루되어 양산에 유배 후 이듬해 참형당하였다. 비(碑)는 비갓이 없어 둥글게 마감된 것이 특징이며 현재 현산공원에 위치해 있다.

2) 부사유공항선정비(府使柳公恒善政碑)

1633년 5월에 부임하여 1635년에 고만(考滿)으로 이임한 부사 유항의 선정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선정비를 세웠다. 현재 선정비는 현산공원의 선정비군지(善政碑群址)에 있으며 연화문의 비갓이 특색이다.

3) 부사강공호청덕선정영세불망비(府使姜公鎬淸德善政永世不忘碑)

강호청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조선 효종 때의 문신이다. 1642년 문과에 급제하여 내외직을 역임하였다. 1655년 장영헌납(掌令獻納)을 거쳐 1657년에 세자시강원필선(世子侍講院弼善)에 승차하였다. 1660년 8월에 양양부사로 부임되고, 1664년 정월에 장령(掌令)에 제수되었다. 1668년 승지(承旨)에 오르고, 1669년에는 강원도의 각 지역이 강등되었을 때 원양도(原襄道) 관찰사(觀察使)에 제수되었다. 이때의 선정을 기리기 위

해 비(碑)를 세웠으며, 연화문의 비갓이 특징이며 현산공원에 위치해 있다.

4) 현감한공명상청덕선영세불망비(縣監韓公命相淸德善政永世不忘碑)

한명상은 1691년 양양부사(襄陽府使)로 부임하여 1692년 공주목사(公州牧使)로 제수되면서 이임하였다. 숙종 신미(辛未)년에 부임한 이래 선정(善政)을 펼쳐 이에 현(縣)의 백성들이 선정비를 세웠으며, 현재 선정비는 현산공원의 선정비군지(善政碑群址)에 있으며, 구름무늬 비갓이 있다.

5) 부사양공중하애민선정비(府使梁公重廈愛民善政碑)

양중하는 숙종 때인 임오년(1702년) 6월 양양부사(襄陽府使)로 부임하여 1705년 2월에 사임하였다. 재임기간 중 선정(善政)을 펼친 것에 감사한 관민들이 선정비를 세웠다. 현재 선정비는 현산공원의 선정비군지(善政碑群址)에 위치해 있으며, 비갓이 없이 둥글게 마무리 지은 것이 특징이다.

6) 부사채공팽윤선정비(府使蔡公彭胤善政碑)

채팽윤은 1722년 2월 양양부사로 부임하고 1724년 11월에 승지(承旨)로 승차하였다. 재임기간 동안 정사(政事)에 탁월하고 문교(文教)를 진흥시켜 매년 호시절(好時節)에 청년을 동반하여 학사(學舍)나 관루(官樓) 같은 곳에서 글을 짓고 대제사(大堤詞)를 작곡하였으며 문형(文衡)으로까지 칭송되었다. 동해묘(東海廟)를 중수하고 백천문(百川門) 및 현산정(峴山亭) 현판을 썼다. 선정비는 정조 연간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며, 상지이십사계미중건(上之二十四癸未重建)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순조 24년(1823)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1989년 4월 12일 당시 양양읍사무소 정원에서 발굴되었으며 현재의 위치인 현산공원으로 이전되어 선정비군지(善政碑群址)의 우측에 보존되어 있다.

7) 부사정공필동진기견역선정비(府使鄭公必東賑飢蠲役善政碑)

정필동은 숙종 32년(1706년) 3월에 부임하여 동왕 33년에 사직하였다. 부임 이래 풍속을 교화하고 기근을 구휼하였으며 부역을 감소시켜 민폐를 근절하는 선정을 베풀어

이에 선정비를 세웠다.

현재 선정비는 현산공원의 선정비군지(善政碑群址)에 보존되고 있다.

8) 부사정공기풍선정비(府使鄭公基豐善政碑)

정기풍은 현종 14년(1848년)에 부임하여 철종 1년(1850년) 6월에 병조(兵曹)에 승차한 사람이다. 현재 선정비는 현산공원 선정비군지(善政碑群址)에 위치해 있으며, 구름 모양의 비갓이 특징이다. 비문의 훼손이 심하여 그의 공적(功績)을 알아보기 어렵다.

9) 부사김공연청덕선진불망비(府使金公演淸德善賑不忘碑)

김연청은 숙종 23년(1697년) 2월에 부임하여 다음해 5월에 사임하였다. 재임 동안 향교를 면옥치(綿玉峙 : 현 양양군 면옥치리)로 이전할 것을 상신하여 허락을 받기도 했으며, 부임 이래 영세민을 구제하고 장학에 힘썼던 바 이에 숙종 26년(1700년)에 선정비를 세웠으며 현재 현산공원의 선정비군지(善政碑群址)에 위치해 있다.

10) 감사유득일영세불망비(監司俞公得一永世不忘碑)

감사 유득일은 영조 33년(1757년)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같은 해 사임하였다. 현산공원의 선정비군지(善政碑群址)에 위치해 있으나 비(碑)의 마모가 심하여 그의 업적을 확인 할 수 없다.

11) 관찰사강공선선진견역영세불망비(觀察使姜公銑善賑蠲役永世不忘碑)

관찰사 강선은 영조 41년(1765년) 4월 도승지에서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였고 다음해 4월 다시 도승지로 이임하였다. 재임 동안 빈민의 구휼과 부역 감소에 노력한 바 이에 선정비를 세웠다. 현재 선정비는 현산공원의 선정비군지(善政碑群址)에 위치해 있다.

12) 부사이공광식영세불망비(府使李公光植永世不忘碑)

이광식은 정조 7년(1783년)에 진사, 순조 3년(1803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병조좌랑(兵曹佐郎)과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및 이조좌랑(吏曹佐郎)을 역임하고 동왕 8년

(1808년)에 양양부사로 임명되었다. 이후 사헌부 헌납(獻納)을 역임하고, 이조참판(吏曹參判) 및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 벼슬을 하였다. 신중한 언행으로 원만한 행정을 펼치고 선정을 베풀어 이에 선정비를 세웠다. 현산공원 선정비 중에서 유일하게 양각된 철비(鐵碑)이다.

13) 군수겸사령관조공관현불망비(郡守兼司令官趙公觀顯不忘碑)

군수 조관현은 건양(建陽) 1년(1896년) 6월에 부임하여 광무(光武) 4년(1900년)에 퇴임하였다. 재임기간 중 토비중대장(討匪中隊長)을 겸임하면서 의병을 진압하였다. 기념비는 현재 선정비를 모아 놓은 현산공원에 위치해 있으나 비신의 반이 묻혀 비문을 확인할 수 없었다.

14) 도호부사임후목청덕선정비(都護府使林候穆清德善政碑)

세종 15년 계축(1433년) 윤 8월 2일 세종께서 임목(林穆)을 친히 불러 명하기를 “도내(道內)가 근년에 흉년이 들어 백성의 생계가 염려되니 은혜를 베풀고 구제해 주기에 마음을 극진히 하여 굶주리는 백성이 없게 하고, 또 형벌하는 일을 삼가 행하라”하심에 임지(양양도호부)에서 명을 어기지 않고 베풀었으므로 선정비를 세웠으며 현재 현산공원에 위치해 있다.

15) 부사류경시선정비(府使柳敬時善政碑)

류경시는 영조 3년 정미(1727년)에 부임하여 특히 교학(敎學)에 힘쓰시면서 선정하였으므로 퇴임 후 양양부민이 힘을 모아 선정비를 세웠다. 한편 뜻 있는 가목한 인사들이 부민의 정이 어린 오동나무로 만든 여섯 줄 거문고인 양양금(襄陽琴)을 만들어 기념으로 증정한 바 있다.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에 양양금(襄陽琴)이 경북도유형문화재 제314호로 창랑보[(滄浪譜):악보]와 함께 전시 중이다.

16) 부사권공중민선정불망비(府使權公中敏善政不忘碑)

권중민은 순조 23년 계미(1823년) 3월에 양양부사로 부임하여 2년 후인 1825년 6월

에 사임하였다. 계미년 부임 이래 법으로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백성을 위해 공평하게 다스리면서 특별히 부민을 다스렸으므로, 부민들의 정성으로 선정 불망비를 세웠다. 현재는 현산공원의 '선정비군지(善政碑群址)' 뒷줄 우측에서 여섯 번째에 세워져있다.

17) 부사이공경용인정비(府使李公景容仁政碑) : 몰자비(沒子碑)

이경용은 인조 8년 경오(1630년) 9월에 부임하여 2년 후인 1632년 11월에 전라도감사를 제수 받고 양양에서 떠나셨다. 양양부사로 재임당시 어질게 정사를 펼쳤으므로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부민의 정성으로 '인정비(仁政碑)'를 세웠는데 장구한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풍마우세(風磨雨洗)하여 문자가 인멸(湮滅)되어 그 기록을 알 수 없으므로 부사 안경운(安慶運)이 농언(弄言)으로 몰자비(沒子碑)라 하였던 것이다. 그후 중구동칭(衆口同稱)으로 몰자비가 되고 알았다. 현재 이 인정비는 현산공원의 '선정비군지(善政碑群址)' 뒷줄 우측에서 아홉 번째에 세워져있다.

18) 타루비(墮淚碑)

이상일(李尙逸) 부사의 선정비이다. 조선조(朝鮮朝) 인조 22년 갑신(1644년) 7월에 도입하여 5년간 양양부사로 재임하면서 선정하였으므로 당시 군민들이 선정비를 양양읍내 동편 구교리와 연창리 사이 길가에 세워 기념하였으며 그 후 백성들은 궁할 때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이 비석을 안고 애걸하였다니 이부사가 벼판 선정의 덕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이상일 부사의 선정비를 타루비라 일컫는 것은 중국 진(晉)나라 무제(武帝) 때의 양호(羊祜)가 일찍이 양양(襄陽)에 있을 때에 늘 현산(峴山)에 올라가 쉬곤 하였는데, 그가 죽은 뒤에 백성들이 그 자리에 비(碑)를 세우고 세시(歲時)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비를 보면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하여 타루비(墮淚碑)라 부른 데서 연유하였다. 지금 이 비석은 현산공원에 옮겨져 있는데 풍화에 글자를 알아볼 수 없다.

19) 김정순선생교학송덕기념비(金定淳先生 教學頌德紀念碑)

개화초기에 현산 학원에서 부국강병을 역설하였으며 한성사범학교 졸업후에는 안동,

양양등지에서 교직생활을 하면서 한국인 최초로 여자 교장이 되기도 했다. 광복 후에는 양양에서 양양지방인민위원장을 역임한 후 한국전쟁 이후 작고하였다. 이 같은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송덕비를 세웠으며 현산공원에 위치해 있다.

20) 대풍수재조난자위도비(大風水災遭難者慰悼碑)

1936년 7월 11일 양양지방의 대홍수를 양양 사람들은 ‘병자년 포락(浦落)’이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비가 왔었다고 한다. 1일 강수량이 300mm가량으로 강릉·양양·삼척 등 영동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1936년 9월 4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강릉에 서만 1,000여 명, 양양지역에서 공식사망자가 584명, 비공식적으로 1,000여 명 가량이 목숨을 잃었다 한다. 그 중에서도 양양은 서면 장리 당상동, 범부리, 수리, 용천리, 손양면 석계리, 양양면의 월리, 남문리, 서문리의 피해가 가장 컸다. 이 당시의 참변을 영원히 위로하고자 서문리로 가는 노변에 위도비를 세웠다가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지금의 제방은 병자년 대홍수가 있는 후 1938년에 재차 견고한 축방을 하여 수해의 우려는 없게 되었다. 현재 현산공원에 위치해 있는데 비문과 휘호는 원창희(元昌熙)의 소작이다.

21) 부사임공오상선정비(府使任公五常善政碑)

임오상은 철종 2년(1851년) 통천군수로 있다가 양양부사로 부임하였다. 동왕 6년(1855년) 맹산군수를 끝으로 사임하였다. 영남에서 대홍해를 당했을 때 조정에 구제를 위한 방책을 건의하여 양양군에는 대두 천석(大豆 千石)을 배정받는데 힘썼으며, 부사가 도에 친히 상서하여 이재민들이 추곡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직단(社稷壇), 국적고(國籍庫), 취산루, 남문루 등을 중수한 사실을 보고받은 어사 강난형(御使 姜蘭衡)은 이에 말(馬)을 내주어 치하하였다. 그 공을 기리기 위해 선정비를 세웠다. 현재 비(碑)는 서면 오색리 망월사 입구에 있다.



부사임오상선정비

22) 면장김남원선정비(面長金南元善政碑)

8·15광복 이후 1952년까지 지금의 양양군 서면 일부가 38°선 이남일 때 강릉군 신서면에 편입되어 있을 때 신서면장을 7년간 재임하는 동안 선정을 베푼 공덕으로 1952년 5월 양양군 서면 서림리 서면출장소 옆에 건립하였다.



면장김남원 선정비

23) 관찰사조공학연선정비(觀察使趙公鶴年善政碑)

조학년은 영조 12년(1736년)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판결사에 승차한 후, 동왕 18년(1742년) 강릉 부사로 부임하여 경포대 중수 및 상량문을 지었다고 하나 정확하지는 않다. 영조 22년(1746년)에 영월부사로 부임하였다가 고을의 전염병으로 사퇴하고 말았다. 경사(經史)에 밝고 시부(詩賦)에 뛰어났으며 술을 즐겼다고 한다. 선정비에는 ‘조찰민은 교구환폐(照察民隱 矯擿還弊)’라고 하여 각종 민의(民意)를 살피는 가운데 특히 환곡(還穀)의 폐해를 줄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비(碑)로 현남면 시변리에 위치해 있다.



시변리 선정·불망비

24) 관찰사신공응호영세불망비(觀察使申公應湖永世不忘碑)

관찰사 신응호(1804~1899년)는 조선 고종 때의 문신이다. 철종 3년(1852년)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정랑(吏曹正郎), 홍문관의 부제학(副提學) 등을 거쳐 대사헌, 이조판서, 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대원군에 의해 우의정에 올랐으나 사퇴한 후, 좌의정에 올라 봉조하(奉朝賀) 신분으로 청나라를 다녀오기도 했다. 후에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비(碑)의 좌우에 그의 공적을 기리는 글이 있으나 마모가 심하여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비석의 상단부에 원형문양을 넣은 비갓형상이 새겨져 있고 현남면 시변리에 위치해 있다.

25) 부사심공의진영세불망비(府使沈公宜晉永世不忘碑)

심의진은 청송 사람으로 면천군수를 역임하고 헌종 2년(1836년) 12월에 부임하여 동왕 5년까지 재임하였다. 부사의 공적은 비(碑)의 마모가 심하여 그의 업적을 확인할 수 없으며 현남면 시변리에 위치해 있다.

26) 부사조공진상영세불망비(府使趙公鎭常永世不忘碑)

조진상은 1842년 12월 익산군수로 있다가 양양부사로 부임하였다. 1846년 12월 영변(寧邊)으로 이배(移拜)되었다. 공의 아버지는 통훈대부(通訓大夫)로 휘(諱)는 경규(景逵) 아들은 통덕랑(通德郎)이요 휘(諱)는 재형(載淳)이다. 조선조 영조조(英祖朝)에 (1760년경) 양양부사로 재임 중에 선정으로 백성을 다스렸으니 공도 있고 열의도 있어 후대로 하여금 잊지 않기 위한 뜻으로 이 비를 현남면 시변리에 세웠다.

27) 부사박00선정비(府使朴00善政碑)

현남면 시변리에 소재하고 있으나 비의 마모가 심하여 이름 확인할 수가 없다.

28) 가선대부중추부사겸오위장정원기불망비(嘉善大夫中樞府事兼五衛將鄭元基不忘碑)

철종 10년(1859년) 3월 산불로 양양부에 551여 호의 민가가 소실되고 이재민이 3,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그 피해가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원기와 성균관 진사였던 그의 아들과 함께 백미 천석과 현금 천냥을 군내 이재민들에게 나누어 구휼했다. 주민들이 이 은혜를 철종 임금께 상소하여 철종 11년(1860년) 철비(鐵碑)를 하사하고 그 공적을 치하였다. 비(碑)와 비각(碑閣)은 강현면 석교리에 있다가 1972년 8월 1일 후손인 정주화가 현재의 자리(양양읍 조산리)로 옮겼다.



가선대부정원기불망비

29) 우인근선생공적불망비(禹仁根先生功績不忘碑)

1958년 4월 1일부터 1971년 2월 24일까지 현성고등공민학교에 근무하였던 우인근 선생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졸업생들이 세웠다. 현재 현북면 어성전리에 위치해 있다.

30) 석포선생경주김공두경씨비(石圃先生慶州金公斗經氏碑)

현북면 어성전리에 소재하며, 비의 전면에는 석포선생경주김공두경씨비(石圃先生慶州金公斗經氏碑)이라고 쓰여 있으며 후면에는 고종정사입의실임인사십육년 문인십명 중대오명부록(高宗丁巳立議室任寅四十六年 文人十名中代五名附錄)과 15명의 좌목이 기록되어 있다. 1917년에 입의하여 1962년에 세워진 비(碑)이다. 문인(門人)과 10명과 중대(中代) 5명이 동참하여 세운 비(碑)이다.

31) 엄주석영세기념비(嚴柱石永世紀念碑)

엄주석의 호는 황헌(篁軒)이다. 성품이 온후하고 무실근검(務實勤儉)하여 요부성가(饒富成家)하였고 빈궁(貧窮)한 사람에게 많은 재화를 나눔으로써 관부로부터 표창하고 입비기념(立碑紀念)하였다. 기념비는 현남면 광진리 광진고개에 있었다.

32) 궁내부주사채공상필시혜비(宮內府主事蔡公尙弼施惠碑)

채상필은 현남면 광진리에 소재하며 옛 7번 국도변에 있으며 대나무 숲과 잡목에 가려져 있어 쉽게 보이지 않는다. 바로 앞에는 지주(地主) 정호경의 자선비(慈善碑)가 있다. 비(碑)의 마모가 심하여 그의 공적을 확인할 수 없으며, 비의 측면에는 ‘소화십육년일월십오일(昭和拾六年壹月拾五日)’이 새겨져 있어 건립 연대가 1941년임을 알 수 있다.



궁내부주사채공상필시혜비

33) 지주정호경자선비(地主鄭鎬璟慈善碑)

만호(晩湖) 초계정공호경선생(草溪鄭公鎬璟先生)은 우리 동방에서 덕망이 높고 말솜씨가 좋아 공도 있고 열의도 있었다. 몸가짐은 꾸밈새 없이 순박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었고 사람

들에게 재화와 환난이 있으면 늘 따뜻한 정을 베풀어 구제하니 면민들은 그 덕을 잊지 않고 모두 추천하여 현남면장에 뽑혔다. 1928년부터 다음해까지 재임 중 큰 가뭄으로 인하여 큰 흉년이 들어 공의 소작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어 이를 잊지 않기 위하여 현남면 광진리에 이 비를 세웠다.



지주정호경자선비

34) 정용화선덕비(鄭龍和善德碑)

강릉에서 대대로 살았다. 공은 성품이 어질고 무던하여 착한 행실을 하며 스스로 배우며 행하였다. 그러나 때의 운수가 천지자연의 조화에 맞지 않아 변화하여 1928년부터 다음해까지 2년에 걸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공의 소작인들로 하여금 재해가 많다는 말이 있어 사람을 시켜 실지로 그곳에 가서 조사하여 전량 감해 주었다. 그 후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공의 너그러운 공을 길이 후세에 전하자는 뜻으로 비석에 오래도록 잊지 않기 위하여 기록을 실어 현남면 원포리에 세웠다.



정용화 선덕비

35) 군수이건웅송덕비(郡守李建雄公貢德碑)

군수 이건웅은 1965년 3월 27일에 부임하여 1967년 12월 1일에 이임하였다. 재임 기간 중이던 1967년에 양양면 송현리(당시 행정구역)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송현·수여의 밭밭들과 가평의 가평들, 그리고 동면평의 넓은 경지를 수리안전담(水利安全畚)으로 전환시켜 놓았다. 이에 그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1967년 4월에 비(碑)를 세워 현재 송현리 양수장 입구에 있다.



이건웅 군수 송덕비(송현리)

36) 군수이건웅(李建雄) 유공비(고노동 농로개설 유공비)

군수 이건웅은 1965년 3월 27일에 부임하여 1967년 12월 1일에 이임하였다. 양양군 양양읍 월리 고노동에 농로를 개발한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1967년 5월에 양양읍 월리에 이 비를 세웠다.

3. 흥학비(興學碑)

1) 부사조종저흥학비(府使趙宗著興學碑)

부사 조종저는 숙종 1년(1775년) 8월에 부임하여 동왕 2년에 수공(修拱)에 제수(陞受)되어 이임하였다. 재임기간 중 교풍을 진흥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였다하여 흥학비를 세웠으며, 아울러 선정비도 세워졌다. 현재 흥학비는 양양향교에 보존되어 있다.



흥학비배치현황(향교)

2) 부사안경운흥학비(府使安慶運興學碑)

부사 안경운은 영조 21년(1745년) 1월에 부임하여 동왕 23년(1747년) 4월에 사직하였다. 부사는 영조 23년 홍각선사탑비(弘覺禪師塔碑)가 산화(山火)로 인하여 절단되었던 것을 1747년 부고(府庫)에 간직하였다가 서울로 이송하였다. 현재 흥학비는 양양향교에 보존되어 있다.

3) 부사임희교흥학비(府使任希敎興學碑)

부사는 영조 31년(1755년) 8월에 부임하여 동왕 33년 7월에 집의승소(執義承召)에 제수되어 이임하였다. 부사는 재임기간 중 학문과 인재양성에 전력하였으므로 흥학비가 세워졌다. 현재 흥학비는 양양향교에 보존되어 있다.

4) 부사이구영거사비(府使李龜榮去思碑)

부사 이구영은 광무 4년(1900년)에 삼척부사에서 양양부사로 부임하였으며, 다음해 10월에 사직하였다. 부사는 재임기간 중 향교와 동해묘를 중수한 공으로 거사비가 건립되었다. 현재 거사비는 양양향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명의 좌우에는 그 업적을 기리는 문구가 각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판독이 불가능하다.

4. 기념비(紀念碑)

1) 경찰전적비

8·15광복 후인 1946년 10월 17일부터 1952년 3월 19일에 이르기까지 북한 공산군의 도발로부터 양양지역을 수호하기 위해 서면 서림리, 현북면 대치리, 장리, 잔교리, 면옥치리, 현남면 남애 3리 등에서 전투 및 38°선을 수호하다가 순직한 경찰경비대원들이 공(功)을 기리고자 1992년 6월 4일 속초경찰서에서 현북면 잔교리에 건립하였다.



경찰전적비

2) 해난위령탑

전국 최초로 해상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실종된 어업인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1993년 3월 27일 해난어업인 유가족들의 건의에 따라 건립되었다. 해난 사고 유가족들이 원할 경우 누구나 위패를 봉안소에 안치할 수 있으며 2004년도 말 현재 949위(位)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 위령탑 뒤에 봉안소가 마련되어 있다.



해난위령탑

3) 기사문리 3·1운동 유적지

일제 때 거세게 일어났던 양양의 3·1만세운동의 시발점이 바로 기사문리에 있는 만세고개에서였다. 양양기미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일 거행되었던 서울의 독립만세운동에 고무되어 양양지방의 독자적인 역량으로 계획, 거행된 만세운동으로서 민중들이 가장 많이 운집하는 4월 4일 양양장날, 임천리를 포함하여 양양지역 9개리 주민들이 양양경찰서 앞에서 집결하여 양양읍으로 진입하면서 그 시작을 알렸으며, 4월 9일을 끝으로 만세운동은 종결되었다. 양양보통학교 졸업생들의 항일정신과 양양감리교회 청년회의 독립정신(감리교회 전도사 조영순과 그의 딸 조화벽이 독립선언서 입수)을 근간으로 하여 양양군내 6개 면 82개 리 동리에서 양양군민 6,000여 명이 만세운동에 참가하는 등 강원도내에서 가장 강렬하게 전개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세운동이다. 이에 순국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희생정신과 독립의지를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해 ‘3·1만세운동 유적비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유적지를 조성하였다.



기사문리 3·1운동 유적지

4) 충혼탑

본 탑(塔)은 일제로부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순국한 독립열사 22위(位), 38° 선에 의해 양양이 북한 공산정권 통치하에 있을 때 공산주의를 반대하던 반공 애국지사 106위(位), 한국전쟁 당시 복진 중 순국한 양양출신의 군경과 월남전에서 전사한 영령 187위(位)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1966년 6월 6일 현충일 날 양양 현산공원에 건립하였다. 당시 정명시 양양군수가 부임하여 1989년 6월 1일 탑을 화강석으로 보수하면서 탑의 모양을 만세형으로 새롭게 하고 친필 쓴 “忠魂塔”을 새겨 넣었다.



충혼탑

5) 행정수복기념탑

일제 강점으로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된 후, 사망자수 450만 명이라는 비극의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자 미(美)·소(蘇) 양군은 임의로 38° 선을 긋고 남한은 미군이 북한은 소련군이 분할 점령하여 군사정치를 하게 된다. 이 때 양양 또한 38° 선에 따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미군과 소련군의 통치를 동시에 받게 되었다. 남쪽으로는 현남면 전 지역과 현북면 잔교리, 대치리, 명지리, 법수치리, 면옥치리, 어성전리, 원일전리, 장리와 서면 서림리, 황이리, 갈천리를 제외하고 양양지역 대부분이 북한 공산권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5년 2개월만에 북한 공산정권 통치로부터 수복된 양양은 남한 군정이 시작되었고 1954년 11월 17일 군정(軍政) 3년 4개월만에 행정권이 군(軍)에서 민간행정으로 완전 이양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955년 3월 현산공원 정상에 건립하였던 것을 1990년 6월 2일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행정수복기념탑

6) 수복기념공병탑(독립문)

1953년 10월에 건립되어 군청사거리에 있던 것을 1972년에 지금의 자리(양양읍 남문리)로 이전하였다. 독립문, 공병문이라고도 하며, 6m 높이의 동상으로 서울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을 본 따 만든 것으로 군인이 북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손에 곡괭이를 잡고, 왼손으로는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닦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6·25 한국전쟁 당시 5년간의 군사정권하에 있을 때 양양에 주둔하던 군단산하 공병대에서 양양지역에 학교와 건축물의 신축, 도로확장 등 지역기초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뜻에서 건립하였다. 이 탑이 상징하는 것은 군관민(軍官民) 합심하여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뜻이 있다. 이 탑은 양양교 인근 제방면에 설치하였던 것을 2006년 여름



수복기념공병탑

양양교 가설 및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산공원에 이전하였다.

7) 필승탑

한국전쟁 당시 제1군단의 부군단장이며 제29사단장이면서 ‘태권도’ 정식명칭을 만든 최홍희(崔泓熙) 장군이 북진 통일을 기약하고 통일의 신념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직접 쓴 ‘必勝’을 가로 2.4m, 두께 0.5m, 높이 5m의 4단 기석에 새겨놓은 탑이다. 현재 양양 현산공원에 보존되어 있다.



필승탑

8) 3·1운동 기념비

1919년에 있었던 양양지역의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1965년 동아일보사와 양양군민 협찬회가 건립한 비(碑)로 양양 현산공원에 보존되어 있다. 오른손에는 독립선언문을 들고 왼손에는 태극기를 하늘높이 들고 있다. 양양지역의 만세운동은 전국



3·1운동 기념비

적으로 손꼽힐만큼 대규모 만세시위로 1919년 4월 3일 일본 경찰들에 발각되어 임천리에서 22명이 체포되고 태극기 수백 매가 압수되었다. 하지만 4월 4일 양양장날을 기하여 수천 명의 군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벌였다. 만세운동은 4월 9일까지 강선면, 도천면, 논산리, 손양면, 상평리 등지에서 각각 별도로 만세운동이 있었다.

9) 동명서원중건기념비(東溟書院重建紀念碑)

양양읍 조산리에 있는 동명서원은 인조 6년(1628년) 본부사(本府使) 조위한(趙緯韓) 등을 중심으로 한 지방유림의 공의로 조인벽(趙仁璧)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충현사(忠賢祠)를 설립하여 위패를 모시고 있는 곳이다. 고종 5년(1868년) 대원군의 서

원철폐령으로 훼손된 것을 후손인 강원도 관찰사 조종필(1840~1915년)이 1898년 동해 순찰시 옛 모양대로 복구하고 유허비를 세웠다. 그 후 1974년에 서원복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방유림과 한양 조씨 후손들이 협력하여 1982년에 현 위치에 서원을 재건하였다. 그리고 17년의 세월이 흘러 건물이 노후되어 1999년 11월에 한양조씨 대종회 주관으로 사당이 팔작지붕에 10평, 강당도 팔작지붕에 13평, 3문은 3평으로 전체적으로 단순한 구조로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마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碑)이다.



동명서원 중건기념비

10) 이안성선생 항일독립운동기념비(李安聖先生 抗日獨立運動紀念碑)

우리의 국토를 강점하고 있던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941년 12월 8일 미국과 열국의 선전포고를 일으킨 세계대전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의 청장년을 징병과 강제노동으로 여성은 정신대로 무수히 끌어가고 학생 노력동원과 식량(쌀)은 물론 각종 유기류마저 무자비하게 모조리 강제징발하던 시절



이안성 항일독립운동기념비

인 1944년 선생은 춘천농업학교 2학년생으로 나이 고작 16세였지만 항일운동에 남달랐던 우리 양양의 애국자의 후손답게 암암리에 동료학생들에게 전시체제에 반항할 것을 종용하던 중 당시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본왕과 조선총독 등 수뇌들에게 조선에서 청장년의 강제동원과 식량 등 물자 강제공출과 학생의 강제노동동원의 중지 등 10개항의 일제통치반대 항의문을 정정당당히 발송하여 일본관헌을 크게 당황시켰다. 이로 인하여 일경에 검거되어 경찰과 학교당국에서 20여 일 간에 걸쳐 혹독한 고문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자 정신병자로 위장시켜 춘천도립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독살할 음모까지 계획하고 있던 중 8·15광복을 맞아 11개월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는 38년간의 항일운동사에 있어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애국운동으로 더욱이 16세의

학생으로서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독특한 투쟁으로 평가된다. 이에 우리는 양양의 혼이 담긴 거룩한 그 뜻을 기리 후세에 전하여 양양골의 빛이 되게 하여 동해 멀리 일본을 바라보며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재정립해 가자는 뜻에서 이 선생님의 외침을 기리고저 양양읍 임천리에 건립하였다.

11) 조선광복 기림비

일제시대 때 이곳 중북리까지 일본 경찰들이 들어와 위안부로 강제징용해가기 위해 부녀자들을 색출하였으며, 이를 숨기는 마을 사람들을 데려다 고문을 하는 등 일제의 횡포가 심했던 지역이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일제로부터 광복이 되고 그



조선광복 기림비

동안의 횡포와 만행에 시달려 왔던 마을 사람들이 조선의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 ‘조선해방기림비’라고 자연석에 새긴 표석(標石)을 마을 입구에 세워 놓았다. 한 때 홍수로 하천에 있던 것을 지금의 자리(강현면 중북리)로 옮겨 놓은 것이라 한다. 제작년도가 1945년 8월 15일인 것으로 보아 62년이 넘는 기념비이며, 당시 하북리에 거주한 김용직(金容直 : 1933년생)의 증언에 의하면 기념비 글씨는 부친인 김희수(金希洙 : 1912년생)가 썼으며 석각은 이평옥이 하였다고 한다.

12) 군수최해규수산도로개발기념비 (郡守崔海圭水山道路開發紀念碑)

1967년 양양군수로 부임하여 1971년 8월 20일 이임하였다. 재임기간 중이던 1970년 수산~월리간 도로 확·포장 및 수산해수욕장을 처음으로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편리와 함께 주민소득에 기여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양양군민 일동이 합심하여 손양면 수산리에 세웠다.



군수최해규수산도로개발기념비

13) 3·1운동 의사 함홍기 권병연 추모비

함홍기는 손양면 가평리 사람으로 1919년 4월 4일 양양장터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사람이다. 이날 수천 명의 군민들이 만세운동을 벌이는 동안 일부 지방 유지들이 체포자들의 석방을 교섭하기 위해 경찰서와 군청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감금



함홍기 권병연 추모비

되어 나오지를 못했다. 이를 알게 된 군중들이 항의를 시작하게 되고 가평리 이장이던 함홍기도 경찰서장실에서 항의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화로를 들고 경찰서장에게 덤벼들었다. 이 때 옆에 있던 사법주임이 칼로 그의 팔을 자르고, 허리를 찔렀으나 쓰러져서도 계속하여 경찰서장에게 항의를 하다가 순국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전국 규모의 양양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 권병연 역시 손양면 간리 사람으로 1919년 4월 4일 김필선, 김재구, 김규용, 김계호, 김주호, 김봉운 등이 힘을 모아 추진한 양양장날의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군민들과 함께 저녁때부터 무력항쟁으로 들어가 돌과 몽둥이를 들고 군청과 경찰서를 공격하기도 했다. 결국 어둠을 이용하여 총을 쏘기 시작한 일경(日警)들에 의해 순국하고 말았다. 이 두 의사의 항일독립운동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 3월 1일 ‘손양면민 일동 주관 재건국민운동 손양면 촉진회’에서 건립하여 손양초등학교 교정에 있던 것을 지금의 자리(손양면 간리)로 이전하였다.

14) 모성단(慕聖壇)

양양읍 선비 이종국, 고성재, 김익수, 조도원, 황낙기, 김윤기, 최선제, 김용석 등이 발기인이 되어 공자가 제자들에게 예법을 가르친 일을 추모하여 ‘양주행우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성인을 흠모하고 유교를 숭상함을 표방하고 양양군민들의 교화사업과



모성단

고을의 바른 풍속의 진작과 향교발전 그리고 돈독한 선행을 위하여 성의를 다할 것을

맹세한 행우회가 단기 4332년 기묘 8월에 세웠으며 현재 양양향교에 보존되어 있다.

15) 양양향교 중건비(重健碑)

양양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이다. 고려 충혜왕 재위(1330~1332년)때 강원도 존무사를 역임하였던 안축의 ‘기문’에 의하면 문선왕동이 옛 학교의 터였음을 전해들은



향교 중건비

안축은 그곳을 향교의 건립지로 설정하고, 양양태수로 부임한 정랑 박균과 협조하여 현유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을 교육·교화하기 위하여 향교를 창건하였다. 이후 양양 향교는 인조 4년(1626년) 학사로서는 협소하여 확장, 중수하였으며, 숙종 8년(1682년) 양양 부사 최상익과 진사 최상은, 박호 등의 주도로 임천리에 이迁하였다. 이 시기의 양양 향교는 대성전 9칸, 동서무 각 6칸, 신문 7칸, 전사청 3칸, 동서재 각 4칸, 명륜당 14칸, 제기고 1칸, 서적고 1칸의 규모를 갖추고 있었으며, 정조 6년(1782년) 양양부사 이진향이 둔전동 주철소를 교궁에 두었다. 6·25한국전쟁 때 불에 타 없어지고 1952년에 대성전과 동무·서무, 동재·서재 등을 중건하였으며 1953년에 명륜당을 중건하였다. 1990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중·보수하였다. 이의 뜻을 알리기 위해 세운 비(碑)이다.

16) 공부자묘정비(孔夫子廟庭碑)

태고에 한 분의 하나님인신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들며 못 신명들과 교감하던 신교의 시대가 있었다. 시간이 흘러 상제님의 천명을 그대로 집행하던 도정시대가 막을 내릴 무렵, 상제님께서는 각 문화권에 신교의 맥을 이을 성자들을 내려 보내



공부자묘정비

섰다. 그 중 2500년 전에 태어나 동양 인문정신의 꽃대를 세워 만세에 공덕을 끼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유가의 창시자 공자(B.C.551~B.C.479년)다. 백성보다는 임금을 모시는 신하가, 신하보다는 임금이 모범이 되는 사회, 이렇게 동양 유교사회에서는 대대로 문치주의·왕도정치가 숭상되었다. 공자가 구현하고자 했던 사람을 다스리되 강제로 움직이거나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닌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대접하며 덕으로써 교화하는 이념이 마침내 뿌리를 내린 것이다. 이와 같이 공자의 사상과 그가 인류사에 남긴 영향들을 적어 놓았다. 현재 양양향교에 보존되어 있다.

17) 경락회유적기념비(鏡洛會遺蹟紀念碑)

조선조(朝鮮朝) 영조 26년 경오(1750년) 7월 양양출신으로 문과급제하고 교리 동부승지를 역임하고 괘간(掛冠)한 이휘진(李彙晉)의 발의에 의하여 양양과 강릉의 문인(文人)이 회동하고 우의돈독(友誼敦篤)과 양향(兩鄕)의 문화교류를 도모코



경락회유적기념비

자 명첩(名帖)을 작성하고 매년 춘추(春秋)로 양양낙산(襄陽洛山)과 강릉경포(江陵鏡浦)를 유상(遊賞)하면서 시가(詩歌)를 지어 읊으면서 당시 조직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계속 그 후손들에 의해 오늘에 연면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양양낙산도립공원 내에 유적기념비를 세웠다.

18) 기우계비(耆友契碑)

낙산사 의상대 남방 가우정에 세워져 있다. 1957년 1월 계수 김영제(金英濟)씨 외 12명이 설악산의 높은 기상과 동해의 맑은 정기 받은 이 고장에 보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이 고장의 발전과 나라의 동량을 기르고자 장학회를 조직하고 육영사업을 추진하고자 합의하고 매월 기금을 거출하여 오다가 계획을 변경하여 4분기별로 나누어



기우계비

거출하기 수년이 지난 후 계원 13인의 재력으로는 도저히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을 인지하고 기우계원의 뜻만을 전하고자 1967년 7월 1일 비석만을 남겼다.

19) 완남군단신도비(完南君壇神道碑)

1400년대 초에 내양(來襄)하여 손양면 수여리에 집성촌을 이룬 전주이씨(全州李氏)의 중시조(中始祖)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成桂)의 황형(皇兄) 원계(元桂)의 3남으로 태조~태종 때에 상장군(上將軍)을 역임한 이 조(李 朝)의 단신도비(壇神道碑)가 이곳 양양읍 기리 유현(油峴=기름재)에 세워져 있다. 이 조는 고종 9년 임신(1872년) 가선대부완남군겸종정경(嘉善大夫完南君兼宗正卿)에 추봉되었으며 그의 묘소는 함경도 함흥에 있으나 병선(兵燹)으로 실전(失傳)되었을 뿐더러 왕래 불통하여 그의 후손들이 단을 조성하여 추모하여 오던 중 1991년 신도비를 세웠다.



완남군단신도비

20) 자연보호헌장탑

1978년 10월 5일 우리나라의 자연보호헌장이 선포되자, 자연을 보호하려는 범국민적인 다짐에 부응하여 산자수려한 우리 양양의 자연을 영구히 후세에 물려줄은 물론 파괴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을 양양을 지키고자 하는 군민의 결의가 모여져 양양군청에서 낙산사 경내에 처음 세웠었는데 낙산사에서 그 자리에 보타전(寶陀巖)을 중창하는 불사가 이루어져 현 위치인 낙산도립공원 내 관광버스주차장 옆 만인이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1991년 세워 기념하고 있다.



자연보호헌장탑

자연보호헌장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자연보호헌장〉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향기 높은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염,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을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 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보호헌장을 제정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
2.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자연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존이 우선되어야 한다.
5. 온갖 오물과 폐기물과 악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의 오염과 파괴는 방지 되어야 한다.
6. 오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7. 국민 각자가 생활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1978년 10월 5일

집필 : 김진하

참고문헌

양양군, 양주지, 1990.

양양문화원, 양양의 전통석조물도감, 2008.

VI. 지명유래

1. 양양의 명칭(名稱)

양양의 지명 유래를 사기(史記)를 통해 살펴보면 고조선 때인 기원전 127년에 성읍국가형태 때는 예국(濊國)의 땅이었고, 기원전 128년 한무제(漢武帝) 원삭(元朔) 원년은 창해군(滄海郡)에 속했었다. 또한 한무제(漢武帝) 원봉(元封) 2년에 임둔군은 낙랑군(樂浪郡)에 편입되었는데 낙랑군은 영동7현(嶺東七縣)에 동부도위(東部都尉)를 설치했다. 한사군(漢四郡) 때 임둔군(臨屯郡)은 낙랑군 탄열현(樂浪郡吞列縣)에 속했다고 『한서지리지(漢書地理志)』와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에 전하고 있다. 고구려 때에는 익현현(翼峴縣) 또는 이문현(伊文縣)이었는데, 통일신라시대에는 익령현(翼嶺縣)으로 고쳐 부르다가, 고려에 들어 와서도 그대로 익령현(翼嶺縣)이라 하였다. 현종(顯宗) 9년(1018년)에 현령(縣令)을 설치하고 동산현(洞山縣)이 본 현에 소속되었다. 고종 8년(1221년) 거란(契丹)의 침략군을 잘 방어하였으므로 양주(襄州)라하고 방어사(防禦使)를 파견하였으나, 1253년에 낮추어 현령으로 되었다가 1257년에는 몽고 침략군에 항복했다는 이유로 덕녕(德寧)으로 강등(降等) 감무(監務)를 파견하였다. 『고려사』기록을 보면 원종(元宗) 원년(元年) (1260년)에 다시 승격하여 양주(襄州)로 하고 지양주사(知襄州事)를 두고 일명 양산(襄山)이라고도 하였으며 일찍이 동해신묘가 있어 국토수호와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중사(中祀)의 제의를 베풀었다고 한다. 『태조실록』에는 조선에 들어와서도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 양주(襄州)로 하였다. 또한 조선을 건국한 태조[李成桂]는 강원도 양양부(襄陽府)에 관음굴이 있다고 하여 양양이라 불렀다. 또한 태조 6년(1397년)에는 임금의 외친향(外親鄉)이라 하여 양주부(襄州府)로 승격시키고 태종 13년(1413년)에 양주도호부(襄州都護府)로 이름을 고쳤다가 태종 16년(1416년) 경기도 양주

(楊州)와 강원도 양주(襄州)의 부름의 소리가 비슷하다고 양양부(襄陽府)로 고쳐 지금까지 양양(襄陽)이라 부른다.

※ 양양군은 지리적 특성상 마을마다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골, 모퉁이가 많으며 각기 이름이 있다. 그 수는 무려 400이 넘는다. 이에 대한 기록은 1995년 양양문화원 발행 '襄陽의 땅이름'에 수록되어 있다.

2. 양양읍의 유래

양양군의 동해안 중부에 위치한 읍이다. 양양읍은 군 소재지로 조선시대 태종 6년(1406년) 부내면(府內面)이라고 하였다가, 고종 32년(1895년) 군내면(郡內面)으로 개칭하고 1914년에 군내면을 중심으로 부남면(部南面)과 위산면(位山面)일부를 편입하였으며 이후 1919년에 양양면이 되었다. 사통오달(四通五達)로 교통은 극히 편리하나 남대천의 발원지에서 100여리를 흘러오는 유수는 항상 시가의 홍수난을 염려하게 되므로 1932년에 남대천 제방을 쌓았는데 1936년 병자년 여름의 대홍수로 파괴되고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막심하였다. 1938년에 재차 견고한 축방을 하여 수해의 우려는 없게 되었다. 1945년 8·15광복과 더불어 국토가 분단됨으로써 38°선 이북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들어갔다가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 후 수복되었다. 1954년 10월 21일 법률 제350호인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 시행에 의거 양양면으로 된 후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거 손양면 상왕도리 일부가 양양면에 각각 편입되었고,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709호에 의거 양양읍으로 승격되었다. 1989년 1월 1일 양양군 조례 제1152호로 손양면 가평리, 송현리 일부가 양양읍 송암리에 편입되었다. 1992년 11월 23일 양양군 조례 제1399호에 의거 양양읍 구교리가 구교1리와 구교2리로 분할되었다. 법정리는 19개, 행정리는 24개, 127개 반을 형성하고 있다.

○ 군행리(軍餉里) : 옛 명칭은 문안[門內] 조선조 당시 양양부내의 성을 방위하기 위한 군인의 급식지였음을 표징(表徵)하는 마을명이다. 부성주위에는 동서남북의 4문이

있었는데 남문과 서문안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문안이라고 불리었다. 그리고 고려 고종 8년(1221년) 양주방어사 때 군량을 쌓았으므로 군행리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문안을 병합하여 군행리라 하였다.

- 성내리(城内里) : 구명은 성안말, 산말이라고 불렸다. 지금은 성의 형태는 없으나 양양읍 당시 성내라 명칭하였는데 그 후 오래됨에 따라 발음이 “산말”로 변칭되었다. 고려 때 양주성 축성 당시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4대문을 내고 축성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구교리(舊校里) : 향교골, 미륵골(彌勒洞)이다. 향교골 유래는 이곳에 향교가 있던 곳 이므로 향교골이라고 부르고, “미륵골”은 별 유래는 없으나 이골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 바위를 미륵바위라고 불렀으므로 이곳을 미륵골이라고 불렀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구교리를 구향교동리라 불렀다.
- 연창리(連昌里) : 상운역이 이곳으로 이전함에 따라 큰 창고를 연이어 건립한 연유로 이름하였다. 서쪽능선을 구명 “대미소 고댕이”라고 하는데 유래는 산등에 대나무가 울창하게 있었고 그 산 밑에는 소가 있었으므로 “대미소”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여지도서』 양양부편. 영조 35년(1759년)에는 연창역리로 불렀다.
- 송암리(松岩里) : 마을 북쪽 작은 산봉우리 위에 솔바우[松岩]가 있어 이름하였다. 구명 “건너말” 유래는 동리의 집단가호에서 분리되어 범재산이라는 산 아래에 민가가 있었는데 본동으로서의 건너편이 된다. 그래서 통속명이 된 것이며 범재고개는 산 형국이 호형(虎形)으로 되어 청곡리(靑谷里)로 통하는 고개가 되었고 따라서 범재고개라고 부른다.
- 내곡리(奈谷里) : 고려초에 형성된 상고(上古)부락이다. 내목(奈木 : 고야나무)이 많았으므로 멧질[내곡리]이라고도 부른다. 화곡산록(和谷山麓)에 민가가 있어 본 동리

의 건너편에 있다하여 건너 마을이라고 부르고 월곡동(月谷洞) 넘어서 있는 마을을 달래 넘어 마을이라고도 한다. 조선조 숙종 때 산정(山頂)에 사직단이 있었으므로 사직단이라고 하고 금수봉은 송죽이 울창하여 그 경치가 좋고 시인들의 음영처로 제공되었으며 장고봉은 옛날부터 정월원소(正月元宵)에 완월(玩月)하는 고봉(高峯)이다. 문성현(文成峴)은 향교 이전 후 문사(文士)와 재사(才士)들의 왕래가 빈번하였으므로 일명 향교고개라고도 하고 마석현(磨石峴)은 맷돌을 만드는 돌을 많이 파냈다고 하여 명명한 것이며 모노동유래(毛老洞由來)는 옛날 산과 골에 삼림이 무성하여 토지가 비옥하고 그 농작물에 흉풍이 없다하여 모로동이라고 하였다.

○ 청곡리(靑谷里) : 옛날 구한국시대에 고을 수령들이 본 동리를 통과할 때는 이곳에서 하마하여 설악산 신령을 향하여 한번 배례를 하였으므로 배일(拜一)이라고 하였는데 그 후 1913년에 산이 좋은 골이라 하여 청곡리라 칭하였으며 동리 인구가 증가되고 지역이 광대함으로 해서 “새터마을”까지를 1리로 하고 동쪽인 “비석거리”를 2리로 구분하게 되었다.

○ 포월리(浦月里) : 신라, 고려시대에 마을 앞에 호수가 있었는데 달이 뜨면 유달리 아름다운 빛이 났으므로 이 마을을 포월리라고 칭하였다. 본래 양양군 위산면(位山面) 지역으로 양짓말 앞에 호수가 있었는데 달밤에 보는 경치가 아름다워서 명명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촌, 하촌을 병합하여 포월리라고하고 군내면에 편입, 그 후 양양읍에 다시 편입되었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용월리로 불렸다.

○ 조산리(造山里) : 고려말에는 마을명을 시상촌[柴桑村] : 조인벽이 양양조산리에 은거하여 그 마을 이름을 중국 동진(東晉)의 은일시인(隱逸詩人) 도연명(陶淵明)이 살던 중국 산서성 시상산을 모방하여 시상촌이라 하였다고 함]이라고도 하였는데 현재는 조산(造山)이다. 옛날 이 마을 산맥이 바닷가까지 이어져 있지 않고 중간이 끊어진 것을 보신 고승이 “그 산맥이 끊어져 있어 훌륭한 인재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

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앞날의 발전을 위하여 동리 주위에 산을 만들어야 한다며 1657년 선조들이 인력으로 만든 연고로 조산리라 칭하였다. 산을 인위적으로 만든 후 이 마을에서 훌륭한 선비, 학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지금도 조산초등학교 옆에는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 때 동네 사람들이 만든 산이다. 또한 이 마을 솔밭 속에는 고려시대부터 나라의 예법(禮法)에 따라 중사(中祀)로 제례를 올리는 신성한 동해신묘(東海神廟)가 있다. 조선 성종 21년(1490년)에 해군부대였던 대포영이 강릉 안인포에서 이곳 조산리로 옮겨왔으며, 수군사령관인 대포만호의 작전지휘 하에 동해안을 방어하던 곳이다. 또한 『한국지명총람』에도 조산리는 성(城)안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의 ‘성안말’ 북쪽문 뒤편 마을이란 의미의 ‘북문뒀’ 등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도평에 대한 유래는 1667년에 산이 붕괴되어 섬이 되었던 것이 1867년에 대홍수로 인하여 매몰되어 현재는 전답으로 화하였으므로 과거의 섬을 추상하여 섬들[島坪]이라고도 한다.

- 사천리(仕川里) : 옛날에는 마을 뒤편 서북쪽 산등에 신라시대의 지명인 해현(蟹峴)에 고개가 있다. 위천(渭川)이라 칭하였는데 그 후 1907년부터 사천리로 개칭하였다. 옛날 이곳에 성황당이 있었는데 원이 말을 타고 통과하다가 말굽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원이 하마하여 원을 업어 넘기고 간 곳이라고 하여 원골이라고 한다. 이 동리를 사천이라고 부르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옛날 이 골에 정주하러오는 사람은 대부분이 벼슬을 하려는 사람이 모여 살기에 “벼슬 사(仕)” “내 천(川)”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한 전설은 이 골짜기 상류의 계곡에서 흘러오는 유수가 많은 모래와 같이 흘러와서 쌓여 “모래 사(沙)” “내 천(川)” 일명 “사천”이라고도 하였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토천리로 불렸다.

- 감곡리(甘谷里) : 조선조 이래로 위산면(位山面)의 송리(松里) 또는 감동(甘洞)이라고도 칭하였다. 1466년 세조대왕이 낙산사에 행행시(行幸時) 동천(洞泉)을 길어다 마시고 물맛이 달다 하여 감천(甘泉)이라고 하였다가 1894년 이후 감곡리로 개칭하였다. 또 혹자는 감곡리가 굽이굽이 골이 많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을에는 12골이 있어 열 두 감동 골 이라고도 한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감동리로 불렸다.

○ 남문리(南門里) : 양주성 남문 밖을 지칭한 지명으로 양양시내의 가구수가 점증됨에 따라 서쪽부터 동쪽으로 1,2,3,4리로 구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래 양양군 군내면(郡內面) 지역으로서 양양읍성의 남문이 있을 때는 ‘남문거리’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남문리라 하였다.

○ 화일리(禾日里) : 산곡협촌이나 관개가 편리하고 삼재[삼재(三災) : 화재·수재·풍재를 모르는 곳으로서 토질은 박한 편이나 사질양토로서 결실만은 실패가 없어서 연년이 풍년이 들어 수일 또는 쉬일이라고 하였다가 그 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화일이라 하였고 옛날 이곳에 물방아가 있었다하여 ‘수침동’ 또는 ‘물방아골’ 이라고도 하였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목일리로 불렸다.

○ 거마리(車馬里) : 마을 가운데로 흐르는 소하천을 옛날에는 금계천(錦溪川)이라 하였는데 그 이름을 따서 금계리라 하였다. 1857년에 진사 황석만(進士 黃錫萬)이 거마리로 개칭하였는데 그 뜻은 다음과 같다. 동구(洞口)에 능용거[(能容車) : 휘장을 드리워서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한 부인이 타는 작은 수레가 능히 다닐 수 있다.]하고 동리[(洞裡) : 마을 가운데]에 능치마[(能馳馬) : 능히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다.]라 하여 동구는 병목처럼 협착하나 동내[(洞內) : 동네 안]는 광활하다는 것이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거말리로 불렸다.

○ 임천리(林泉里) : 옛날에는 녹문(鹿門)이라 하였다. 조선중엽에 향교가 구교리로부터 이전되어 왔으므로 향교 직사가 거주한 관계로 마을이 이룩되어 향교골이라고 한다. 동리 뒷산명은 석성산(石城山)이라고 하며 이 산에 석성당이라고 하는 제당이 있는데 매년 정월에 본동의 연중 행운을 기원하는 축원제를 지내고 있다. 석성산(石城山) 동록하(東麓下)에는 하마비(下馬碑)가 있었는데 향교복구와 동시에 향교전방

입구에 이전하였다. ‘하마비’는 대소인원개하마(大小人員皆下馬)이다. 김문정공상헌(金文正公尙憲)이 양양부사(襄陽府使) 권진을 보낼 때에 다시 글을 지어 주었다. 습가지관기생, 강한풍류 지허사(習家池觀己生, 江漢風流 祇虛事)/현향잔비각기춘 문하견성방인(峴香殘碑閣畿春 門下見姓龐人)이 마을은 무성한 숲에 덮여 있고 항상 맑은 물이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임천이라 한 것은 조선조 숙종 때 회양부사 조종저(趙宗著)가 임천으로 고쳐 시(詩)를 읊은 데서 연유되었다 한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향교가 있는 곳을 문성왕리라 불렀다.

- 기정리(基丁里) : 본래 위산면(位山面)의 관할이었으나 1916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리(基里)와 정손리(丁巽里)를 통합하여 마을이름 첫 자를 따서 기정리라고 칭하였다. 고려 당시 거리에 암자가 있었던 관계로 좋은 골이라 하여 텃골이라고 불리지고 있으며 정손(丁巽)은 동리(洞里) 뒷산이 정자형(丁字形)으로 되고 손방에 있다하여 정손(丁巽)이라 칭한다. 기리는 옛날에 무천제를 올릴 때 이곳에 처음 터를 정한 곳이라 전해져 ‘텃골’이라 불렀고, 진사들이 물을 먹고 병이 나았다고 해서 ‘진수골’이라고도 한다. 양지마을, 음지마을, 잣말 등으로 나뉘고 정손리 입구에는 소나무가 많아 솔모정 거리라고 부른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진수동리로 불렀다.

- 서문리(西門里) : 구명(舊名)은 마을이 대부분 들판이었으므로 “버덩말” 버덕말이라고 하였다. 그 후 양양부성 서문(襄陽府城 西門)밖에 있다하여 서문리로 개칭하였다. 옛날 동리 중심으로 묵개라는 계천(溪川)이 있었으며 내곡리 사직단 산록 양지쪽이라 하여 양지마을이라고 한다. 양지말에 가면 샘터가 있는데 샘터가 꽃심지라 해서 옛날 원님이 떠다 먹던 물이라 한다. 그곳에 가면 비석에 글을 새겨놨는데 지금도 속초에서 그 물을 많이 떠다 먹는다. 가물거나 비가와도 물이 고정적으로 많이 나온다.

- 월리(月里) : 조선 때 양양부의 ‘건넛마을’이라 해서 건넌 월(越)자로 지었다가 일제 강점기 때 마을산이 달 형국이라 하여 월리로 바뀌었다. 풍수지리상 마을의 뒷산이 반월형(半月形)으로 생겼다고 하여 달 월(月)자를 1909년에 개칭했다. 박정수의 『살

아있는 땅, 1965』에 의하면 송강 정철 선생을 빼놓을 수가 없다. 송강선생이 강원도 관찰사로 있을 때인데 남대천에 바람을 쏘이러 나가 무산 12봉을 보니 양양에 큰 인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무산 12봉에 쇠말뚝을 박고 그 밑에 소금 독을 묻었다고 전하고 있다.

3. 서면의 유래

군 소재지에 서부에 위치한 면이다. 관내에 설악산국립공원의 남설악이 있다. 면소재지가 있는 수상리를 비롯하여 범부리·수리·북평리·공수전리 등 20개 법정리가 있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서면에는 공수전리(公須田里)·영덕리(盈德里)·서림리(西林里)·청대리(靑臺里)·오색리(五色里)·상평리(上平里)·장생리(長牲里)·수동리(水洞里)·웅전리(熊田里)의 9개 마을에 속하여 있다. 『해동지도』에는 박달령(朴達嶺)·서면(西面)·오색령(五色嶺)·정족산(鼎足山)·조침령(阻枕嶺) 등이 표기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는 북평리[北坪里, 아래곰밭]·수동[水洞, 물꼴]·상평리[웃드루]·서선리[西仙里, 괘목기]·가라피리(加羅皮里)·공수전리[공수왓치]·미천동(米川洞)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세는 산악이 전면적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수다곡심(水多谷深)하여 주민의 생활은 극히 빈곤(貧困)하여 과거 병자년 홍수를 당하여 인명손실과 전토유실(田土流失)이 상해[桑海: 상전벽해의 준말]의 참화(慘禍)를 보았다. 그러나 지하자원만은 무진장(無盡藏)의 보고(寶庫)로서 자철(磁鐵)의 매장량이 많아서 우리나라 유일의 자철광산인 양양광업소가 성황을 이루었던 지역이다. 인구의 밀도는 희박(稀薄)하나 장수고령자가 많음을 볼 때 산수의 서기(瑞氣)가 아닌가하는 감(感)도 있다. 한 나무에 오색화(五色花)가 피어서 연유되었다는 오색리에는 약수가 변함이 없고, 오색령 일대의 사시절(四時節)의 가정(佳境)을 가히 소금강이라 칭하며, 99곡의 구룡령은 홍천과의 중요통로가 된다. 1945년 광복 후 38°선 이남에 위치한 다섯 개 마을[서림리, 갈천리, 황이리, 명지동, 조개리]은 강릉군 신서면에 속하였다가 1954년 11월 행정이양과 함께 본군에 편입되었다. 그 후 1973년 7월 조개리는 홍천군 내면에 편입되었다.

- 수상리(水上里) : 서면소재지로 수년전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강줄기가 변경되어 마을이 세워졌으니 이곳을 ‘물웃꾸미’ 라고 부른다. 병자년에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는데 이 모습이 물에 떠있는 모습과 같다하여 수상리라 명명되었다.

- 상평리(上坪里) : 마을 이름은 쑥두루인데 예전에 이 마을에 온통 쑥이 아주 많이 자랐다는데서 연유한다. 상평리는 들돌거리, 수상리, 상평리 3개의 마을로 나뉘어 있다가 통합되었고 예로부터 “웃드루”라고 불리는 평지가 있었다는 데서 명명되었다.

- 장승리(長承里) : 임천리와 수상리와의 경계에서 수상리 뒷산 능선으로 오색령으로 가는 큰길이 있는데 진등을 이어 마을이 되었다고 하여 장승리라 명명하였다. 우리나라 제일의 자철광 산지로 유명했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장생리로 불렸다.

- 서선리(西仙里) : 고대풍수설에 의하면 계곡이 심오하고 연하(烟霞)가 담청(淡淸)하여 풍진(風塵)이 불도교중선(不倒橋中仙)으로서 서방에 위치하였다하여 서선리라고 한다. 또한 성황당 고개 밑에 있어서 신선이 사는 마을이라 하여 명명하였다고도 한다.

- 논화리(論化里) : 노내골[論化里] 옛날 양양관가에 상소 차 주민들이 모여서 최종 논의하고 결의하던 곳으로 정하였다는 연유로 명명하였다고 한다. 또한 산과 논이 많아 ‘논 옛골’, ‘노내골’ 이라고도 한다.

- 오색1리(五色1里) : 본래 명칭은 가라목(加羅木)이 많으므로 가라피리라고 하였으나 행정수복 후에 오색1리로 편입되었다. 옛날 주민들은 갈대와 가라목피로서 짚신, 삿갓, 갈자리 등을 만드는 수공업으로 생업을 삼았었다.

- 오색2리(五色2里) : 오색석사는 계곡의 오색암석에 연유된 명칭이라고도 하나 한편 한 나무에 5색 꽃이 피었다하여 명명한 지명으로 1937년 양양군수로 부임한 전재우

군수는 오색리에서 3색 꽃이 피는 나무를 파서 이식하였으나 꽃이 피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8·15광복 후까지 3색 꽃이 피던 고목이 관터 입구 근방 도로변에 있다가 노목으로 썩어 없어졌다. 본래 현 오색2리 지역만을 오색리로 불리었다.

○ **범부리(凡阜里)** : 천안상(川岸上)에 형성된 마을임을 표징(表徵)한 것이다. 뒤에 언덕이 있고 앞에 큰 냇가 흐르므로 범부리라 명명하였다. 예전에는 가마골이라 해서 도자기 굽는 마을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마골은 약 20년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다 헐어버리고 없다.

○ **북평리(北坪里)** : 북평리의 원래 이름은 ‘아랫곰밭’이라 한다. 이 곰밭이란 이름의 유래는 마을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른 곳과는 다르게 나무가 울창하다. 그것도 고목나무가 많은데 고목나무 밭을 줄여서 말한 것이 북평리의 본래이름이라 한다. 북평리란 이름은 일제강점기 때 마을을 개편하면서 붙였다. 또 다른 유래는 음지에 처한 마을임을 표징한 것이며 200여 년 전에 괴목(槐木)이 많아 괴목정(槐木亭)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는 웅전(熊田) : 곰밭이라 하였다가 북평리로 개칭하였다. 속칭 북들, 북드루, 아랫드루라고도 한다.

○ **용천리(龍泉里)** : 마을 앞 정수(井水)에서 용이 등천(登天)하였다는 전설에 의하여 용천(龍泉)이라고 한다.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뒷골, 버덩말, 웃곰밭을 병합하여 마을 앞에 있는 용소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웅전리로 부렸다.

○ **수리(水里)** : 물골 또는 물골이라고 한다. 오대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이 마을을 지나기 때문에 수리라고 불린다. 수리마을은 4개의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마솥의 형태로 되어 있다. 큰 가마솥을 보면 젓이라는 것이 4개 있다. 그 중에 4개의 봉우리 중에서 뒷산에 있는 봉우리가 파손되면서 가마의 물이 흐르는 형태가 되어서 수리마을의 가구 수는 100을 넘지 못한다고 전한다. 옛날 어르

신께서 봉우리가 수리를 보호한다고 해서 봉우리마다 묘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는 묘를 쓰지 못하게 하였다. 수리는 처음에는 물골이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는 수동 이라고 불리다가 지금은 수리라고 한다. 물이 많아서 수리라고도 한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수동리로 불렸다.

- 내현리(內峴里) : 동리 중간에 산이 있어서 내현(內峴)이라 하였는데, 속칭 “안고개” 라고도 칭하고 있으며 마을 중간에 밥상과 같은 암석(岩石)이 있어 소반암동이라는 소동(小洞)이 있다. 내현리 중심에서 약 5리 떨어진 곳에 도랑이 진 굴이 있는데, 굴 은 아주 깊고 넓으며 물은 한 여름에도 얼음같이 차다. 옛날에 이 굴에서 용이 나서 승천했다고 전해온다. 용이 통할 만큼 큰 굴이라 하여 용통굴이라 했는데 지금은 용 통굴이 바뀌어 ‘요통굴’이라 부른다.
- 송어리(松魚里) : 마을 앞 계천에 송어, 연어, 자라가 많았으므로 명칭하였다. 옛날 에는 수십 호(戶)가 되었으나 점차 줄어서 행정구역 개편 시 1954년 송천리에 편입 되었다. 일명 “송어골”이라고도 한다.
- 북암리(北庵里) : 황이리 선림원에서 북방에 위치한 암자가 있었다하여 북암리라고 하는데 속칭 “북애미”라고도 하며 1960년대까지 마을이 있었으나 지금은 몇 집만 살고 있다. 마씨 세거지였다.
- 용소리(龍沼里) : 윗 용소골 하천에 큰 소가 있는데 이 소에서 용이 등천하였다하여 용소리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독립마을이었던 것이 점차로 줄면서 공수전리로 편입 되었다. 속칭 “용수골”이라고 부른다.
- 영덕리(盈德里) : 영덕리의 지명유래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번째로 영덕리 부근 에는 양아치라 불리는 고개가 있는데 큰 양아치와 작은 양아치의 고개를 가로질러 다녔다는 뜻에서 영덕리라고 지었다고 한다. 한편 물이 가득하면, 마을에 복이 들어

온다고 믿어 영덕리라고 지었다고 한다. 옛날부터 마을 주민들은 동리가 우형국(牛形局)이라 하여 윤산(潤産)의 덕이 충만하리라는 연유에서 마을 이름을 붙인 것이다.

- 송천리(松川里) : 하천 가운데 송림이 울창하여 강물이 양쪽으로 흘러 내려 갔다 하여 송천이라 하였다. 또한 뒷내의 지류인 속내가 있으므로 속내라 칭하다가 변하여 송애, 소래 또는 송천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송천리라 하였으며 1954년 송어리(松魚里)를 병합하였다. 조선시대 이해조 부사가 명명한 의춘암(宜春巖)이 경치를 자랑하고 있다.



의춘암

- 공수전리(公須田里) : 마을의 명칭은 조선조 때 관청의 경비에 쓰기 위하여 관가에서 정해놓고 경작하던 공수전(公須田)이 있었던 연유로 유래되었다. 또한 200여 년 전 어느 지관이 이르기를 마을의 형국이 귀인공자처럼 생겼다고 하여 명명하였다 전한다.

- 서림리(西林里) : 서면 서쪽에 있는 마을로 삼림이 울창하여 서림리라고 명명하였다고 한다. 한편 서림사(西林寺)가 있었던 연유로 ‘서림골’ 또는 서림이라 하다가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서림리라 하였다고 한다. 옛날에는 목재를 주재료로 삼던 때는 제재소 등의 시설이 들어서고 목상들도 많이 모여 들어 한 때 시장(市場)도 번성하던 곳이다. 또한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에 해가 드리워진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해담마을’이란 이름을 지어 부르게 되었는데 해질 녘 마을에서 바라보는 산과 하늘 풍경은 아름답기로 이를 데 없다는 데서 연유한 것으로 ‘산과 산 사이에 해를 담고 있는 마을’ 또는 ‘해를 담은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말을 줄여서 ‘해담마을’이라고 한다.

- 황이리(黃耳里) : 황이리는 일명 황룡마을이라 한다. 신라시대 수도승들의 요람이었던 선림원지와 미천골을 품에 안은 전형적 산촌마을인 황이리는 마을 형상이 깃불

이 늘어진 누런 황룡이 머무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한가운데로 남대천 지류인 1급 수질의 후천이 흐르고 있다. 또한 미천골은 하늘과 산이 맞닿는 곳에서 쏟아지는 폭포수, 미천골자연휴양림, 불바라기약수터, 문단이암산, 얼음굴, 맑은 계곡 등 풍부한 관광자원인 자연환경에 곁들인 황이리의 특산물은 친환경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하는 친환경쌀과 인진쑥, 장뇌, 산채, 송이, 토종꿀, 표고버섯, 목공예품 그리고 산천어 등 희귀어가 맑은 후천에서 살고 있으며, 특히 여름이면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드는 원시림이 무성한 천혜의 아름다운 마을이다.

- 갈천리(葛川里) : 처음에 칠레에서 치레로 불리다 갈천이 되었다. 갈천이라는 마을 이름은 칩뿌리에서 나왔다. 화전민이 주로 자리 잡고 살았던 산골마을인 갈천에서는 춘궁기가 되면 칩뿌리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이 항상 칩가루 일색이기 때문에 갈천 또는 칩내, 치레라고 불렸다. 갈천리에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바로 갈천약수다.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위장병과 피부병에도 좋다고 한다. 산삼이 많이 났으며 토봉도 많이 생산되던 곳이다. 옛날에는 왕승골에 사람이 많이 살았었다. 자철광산 유지(遺址)가 있으며 구룡령 옛길 복원으로 명성이 전국에 퍼져 있다.

4. 손양면의 유래

군의 동해안 동남부에 위치한 면이다. 관내에 양양국제공항과 동호해수욕장이 있다. 면소재지가 있는 하왕도리를 비롯하여 학포리·상운리·동호리·오산리 등 24개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손양이라는 지명은 양양에서 손(巽)방향, 즉 동남방향에 있는 면이므로 이름 지은 것으로 보인다. 1914년에 조선 후기의 동면과 남면을 통합하여 손양면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른다. 오대산맥이 남대천에서 용을 돌려 동면평과 상운평의 양평야를 형성하였으니 토질이 비옥(肥沃)하여 양양의 곡창이라고 할만치 농민주착(農民住着)의 천연적인 환경이 부여되고 있거니와 수산봉수대(水山烽燧臺)와 상운고정(祥雲

古亭)은 유지(遺址)만이 남았으면서 전대의 제도와 면모(面貌)를 연상케 하며 쌍호(雙湖)의 비학(飛鶴)과 오봉(鰲峰)의 신기루(蜃氣樓)는 타계에서 볼 수 없는 진경이다. 과거 25개리로 구성되었던 당면은 광복 후 2개리(석개리 · 부소치리)가 줄어 현재 23개리로 되어 있다.

○ 왕도리(旺道里) : 고려 때 판교리(板橋里)의 부속동으로 있었는데 조선 세조대왕이 낙산사로부터 월정사에 행행도중 이곳에 있는 청풍정(淸風亭)에 소요(逍遙)하셨다고 왕도리(王道里)라 칭하였다가 그 후 일제 강점기에 왕(王)자가 쓰여지는 지명은 거의 다 왕(旺)자로 고쳐 기록하였다. 이는 일본인들이 문화정책 말살이란 의도 하에 왕(王)자를 일왕을 의미하는[日+王=旺]자로 고쳐 기록하였다. 고 하는데 이 마을은 웃왕도와 아랫왕도로 불리어 오다 웃왕도를 상왕도리 아랫왕도를 하왕도리로 분할되었다. 상왕도리에는 『서당마을』이 있는데 약 100년 전 해운(海雲)선생이 서당을 창설하여 한문을 가르친데서 연유한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판교리로 불렸다.

○ 간리(間里) : 약 200여 년 전부터 동쪽에 송현리 남쪽에 왕도리 북쪽에 월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형성된 마을이므로 간리라 하고, 속칭 “새잇골”이라고도 한다. 지리적으로 조선시대부터 군사 요해지(要害地)로 알려져 있다.

○ 송현리(松峴里) : 옛날에 수십주의 대송(大松)이 뒷고개에 울창하였기에 송현리(松峴里)라고 칭하였다. 본래 양양군 남면지역으로서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새이말(間村) 정자동 조구터를 병합하여 송현리라하여 손양면에 편입되었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고송개리로 불렸다.

○ 수여리(水餘里) : 고려 명종(明宗)때부터 조선초기(1450년) 단양우씨(丹陽禹氏)의 우거지(寓居地)였다. 전염병으로 우씨일가(禹氏一家)가 몰락하고 두 가구만 남았을 무렵 이세문(李世門)이 단종폐위 계유정란(癸酉靖亂)시 삼척에 정배되었다가 1456년 함

홍 본궁으로 양이(量移) 중 양양에 잠시 머물렀을 때 무협(無邪)의 특별 몽유(蒙宥 : 죄인이 놓임을 입음.)로 윤휴(允許 : 임금이 허가함)의 은혜를 입고, 이곳을 매입 정착한 곳이다. 당시 마을 안은 온통 굴참나무숲이던 것을 개간 정지하여 양양 제일의 명당 터라 불리는 홍덕말을 조성하고 보니 곳곳에 넓은 바위가 있어 그들 바위에서 글공부를 하였다하여 ‘문바우마을’[文巖鄉]이라고 하였다. 한편 마을 뒤는 남대천의 물굽이가 휘어 닿는 곳으로 물이 풍부하고 경치가 아름답고 물이 모자라는 때가 없다하여 ‘무내미’라고 불렀으며 조선시대 관덕정이 있었다. 행정구역상 조선시대는 통창 동면(東面)이라 하였으며, 1916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당뒷말, 바구매[博古馬], 버덩말, 솔말, 동녘말, 홍덕말, 서녘말, 넘말을 병합하여 수여리라 명하고 손양면에 편입되었다. 수여리에는 알곳은 일화가 전해진다. 조선시대 1580년 송강 정철이 강원관찰사가 되어 동해안을 순행 중 이 마을 서낭재에 올라 서서 “이크! 여기 대리[大嶺 : 큰 교룡, 큰 뿔 없는 용] 한 마리 있군” 하면서 소금항아리로 살(煞)을 지르고 갔다한다.

- 금강리(金崗里) : 고려초에 선인(先人)이 지중지석(地中之石)이 여금견지고(如金見之故) 즉, ‘땅 속의 돌이 금강석 같이 보인다.’ 하여 금강리(金剛里)라 한 것이 1910년 일제강점 이후 금강리(金崗里)로 기록되어 부르고 있다. 부연(敷衍)하면 금강리의 가운데 글자가 굳셀강(剛)자이었는데, 산등성이 강(崗)자로 변화였다.
- 가평리(柯坪里) : 약 200여 년 전까지 마을주위에 갈풀이 많이 자생하므로 가평리라 칭하였는데 속칭 “갈벌”이라고도 한다. 본래 양양군 동면의 지역인데 1916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손양면에 편입되었다. 가평리 송림 속에 철기시대 때의 움집유적이 발굴된 역사의 고장이다.
- 송전리(松田里) : 예전에 금강리와 한 동네였다가 규모가 커져 약 200년 전에 분리되었다. 옛 지명은 솔밭으로 제주도 솔을 옮겨 심어 그 소나무가 번성하여 솔밭을 이루었다고 한다. 제주 고씨의 집성촌이었으나 광복이후부터 다른 성씨들이 차차 들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제주 고씨가 마을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마을주민

의 상당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동쪽은 대해(大海)에 연접하고 동서북에는 송수무성(松樹茂盛)하여 사시장청(四時長靑) 수려한 풍광으로 둘러있는 한 가운데 자리한 집단마을로 주위에는 크고 작은 개와 웅덩이가 많아 구명(舊名)은 송호리[松湖里 : 350여 년 전]로 칭하다가 그 후[연대미상] 송전리로 개칭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 속칭 「솔밭」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송전(松田)이란 지명이 있는데 이는 나라에서 귀한 목재를 생산하던 곳이므로 이 마을은 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 오산리(鰲山里) : 쌍호(雙湖)의 하구에 위치한 마을로서 오무(鰲舞)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그것은 파도가 치는 날 낙산사에서 오산봉우리를 보면 마치 큰 자라가 춤을 추는 것과 같다고 한다. 또한 봉우리가 자라 모양처럼 생겨 그렇게 부른다고도 한다. 오산리는 일제말 마을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오무’라 불리던 마을이다.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마을 입구에서 발굴, 해양어로생활에 쓰이던 유물이 많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오산리 마을의 역사는 그 어느 곳보다도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동면지역이었으나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손양면에 편입되었다. 고려시대 “송림사”라는 절이 동해 해변 쪽 오산리와의 경계근방에 있었는데 지금은 지형이 변하여 흔적도 없다.

○ 수산리(水山里) : 전면은 대해(大海)요 후면(後面)은 산이 있으므로 수산리라 칭하며, 이곳에는 봉수대가 자리하고 낙산사에서 수산 굴암자를 보면 흡사 파도가 춤추는 것과 같다 한다. 일명 수무라고도 하는데 본래 양양군 동면지역으로 있다가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손양면에 편입되었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수산진리로 불렸다.

○ 학포리(鶴浦里) : 약 500여 년 전에 적성동(赤城洞)이라고 칭하였는데 정조대왕(正祖大王)때에 박진사(朴進士)가 송전리 앞에 일호(一湖)가 있으므로 호명을 쌍호라 칭하고 백학이 상집(翔集)함으로 학포리라 칭하였다. 김삼연 동우기(金三淵 東遇記)에 양양부 동방십리 구봉산(襄陽府 東方十里 九峯山) 아래 적성동(赤城洞)이 있는데

원림(園林)이 청수(淸秀)하고 호산(湖山)이 화려(華麗)하며 화조월석(花朝月夕)에 풍광이 유미(幽媚)하다고 절찬하였다. 구봉산(九峯山) 아래에는 적성동이라는 삼자석각(三字石刻)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불성리로 불렸다.

- 도화리(桃花里) : 어촌인 수산리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다. 이질고개와 하고개에 둘러싸인 본 마을은 마을이 깨끗하고 감나무가 많이 있는데 옛날 이름은 도리골로 복숭아 도(桃)자에 오얏나무 리(李) 자를 썼다. 해안도로 건너 바닷가 쪽은 ‘발월’이라한다. 본래 도락골이라 하였는데 복숭아가 떨어지는 마을이라는 뜻이며 고려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도목(桃木)이 많이 있어 그 풍경이 좋아 그 이름을 도화리라고 한다. 여기는 수십만년전 “아슐리양” 계통의 구석기 문화가 형성된 인류의 숨결을 더듬어 보게 하는 곳이다.

- 동호리(銅湖里) : 양양국제공항 동쪽 해변 마을이다. 500년 전에 큰 호수가 있었고 그 호수의 빛이 구리색과 같아서 구리개, 굴개라 불렀다고도 하고, 이곳에서 구리가 많이 나서 동호리라 불렀다 한다. 개통을 못한 기차 터널을 지나 위치한 장전리와 통합을 거쳐 현재는 동호리가 되었다. 터널을 못 미쳐 서낭나무와 장군석, 그리고 약수터가 있으며 손양 어촌계에 소속된 마을이다. 손양 어촌계는 수산리, 오산리, 동호리의 세 개 마을이 모여서 하나의 어촌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만 하나로 묶여 있을 뿐 재산권은 각각 독립되어 있다. 동호리 마을의 형성유래는 알 수 없으나 예전에는 염전도 많았던 곳으로 넉넉한 생활을 한 마을이다. 풍설이기는 하나 굴개가 울면 비가 온다고 하며, 멸치후리가 이 고장의 중요 민속놀이로 정해져 있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굴포진리로 불렸다.

- 상운리(祥雲里) : 동리지형이 주마형국(走馬形局)이고 여운포리 국암(麴岩) : 누룩바위]과 여운포의 연계를 향하였으며 일출시에는 상운이 장부(長浮)하였으므로 상운리라 하였다. 또 옛날 상운리 어디엔가에 상운사라는 절이 있었다하여 상운리라고 칭

하였다고도 한다. 조선시대 새로 부임하는 부사가 먼저 찾았다는 유명한 상운정(祥雲亭)이 있었으며 본래 양양군 남면지역으로 조선조 때 상운역이 있어 교통의 중심 요지였으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관터, 정잣말을 병합하여 손양면에 편입되었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상운역리로 불렸다.

- 여운포리(如雲浦里) : 본래는 연포였었는데 발음의 착오로 지금은 여운포리라고 부른다. 본래 양양군 남면 지역으로서 개가 연하여 있으므로 연개 또는 여운포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손양면에 편입되었다. 상운리에서 소개한 연못과 누룩바위는 이 마을에 있다. 일명 ‘상서로운 구름이 구름포구를 이룬 것 같다.’라고도 하는 미래의 땅이다. 6·25한국전쟁 때 야간에 작전 중이던 미군 함선이 여운포가 오색령 밑까지 흰하게 확 트인 포구로 잘못 보고 전진하다가 백사장까지 다른 전쟁사가 있다.

- 하양혈리(下陽穴里) : 지형이 우오[迂澳 : 구불고 깊다]하여 양기를 독수[獨受 : 혼자 받는다]하므로 양혈(陽穴)이라고 칭하였다. 1920년도에 상하 2개리로 분리하여 하양혈리가 되었다. 이곳에는 임병천의 처 파평윤씨의 열녀각이 있어 남녀간의 사랑과 여인네들의 정절을 깨우치게 하고 있다.

- 상양혈리(上陽穴里) : 1920년 각리 행정구역 개편시 하양혈리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하여 이름하였다.

- 밀양리(密陽里) : 약 400년 전부터 파평윤씨(坡平尹氏)가 거주한 곳인데 둘레가 동령(洞嶺)에 쌓인 남향으로 겨울이 늦게 들고 봄이 일찍 와서 기후가 밀온 하므로 밀양리라고 한다. 본래 양양군 남면의 지역으로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손양면에 편입되었으며 예전에 행남학교(杏南學校)가 있었으며 행남(杏南)이라고도 칭하였다. 또 고려말 우왕 비의 병환시 양주도호부에서 신약을 개경에 하룻밤 사이 전달했다는 16세 윤(尹) 총각의 무덤이 있어 양양의 수호신 격이었다 한다.

- 와리(瓦里) : 약 200여 년 전에 손씨(孫氏)가 거주할 때 토와공장(土瓦工場)을 설치하였다하여 와리(瓦里)라 칭한다. 함창봉(含蒼峰) 아래 따뜻한 동남쪽에 마을을 이루고 있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와동리로 불렸다.
- 우암리(牛岩里) : 마을 앞에 돌이 있는데 마치 소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을 이름을 우암이라 지었다. 마을 이름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한우사육이 우수하다.
- 주리(舟里) : 약 500년 전 임씨(林氏)의 창건으로 동리형태가 배형국과 같다하여 주리(舟里)라고 칭하였다. 풍수설에 의하면 이 마을은 항구처럼 생겼기 때문에 마을 아래에 내려가 살면 사(死)하고 중턱에 올라와 살면 생(生)한다하여 대부분의 주택이 마을 산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마을아래 주민은 가세가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 남양리(南陽里) : 고려조에는 판교리(板橋里) 그 후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삽존리(挿存里)로 개칭하였다. 서기 1955년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석계리, 부소치리를 병합하여 남양리라 하였다. 본래 양양군 남면의 지역으로 주위 산림에 숲이 무성하여 숲 좋은 마을이라 하던 이름이 변음 되어 삽존리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손양면에 편입되었다.

5. 현북면의 유래

군의 동해안 중남부에 위치한 면이다. 면소재지인 하광정리를 비롯하여 14개의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양양도호부에 ‘속현(屬縣)이 하나이니, 동산현(洞山縣)은 본래 고구려의 혈산현(穴山縣)인데, 신라 때에 지금 이름으로 고쳐서 명주(溟州)의 영현(領縣)으로 만들었다. 고려 현종 9년 무오에 익령현(翼領縣) 임내에 이속시켰고,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조선 후기의 현북면과 현남면으로 분리되었다는

기록에서 양양도호부의 속현인 동산현에서 지명이 유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 때 동산현의 북쪽이라하여 현북면이 되어 도동(陶洞), 말곡, 어성전, 광정, 명지 등의 5개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현재와 같이 14개리를 관할하였다. 8·15광복과 더불어 38°선 분단으로 인하여 기사문, 말곡, 상광정, 중광정, 하광정, 도리 등 6개리는 38°선 이북지역에 편입되었다. 나머지 8개리는 현남면에 병합되어 강릉군에 편입되었다가 1950년 수복되고 1954년 현북면으로 복구되었다. 지세는 서고동경(西高東傾)하나 서쪽의 좁은 마을은 산이 높고 깊은 계곡으로 전답이 적어 사람살기가 고생스럽고 동쪽은 들판으로서 전답이 고루 분포되어 땅이 비옥하여 살기 좋은 곳이다. 하조대는 선인들의 소요처라 승경도 장(壯)하거니와 시원스러운 동해안과 기암절벽 위의 누각에는 시인묵객과 낚시꾼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기름진 광정평야는 바둑판과 같이 농경지 정리가 잘되어 있고 마을마다 농로가 개설되었고 집집마다 경운기, 전기, 전화, 텔레비전이 보급되어 50년 전에 비하면 실로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다고 하겠다.

○ 하광정리(下光丁里) : 예전에는 광정리(廣丁里)였는데 그 후에 광정리(光丁里)로 하였고 인증가(人增加)에 따라서 상중하의 중에서 아래에 있음으로 하광정리(下光丁里)라고 한다. 여기에는 하조대가 있어 해금강을 방불하며, 현북면의 소재지로서 면 단위 각급기관 단체가 있고 7번국도의 연변(沿邊)에 소재하여 교통이 편리한 광정천의 하구지역이다.

○ 중광정리(中光丁里) : 예전에는 광정리(廣汀里)라 하였으나 그후 마상초에 광정리(光丁里)라 기록되어 그대로 개명하여 오다가 인구증가로 인하여 상·중·하로 분할시 가운데에 있으므로 중광정리(中光丁里)라 부르게 되었다.

○ 상광정리(上光丁里) : 상광정리는 현북면 중심지이며 면사무소와 보통학교가 이곳에 설치되었으며 최초에는 광정진(廣丁鎭)이었던 것이 인구의 증가로 상·중·하리로 분할하여 상중하 광정리(光丁里)로 개칭되었고 광정진(廣丁鎭)의 유래는 지금의 중광정리와 본동 경계지인 잣골뒗산 능선에 고대(古代)에 여진과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광정진을 설치하였으므로 광정진이었고 지금도 진(鎭)의 성지(城址)석축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리고 명지리에서 흐르는 하수와 대치리에서 흐르는 하천이 이곳에 합류하여 광정천을 이루고 있다.

○ 기사문리(基士門里) : 기사문리는 내외마을으로 구분하여 옛날에는 내칭(內稱)은 초진(草津)이고 외칭(外稱)은 기사진(奇沙津)으로 칭하였다. 해변백사장을 걸어가면 사박사박 발자국 소리가 나므로 오사(鳴沙)라고 했다. 근래에 와서 기사진을 기사문리로 개칭되었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초진리로 불렸다.

○ 잔교리(棧橋里) : 마을중간으로 하천이 형성된 관계로 하천을 건너기 위한 잔교(棧橋)가 많았다하여 잔교리라 한다. 일명 잔다릿골이라고도 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38° 선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는 누구나 맞다고 보는데 잔교리를 가로 지른 선으로 1950년 10월 1일 우리 국군이 잔교리를 통과하는 7번국도 38° 선을 첫 발을 디어 북진하였으므로 국군의 날을 지정한 계기가 된 곳이다.

○ 말곡리(末谷里) : 옛날에는 하곡리(荷谷里)라고도 하고 미곡리(未谷里)라고 하였는데 미자(未字)와 말자(末字)가 비슷하므로 미자(未字)가 말자(末字)로 와전된 것이다. 일명 “머일”이라고도 한다.

○ 대치리(大峙里) : 대치리를 한재라고 부른다. 대치리의 대자(大字)는 클한자이고 치자(峙字)는 재자로 한재라고 부른다. 이 마을은 동으로 임재, 서에는 희목재, 남으로 직시재, 북으로는 귀골재로서 한재씩 넘나드는 관계로 큰 고개 한재라고도 한다.

○ 명지리(明池里) : 옛날 마을 한가운데 적은 못이 있었는데 수심이 깊은데도 물밑이 정청(澄清)하여 노는 고기를 헤아릴 수 있으리 만큼 수명(水明)하였으므로 명지리(明池里)라고 칭하였다고 한다.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곤죽골 소맷골 용기점마을을 병합하여 명지리라 했다. 양양지역은 송이로 유명하지만 특히 명지리 송이도 유명하다.

- 어성전1리(漁城田一里) : 마을 주위는 산성을 이루고 마을은 분지형(盆地形)으로 기름진 전답이 수십만평이 있고 오대산, 응복산(鷹伏山)으로부터 발원하여 흘러오면서 여러 곳의 대소계곡의 물이 합수(合水)하여 평탄한 하상이 넓게 펼쳐지면서 물고기가 많이 서



어성십경 중 제2경인 운문천석(雲門川石)의 운문암

식(棲息)함으로써 장작불을 때고 이밥 먹고 고기 잡아 배불리 먹으니 살기 좋은 이상향(理想鄉)을 이룬 곳이라 하여 어성전(漁城田)이고 현북면의 출장소가 있었으며 광복 후 행정구획상 어성전1리와 어성전2리로 분할되었다. 어성십경(漁城十景)의 아름다운 경치를 품고 있으며 예전 사람들은 어성밭이란 말로 잘 통한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어성리로 불렸다.

- 어성전2리(漁城田二里) : 어성전리로 되어 있는 것을 1950년 6·25한국전쟁 후 분할하여 어성전1·2리로 되었다. ‘탁장사놀이’ 전승마을로 전국에 널리 알려진 관광의 명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 원일전리(元日田里) : 지명의 유래는 그다지 특별하지는 않는데 마을에 고을원이 살았다 하여 원일전리가 되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남대천으로 흐르는 대천(大川)은 평탄한 이 마을 중심부에 이르러 비로소 노기를 푸는 듯 소리 없이 흐르는 모습이 마치 잠을 자는 것과 같다하여 와천동(臥川洞)이라 하였다고 전하고, 원일(元日)이라는 화전민이 이곳에 들어와 전토를 개척하여 점차 인구가 많이 입주를 하게 되었으므로 “원일전리”라고 칭하게 되었다.

- 장리(獐里) : 옛날에는 노루가 많이 서식하였다하여 장리라고 칭하였는데 속칭 “노루골”이라고도 한다. 또한 옛날 뱃터말 근방에 겨울에 눈이 내려도 항상 눈이 녹아 없어지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곳에 노루가 자주 머물다가는 길지로 장흥사(獐興寺)

라는 절을 지었다는 연유로 명명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 도리(陶里) : 질골이라고도 하는데 옛날부터 점토가 생산되어 질그릇을 만들던 마을이므로 도자기 도자를 써서 한자로 도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마을은 신라에 이어 고려 초엽까지 현읍(縣邑)이 있었다고 전해지므로 당시의 유적지와 유물을 더듬어 볼 수 있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도동리로 불렸다.
- 면옥치리(綿玉峙里) : 고명(古名)은 면록치리(眠鹿峙里)였는데 그 후 오응길(吳應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용모가 옥같이 담백(淡泊)하였으므로 이런 한세인물(罕世人物)이 면면(綿綿)하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개칭하여온 것이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면비치리로 불렸다.
- 법수치리(法水峙里) : 남대천 남쪽 상류 일부가 여기서부터 발원되므로 마치 불가의 법수를 색출한 것과 같다는 전설이 있으며 매월당 김시습이 검달동에 와서 기거할 때 법수치리라 불린 이름이라 한다. 또한 대승진목의 변이 고기로 화(化)한 전설을 가진 법수가 흐르는데서 법수치리라고 한다.

6. 현남면의 유래

군의 동해안 남부에 위치한 면이다. 관내에 죽도·매호·남애해수욕장이 소재한다. 면소재지인 인구리를 비롯하여 21개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본래 고구려의 혈산현(穴山縣)인데 신라 때 동산현(洞山縣)으로 고쳐서 명주(溟州)의 영현(領縣)이 되었다가 고려 현종 9년(1018년)에 익령현(翼嶺縣)에 속해 내려오다가 조선조 때 현남면이 되었다.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21개리를 관할하다가 1945년 38° 선의 분단으로 인하여 강릉군에 편입되었는데 1963년 1월 1일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양양군에 환원되었다. 현남면은 동산현의 옛땅이니 동산 남쪽에 위치하였으므로 현남이라 명칭되고 소재지는

인구로 농어업이 대략 반반이며 인구밀도가 높다. 천년전 현을 다스리던 곳이요 수십회의 병화(兵火)가 거쳐 간 땅이며 죽도의 연사대, 농구암(鍊砂台, 弄鳩岩) 등은 신선이 노닐던 환영(幻影)이 아롱거리고 매호(梅湖)에 배 띄우니 학(鶴)과 거북이가 함께 소요(逍遙)하느니라 화상암(和尚岩) 옛 전설은 최공(崔公)의 일화로 회구지정(懷舊之情)에 도취(陶醉)케 하도다.

○ 인구리(仁邱里) : 인구리는 해송정(海松亭)으로 인가(人家)가 없다가 인구역[(仁邱驛) : 과거는 원포리 인구곡(麟邱谷)으로부터 이역(移驛)하여 왔다함]이 설치된 후 인구라 칭하였으며 그 후 민가의 증가로 말미암아 1,2리로 분할하였다. 전설이 깊은 죽도가 있으며 현남면 소재지이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인구역리로 불렸다.

○ 죽정자리(竹亭子里) : 고려말기에 향교 소재지로서 후산(後山)에 죽림이 울창하여 추절(秋節)에 사람이 대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감을 따먹을 정도로 대나무가 굵었다 고하며 그후 죽리라고 부른다고 한다.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죽리[일명 땃골]와 정자리[정자골]를 병합하여 이름지었다.

○ 광진리(廣津里) : 과거 큰바다라고 불려왔는데 그 후 광진리(廣津里)라고 부르고 속칭 ‘광나루’ 라고도 칭한다. 해변은 온통 너럭바위이며 이곳에 휴휴암(休休庵)이란 절이 새로 세워져 관광지로 각광을 받는다.

○ 포매리(浦梅里) : 망월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세가 매화(梅花)가지모양으로 형성되어 개매(開梅)라 하다가 그 후 지금과 같이 개(浦)가 이루어졌으므로 포자(浦字)를 따서 포매(浦梅)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곳은 천연기념물인 백로·왜가리 도래지로 자연 생태학자들의 관심이 모여드는 곳으로 일찍이 양로시설인 보리수마음이 건립되었다.

- 견불리(見佛里) : 현재 거주하는 조씨선조 모인(趙氏先祖 某人)의 대과급제 당시 부처님이 현몽되어 등과하였다는 전설로 견불리라 칭한다. 지형이 ‘노승예불’의 형국이라 하여 견불이 변하여 존불이라 하며 또는 개매 위쪽이 되므로 웃개매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견불리라 하였다.

- 남애리(南涯里) : 포매(浦梅)의 매화(梅花)가 결실(結實)하여 남애지역으로 향하여 떨어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낙매(落梅)라고 불리다가 그 후에 남쪽바다라는 뜻으로 남애라고 개칭하였고 자연인구증가로 1,2,3,4리로 분할하였다. 남애항은 양양에서 가장 어획량이 많은 국가 1종 어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양야산(陽也山)에는 봉수대가 있었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양야진리로 불렸다.

- 원포리(遠浦里) : 과거 임호정리에 속하여 있었고 멀리 바라다 보이는 마을이므로 머지개라 하였고 최초에는 인구곡(麟邱谷) 인구역(仁邱驛)의 소재지였다고 한다. 영조 35년(1759년)에는 원당리로 불렸다. 『여지도서』 양양부편.

- 지경리(地境里) : 과거에는 임호정리에 속하였고 그 당시 주위가 방축(防築)이었고 강릉과 양양의 군계였기에 지경리라고 한다. 신석기 문화의 유적지가 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의 발굴 조사가 끝났으며 7번국도 확포장으로 인하여 매장 관리 중이다.

- 임호정리(臨湖亭里) : 임호평야가 과거에는 호수로서 이름이 임호(臨湖)라고 하며, 당시 부근에 정자가 있었기에 임호정(臨湖亭)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지금도 지중(地中)에서 말[해초의 일종]이 나오고 있다.

- 입암리(笠岩里) : 동리 남쪽 산에 암석(岩石)이 있는데 그 암석의 모양이 갓과 같아 하여 관암(冠岩)이라 하였고 맞은편 산 밑에 족두리 모양의 바위가 있어서 두 가지 이름을 합하여 갓바위라하여 입암리라고 칭한다.

- 상월천리(上月川里) : 망월산 주룡(走龍)이 월천에 머물러 반달형을 이루고 화동[(花洞) 꽃골] 시동[(寺洞) 절골] 어혈동[(於穴洞) 느르리골]의 세골형세가 내천자를 이루었으므로 일명 ‘달내’라고 하고 한자로 月川이라고 쓰며 상월천, 하월천으로 구분한다. 일명 웃달내라고도 한다. 영조 35년(1759년)에는 월래리로 불렸다. 『여지도서』 양양부편.

- 하월천리(下月川里) : 본래 월천리[달래]였으나 마을이 산골짜기를 따라 길게 형성되고 호(戶)증가로 서쪽지역은 상월천 동남쪽 지역은 하월천으로 구분하였다.

- 두창시변리(斗昌市邊里) : 두리(斗里)는 북분리에 속해 있었고 한때는 후동(後洞)으로 되었다가 그 지형이 말[斗]처럼 되었다고 하여 두리라 칭한다. 창리(昌里)는[과거는 倉里라고도 함] 죽리에 속하였다가 창찰사(倉察使)의 답주지(番住地)라 하여 창리(昌里)라고 한다. 시리(市里)는 창리 부근에 시장이 있던 곳이라 하여 시변리라 불렀다고 하며 주민의 인구수가 적어 3개리를 합하여 ‘두창시변리’라고 부른다.

- 동산리(銅山里) : 본래 고구려 때 혈산현(穴山縣)의 소재지인데 신라 때 동산현(洞山縣)으로 고쳐서 내려오다가 조선조 때 동산리(洞山里)가 되어 양양군 현남면에 편입되었다. 이름의 유래는 마을 모양이 장구 모양이라는 데서 나왔다는 설과 구리 동(銅)자를 쓰는 데서 나왔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 북분리(北盆里) : 옛 예맥 당시 북방변경(北方邊境)이라 하였다가 그 후 지형이 분지(盆地) 모양으로 형성되었다하여 북분리[뒋벌]라 칭하였다. 또한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거릿말, 골말, 구렁말 성촌(城村) 영남동 용숫골 현촌(峴村)을 병합하여 북분리라 하였다.

7. 강현면의 유래

군의 동해 북부에 위치한 면이다. 관내에 낙산해수욕장과 낙산사가 있다. 강선리, 물치리, 간곡리, 둔전리 등 22개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여지도서』의 기록에 의하면 강선면은 둔전동리(屯田洞里)·상북동리(上福洞里) 등의 4개리, 사현면에는 소근교리(小斤橋里)·북동리(北洞里) 등의 7개리를 관할하고 있으며, 각 리의 위치와 호수 및 남녀별 인구수가 수록되어 있다. 『해동지도』에서는 사현면은 강선면보다 지금의 물치천 상류에 표기되어 있으며, 하류부에 강선역 지명이 수록되어 있다. 마을 지명 중 둔전리는 강선역의 역둔토가 있어 지명이 유래되었다. 조선시대 물치진리(物溜津里)로 수록된 지명은 『조선지리지』에는 ‘물치리’로 기재되어 있다. 물치는 상류에 매장된 철광석으로 인해 하천 색깔이 검어 유래되었다. 한편 강선리는 신라시대의 선인 영랑, 술랑이 이곳에 들렀다하여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전해진다. 구한말 고종 33년(건양 1년, 1896~1908년) 강선면과 사현면으로 칭하여 오다가, 순종 2년(융희2년, 1908년) 2개면이 통합하여 강현면으로 하였다. 북으로 물치리 남으로 전진1리[주청거리]까지의 구역을 확정하여 서로 설악산정에 이르기까지 24개리로 구성되었는데 본면은 관동팔경의 수위(首位)인 낙산사를 비롯하여 설악산 승지가 있고 서울과의 항공로가 개설됨에 비행장이 설치되고, 5·16후부터 동해안 방어사령부가 주둔하는 등 관광, 산업, 군사의 요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장산평과 대조평의 평야는 동해안 유수의 곡창으로 생산물이 많이 산출(產出)된다. 현재 비행장은 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 물치리(物溜里) : 물치천의 상류계곡에 산재해 있는 매장된 철광석과 노천광석으로 인하여 철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흐르면서 항상 검은 물이 흘러 이곳에 자연히 깊은 물치소가 만들어진 연유로 물치리라 명명하고 유물제(俞勿齊) 선생과 최립(崔笠) 선생의 주거지가 있었던 연유로 택말이라고 하는데 우암 송시열의 물치주 詩句로도 유명하다. 1916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택촌을 병합하여 물치리라 명칭하고 있다. 영조 35년(1759년)에는 물편진리로 불렸다. 『여지도서』양양부편.

- 강선리(降仙里) : 신라시대 화랑도 영랑, 술랑이 이곳에서 잠시 두유(逗留)하였으므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강선태를 축하고 이로 인하여 마을명을 강선리라고 하였다.

- 하복리(下福里) : 김해김씨의 근거지로서 자손만대에 복이 ‘복(復)’하다는 자긍심의 소산인 듯 하나 실은 본면 중에서 농산물이 풍성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인구가 조밀하여 지금은 상중하 3리로 구분되었다. 옛날에는 복천(福泉)이 있고 앞 송정(松亭)에 활을 쏘던 관덕정(觀德亭)이 있었다고 한다.

- 중복리(中福里) : 중복의 서남쪽 앞 산 넘어골에 복골 김해김씨 수자항열(洙字行列) 19대조부가 원주에서 독신으로 와서 사망하여 현재 정승(政丞)골이 백대천손지지(百代千孫之地)라는 명당에 묘를 썼는데 당시 풍수지리에 유명한 지관이 현재 위치보다 한 금정(金井)을 더 올라가 묘를 쓰면 정승판서(政丞判書)가 나고 현 위치는 자손이 번창한다고 전하고 있어 양양8명당의 하나이며 그 후 김해김씨 자손은 많이 번창하였다.

- 상복리(上福里) : 본래 양양군 강선면의 지역으로서 복골 위쪽이 되므로 ‘상복골’이라 하였으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복리라 하여 강현면에 편입되었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상복동리’이라 하였다.

- 회룡리(回龍里) : 마을의 주위산세가 와룡(臥龍)이 부복(俯伏)한 것과 흡사함으로 회룡리라 칭하였다 본래 양양군 강선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도룡농 같아 도룡골이라 불러오다가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회룡리라 하여 강현면에 편입되었다. 오억령(吳億嶺) 관동방백(關東方伯)과 얹힌 회룡굴(回龍窟)이란 전설로도 유명하다.

- 장산리(長山里) : 마을 뒤 산기슭이 길다하여 장산(長山)이라 표징(表徵)한 것이다. 속칭 ‘산이 길다.’란 긴되[長山]요, 들이 넓고 길어서 예부터 진평이라 했다. 또한 양양 제일의 곡창지대로서 둔전리 계곡물을 끌어드리는 관개시설이 잘되어 쌀농사가 잘되고 해마다 쌀이 남아 묵는다는 뜻의 진미(陳米)라는 뜻으로도 불린다. 6·25

한국전쟁 후 영북지방에서는 최초로 비행장이 설치되어 군용비행장을 거쳐 민간비행장으로서 하늘 길을 연 곳이다.

- 석교리(石橋里) : 300년 전부터 대문터라 칭하다가 조선말엽 석교리로 개칭하였다. 이 석교리라는 것은 마을 앞 노고천에 돌다리를 놓고 다녔다고 해서 석교라 한다. 이곳은 간곡리와 둔전리를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 간곡리(間谷里) : 석교리와 둔전리 사이에 있다고 하여 간곡리라고 부른다. 경주최씨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근래에 들어와서는 외지사람들이 별장을 지었다. 논농사보다는 대부분 밭농사 위주이다. 돌산과 골이 없어서 마을에 피해가 없다. 마을 뒤 북쪽에 위치한 높은 산이 있는데 암석이 병풍처럼 둘러있어 병풍산이라 하며, 옛날 호랑이가 인근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나 병풍산 덕분에 간곡리만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 물갑리(勿甲里) : 마을 산형이 한자의 물(勿)자와 같으므로 물갑리(勿甲里)라고 칭한다. 본래 양양군 사현면의 지역으로서 갈모봉 밑이 되므로 물갑이라 부르다가 1916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물갑리라하여 강현면에 편입되었다.
- 사교리(沙橋里) : 짙은다리, 삭은다리라고 부른다. 300여 년 전에는 색은교(索隱橋)라고도 불리다가 사개교리(沙介橋里)라 개칭하였다. 그 후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사교리로 개칭하였다. 사교팔경이라는 것이 있고, 성씨 구성은 강릉김씨와 광주노씨로 이루어져있다. 문등이병도 고쳤다는 냉장터와 학이 날아갔다는 학비골이 마을에 있다. 물의 흐름 방향이 서로 쌍을 이룬다하여 쌍내동이라고도 부른다.
- 금풍리(金風里) : 예전에 쇠풀무골이라 칭하다가 조선말엽 행정구역 개편으로 금풍리라 칭하였다. 본래는 양양군 사현면의 지역으로 이곳에서 금을 많이 캐었으므로, 쇠풀무 또는 금풍이라 하였다. 마을이 어려워지자 금이 풍부하길 바라는 마음에 금풍리라

마을명을 고쳤다. 예전 이 마을 명칭을 쇠풍골이라 한 것은 양양면 화일리 앞산에서 쇠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돌을 등짐으로 져 날라 마을에서 마을 뒷산에 구덩이를 파서 쇠를 많이 가져다 쇠를 녹여 팔았던 것에서 유래 되었다. 이제는 쇠를 녹여 팔았던 일을 안 하므로 이 마을 명칭을 쇠금(金)자에 바람풍(風)자를 써서 금풍리라 불린다.

○ **침교리(砦橋里)** : 300여 년 전 방아다리라 칭하던 바 그 후 교량의 가설이 불충분한 한말시대에 다듬이돌 같은 석재로 임시 가설하였던 유래로 명명하였다. 또한 마을 한가운데 약 500년 된 고송이 마치 방아다리처럼 생겨 상징적인 뜻으로 속칭 방아다리로 칭하였다고 한다.

○ **적은리(積銀里)** : 300여 년 전에 작은골(小洞)이라고 칭해오다가 적은골 적은리라고 이름을 지었다. 전골, 적은골, 작은골로도 불린다. 마을의 형국이 큰 우물과 계곡물이 존재하여 큰 우물이 음, 계곡물이 양으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였다고 한다. 마을 앞산기슭에 ‘慶州金氏世藏洞’(경주김씨세장동)이라 음각된 왕바위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소근교리로 불렸다.

○ **광석리(廣石里)** : 답리(沓里)와 경계를 이루는 마을로 방축리로 올라가는 신작로 옆논 가운데 크고 평평한 넓은 돌이 10여명이 앉을 수 있는 너럭바위가 있으므로 광석리라고 하는데 지금은 광석은 없어지고 한 두 사람이 앉을 만한 작은 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속칭 “넓은돌이” 또는 “나분돌이”라고도 한다.

○ **답리(沓里)** : 옛날에는 논이 무척 많아서 논골로 불렸으며 지금도 나이든 사람들은 답리보다는 논골이라는 지명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 마을에 특이한 것은 절대로 21호가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이유로서 21호에서 한 호만 늘어도 그 집은 무슨 이유인지 헐리고 만다고 한다. 이름도 오래된 냉정터[冷泉]가 쇠주골 어귀에 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낙산사를 찾는 길에 들에서 벼를 베는 관음의 화신인

여인을 희롱하다 도승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전설이 심어진 곳이다.[삼국유사] 전작(田作)만을 농가의 수위(首位)로 하던 시대에 마을앞들의 비옥한 토질을 이용하여 신라 때부터 낙산사의 불존답(佛尊畓)으로 개칭하여 개답사상(開畓史上)의 효시(嚆矢)였음으로 동명(洞名)이 지어진 것이다. 영조 35년(1759년)에는 노동리로 불렸다. 『여지도서』양양부편.

○ 전진1리(前津1里) : 이미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던 마을로 옛날엔 앞나루라고 불리던 곳이다. 마을의 중심 상가는 낙산사와 비치호텔로 올라가는 큰 길 좌우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길의 왼편은 모두 낙산사 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다. 낙산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오래된 절이다. 세조가 이 절에서 피부병을 고친 후 낙산사를 중심으로 바다를 포함해 사방 10리를 낙산사의 땅으로 하사하였다고 한다. 그 후로 주민들은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도 낙산사에 일정량을 바치고 생활하였으나 일제강점시대 일본인들이 수산조합을 만들어 낙산사의 바다에 대한 권리를 없애고 땅도 많은 부분을 빼앗았다. 하지만 지금도 도로는 대부분 낙산사 땅이어서 주민들은 세를 내고 있다. 전진리는 원래 1리를 ‘앞나루’, 2리를 ‘뒷나루’ 라고 불렸다. 또는 1리를 ‘전진(前津)’ 이라 하고 2리를 ‘후진(後津)’ 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낙산사로 불렸다.

○ 전진2리(前津2里) : 오봉산 낙산사를 중심으로 하여 남쪽 마을을 앞나루[前津]라 칭하고 북쪽 마을을 뒷나루[後津]로 오다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전진1·2리로 구분되었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북진리로 불렸다.

○ 주청리(酒廳里) : 옛날에 술을 만들어 팔던 주청이 있었던 곳으로 주청리라고 한다. 주청리 본동을 주청거리라고 한다. 6·25한국전쟁 중 없어진 관음송(삼형제소나무)이 이 마을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7번국도변에 있어 이곳을 지나는 길손마져 소원을 빌었던 문화를 간직한 곳이다.

- **용호리(龍湖里)** : 마을 앞 호수에 용이 살았다고 하여 ‘용개’, ‘용못’이라 불린 지명이다. 현재 호수는 없으며 주로 논농사이고 이 밖에 과수원을 하는 집이 몇 있고 여러 성이 골고루 분포되어 살고 있다. 광진말, 새이말, 골새, 웃말, 말앞 등 여러 골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말앞에 김도경(金燾卿)의 효자각이 있어 도덕교육의 장으로서 보는 이를 교화하고 있다. 본래 양양군 사현면의 지역으로서 용못 뒤쪽에 있으므로 뒷골이라고도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용호리로 고쳐져 강현면에 편입되었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북동리로 불렸다.

- **정암1리(釘岩1里)** : 1466년 낙산사 중수 때 사용할 바위에 정을 쳤다는 데서 유래했다. 마을 진입로를 따라 양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마을은 약 500년 전에 창건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못 정자와 바위 암자를 써서 ‘정암리’라고 불린다. 마을 어귀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깨서 낙산사 돌문을 만들려고 하다가 한 쪽을 깨고 다른 쪽을 깨려고 하니 돌에서 3형제가 나왔는데 그 3형제가 지금 바다에 묻혔다고 한다. 그 전엔 바닷물로 소금을 굽던 염전가마가 아홉 곳에 설치되어 소금을 구웠다고 해서 아홉 구(九)자에 솥 정(鼎)자를 써서 구정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 후 바위가 깨지고부터 정암리라고 고쳐졌다.

- **정암2리(釘岩2里)** : 정암2리는 정거장거리(옛 낙산역)에서부터 북쪽으로 면사무소, 진평, 비행장, 초·중학교 등 일대가 된다. 6·25전쟁 중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비행장에 내리셔서 북진통일의 의지를 다지던 곳이며, 1960년 여름 북한공군 소위 정낙현이 미그15기종인 소련제 공군기를 몰고 귀순한 역사의 현장이기도한 마을이다.

- **방축리(防築里)** : 300여 년 전에는 등반동(登盤洞)으로 불렸었고 그후 제동(堤洞)으로 다시 고쳐 부르다가 방축이 있으므로 방축리로 개칭되었다. 양지말, 응달말, 부층말, 길알말로 마을을 이루며, 마을 한가운데에 이 마을이 형성될 때부터 있었던 감로의 샘이 있었는데 인구가 늘면서 그 샘을 공동 우물로 삼았는데, 극심한 한발에도 항상 물이 가득하게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옛날 이곳을 지나는 행객은 여기서

봇짐을 내려놓고 목을 축이며 쉬어갔던 곳이다. 2007년 ‘참 살기좋은 마을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정락정(井樂亭)을 새로 세워 경관을 돋보이게 했다. 이곳에서 마을 남쪽에 장지협(張池峽)의 처 제주고씨의 정절을 기리는 열녀각이 있어 효열(孝烈)의 산교육장이 되고 있는 마을이다.

- **둔전리(屯田里)** : 신라시대에 창건한 진전사가 있었는데 고려 때 둔전(屯田)이 있었으므로 둔전리라 칭하게 되었다. 조선조 때 강선면으로 있을 때에는 강선역의 토지인 둔전이 있었으므로 둔전동이라 불려오다가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둔전리라 하여 강현면에 편입되었다. 여귀소는 진전사지 탐 앞 하천에 수심이 10m 가량 되는 소가 있는데 진전사 창건 시 여승이 절을 지으려고 기도를 하는데 중에 현몽하기를 “이 소를 뛰어 건너서 갔다 오면 절을 짓도록 하여준다.”고 하므로 여승이 이 소를 뛰어 건너가다가 익사하여 여귀소라고 한다.(둔전리 추종삼의 증언) 한편 옛날 아기를 업은 아낙이 이곳 물가 언덕에 뽕을 따러 갔다가 등에 아기를 업고 뽕 따기가 힘들어 아기를 내려 잠재우고 뽕을 따다가 젓을 먹이려고 아기를 찾으니 간곳이 없어 찾으니 그녀의 귀여운 아기는 잠에서 깨어나 엄마젓을 찾아 엉금엉금 기어가다가 그 깊은 소에 빠져 익사한 것을 발견하고 “아기야! 아기야!” 애타게 부르던 그 소리 오래오래 메아리치니 세인들이 “아기소”라 했다는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다.(사교리 최돈수의 증언) 둔전리는 추계 추씨(秋溪 秋氏)의 세거지(世居地)로 탐거리 동남쪽에 추계 추씨 10대 기념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에는 둔전동리로 불렸다.

참고문헌

- 양양군교육청 『향토지』1968.
양양문화원 『향토지』1976.
양양군, 『양주지』, 1990. 361~373p
양양군홈페이지 지명유래(<http://www.yangyang.go.kr>)
『여지도서』양양부편
양양문화원 『양양의 땅이름』, 1995.
-